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해녀 출가(出稼) 배경과
정착 과정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고 미

2023년 2월



A Study on the Background and Settlement
Process of Jeju Haenyeo Leaving Jeju

KOH MI

(Supervised by professor Heo Nam Choo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2023. 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Interdisciplinary Postgraduate
Program in Koreanolog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Abstract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II. 제주해녀와 제주해녀문화	12
1. 제주해녀와 제주해녀문화의 이해	12
2. 해녀 현황과 해녀의 가치	22
III. 제주해녀 출가(出稼)와 이동 경로	30
1. 제주해녀 출가(出稼) 연구사 검토	30
2. 제주해녀 출가(出稼)의 배경	32
3. 제주 출가(出稼)해녀의 이동 경로	37
1) 국내 출가(出稼)	37
2) 국외 출가(出稼)	57
IV. 제주해녀 출가(出稼) 방식과 정착 과정	68
1. 제주해녀 출가(出稼) 방식	68
2. 출가(出稼)해녀 정착 과정	79
V. 결론	86
참고문헌	90

표 목차

[표 1] 신고어업 수리 현황	22
[표 2] 주된 어로어법별 어업인 현황	22
[표 3] 제주해녀 총괄	23
[표 4] 행정시·연령별 현직 해녀 현황	24
[표 5] 수협·연령별 현직 해녀 현황	24
[표 6] 부산광역시 나잠어업(해녀) 현황	51
[표 7] 부산광역시 해녀 현황	82

그림 목차

[그림 1] 경상남도 제주도해녀입어문제경과	37
[그림 2] 돛배를 이용한 제주해녀 출가물질 향로	41
[그림 3] 『조선총독부관보』 1915년 4월 14일 정규호 806호 17면	41
[그림 4] “물질 원정 왔다가 동해안에 정착” 동아일보 1940년 4월 11일자	45
[그림 5] ‘해녀촌 풍경’ 동아일보 1970년 7월 25일자	45
[그림 6] 고승여 해녀, 김영호 해녀, 고금순 해녀	46
[그림 7] 고금순 해녀	47
[그림 8] 김정생 해녀, 윤연옥 해녀	47
[그림 9] 제주 출신 부산 영도 해녀들 작업 모습	48
[그림 10] 부산 영도 동삼어촌계 총무 최동식 해녀	49
[그림 11] 동해안의 제주해녀촌 경향신문 1987년 10월 5일자	56
[그림 12] 오성찬 기증 구술자료 목록 일부	58
[그림 13] 동아일보 1929년 6월17일자	70

Abstract

A Study on the Background and Settlement Process of Jeju Haenyeo Leaving Jeju

Research on *Haenyeo* in Jeju has been steadily conducted so far, and despite the accumulation of efforts and achievements by researchers such as Haenyeo songs and sea disputes, few studies have identified the meaning of Haenyeo in other regions other than Jeju. Therefore, this study conducted to identify the background, route, and community of *Haenyeo* who left Jeju by applying the research method on the life history of Jeju *Haenyeo*.

In order to conduct this study, the researcher collected data such as related literature, previous studies, newspaper articles, personal data, and interview data. In addition, previous research data were supplemented by analyzing the recorded data of *Haenyeo* from Jeju who had been moved to Vladivostok, Russia, and the background and route of movement of *Haenyeo* who left Jeju were added through repeated analysis and interpretation. The validity of the analysis data was enhanced by integrating previous studies, literature, interviews, and transcrip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Jeju *Haenyeo* did not simply outsource for economic reasons but had the characteristic of continuously expanding the scope of its activities in conjunction with changes in the historical and social environment. Second, Jeju *Haenyeo* formed an organization in the process of outsourcing, and changes in the work environment and community awarenes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reason for leaving the region and the local decision to work. Third, by interpreting the influence of Jeju *Haenyeo* on the region after their departure, it was

possible to expand the meaning and scope of the use of Jeju *Haenyeo* culture as a product of combined joint production.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Jeju *Haenyeo*'s move shared diving skills and lifestyle centered on the community in addition to economic purposes. In addition, it was possible to examine the important nature of Jeju *Haenyeo* culture by confirming the meaning of social and environmental changes and pioneering work areas, and interpreting the impact on the area where Jeju *Haenyeo* settled or moved after leaving Jeju. As a result of this study, basic data will be used to form a network among Jeju *Haenyeo* who left Jeju and to prepare policies to preserve Jeju *Haenyeo* culture and strengthen the transmission system.

Key words: Jeju Haenyeo, haenyeo culture, Outsourced haenyeo, migration route, settlement, local community, social capital

《개 요》

제주 출가(出稼)해녀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졌으며 해녀노래나 입어분쟁 등 연구자들의 노력과 성과가 축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의 해녀들에 출가(出稼)의 의미를 확인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 출가(出稼) 해녀의 생애사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제주 출가(出稼)해녀의 이동 배경과 경로, 그리고 공동체성이 지닌 의미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자는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 신문기사, 구술자료, 면담자료 등 기초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출가(出稼)했던 제주 출신 해녀의 채록 자료 분석을 통해 선행 연구자료를 보충하고, 반복적인 분석과 해석의 과정을 거쳐 제주 출가(出稼)해녀의 이동 배경과 경로를 추가했다. 분석 자료는 선행연구와 문헌, 인터뷰, 녹취록 등을 통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타당성을 높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해녀는 단순히 경제적 이유로 출가(出稼)한 것이 아니라 역사·사회적 환경 변화와 맞물려 지속적으로 활동 범위를 확장하는 특징을 가졌다. 둘째 제주해녀는 출가(出稼) 과정에서 조직을 구성했으며, 작업환경과 지역 사회 인식 변화는 출가(出稼) 성격 변화와 출가 대상지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셋째 제주해녀들이 출향 후 지역에 미친 영향을 해석하여, 결합된 공동 제작의 산물로 제주해녀문화의 의미와 활용 범위를 확장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주 해녀의 출가가 경제적 목적 외에도 공동체를 중심으로 물질기술과 생활양식을 공유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출가(出稼) 배경이 된 사회 환경적 변화와 작업 영역 개척의 의미를 확인하고, 제주해녀들이 출향 후 지역에 미친 영향을 해석하여, 지리적 근접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라는 사회적 자본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주해녀문화의 중요한 본질을 살필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출가 지역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제주해녀문화 보존과 전승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가 활용될 것이다.

주요어: 제주해녀, 해녀문화, 출가(出稼)해녀, 이동경로, 정착, 지역공동체, 사회적 자본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제주해녀문화는 제주에서 바다를 터전으로 삼아 생업 활동을 했던 여성들의 삶을 응축하고 있다. 물질기술과 민속지식, 물옷과 물질도구, 해신당과 불턱, 신앙과 의례, 해녀 노래 등 유·무형적 자산들이 유기적으로 제주해녀문화를 이루고 있다. 이런 특성들과 더불어 제주해녀문화는 자연에 순응하는 지혜로 생명력을 유지하며 현재까지도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는 살아있는 유산(Living Heritage)이자 사람 유산(Human Heritage)이다. 이런 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아 제주해녀는 2015년 12월 국가중요어업유산(‘제주해녀어업’), 2016년에 11월에 ‘제주해녀문화’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제주해녀문화), 2017년 5월 국가무형문화재(해녀)로 지정됐다.

유네스코는 2003년 10월 17일 채택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¹⁾에서 제주해녀문화가 ‘공동체, 특히 토착 공동체·집단과 때로는 개인이 무형문화유산의 창출·보호·유지 및 재창조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문화적 다양성 및 인류의 창조성 제고에 기여함을 인정’했다.²⁾ 우리나라는 2003년 제정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에 가입한 이래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협약의 주요 내용을 이행해 오다 2015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협약과 국내법 간의 차이를 줄이고자 했다. 그 결과, 협약의 정의에 따라 무형유산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었고, 끊임없이 재창조되어 전승되는 무형문화유

1) 2003년 10월 17일 프랑스 파리 제 32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한 다자조약이며,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4월 20일 발효되었다.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존중의 보장,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 및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상호존중의 보장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 제고와 이를 위한 국제적 협력 및 원조 제공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다. 당사국이 지켜야 할 의무 사항으로는 무형문화유산 목록 작성, 보고서 제출 등이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현지 조사나 금전 지원, 보호기술 지원을 할 수 있다.

2)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약정보-제1775호<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https://www.law.go.kr/LSW/trtyInfoP.do?trtySeq=2133>)

산의 본질적 성격에 맞게 ‘전형(典型)’ 중심의 보호 원칙도 새로이 채택되었다. 무형문화재 가치의 본질을 여러 세대에 걸쳐서 전승되고 구현되어야 하는 고유한 기법 또는 변하지 말아야 하는 원형을 유지하되, 그 전승과 발전의 과정에서 변용되는 것까지 보전해야 할 범주에 포함한 것이라 할 수 있다.³⁾

이런 맥락에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제주해녀문화는 공동체와 집단이 자신들의 환경, 자연, 역사의 상호작용에 따라 끊임없이 재창조해 온 각종 지식과 기술, 공연예술, 문화적 표현을 아우른다. 해녀공동체 내에서 공유하는 집단적인 성격을 띠며, 구전 등을 통해 사람에서 사람, 생활 속에서 전승⁴⁾되어 온 것들이 모두 제주해녀문화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

국가중요어업유산 등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제주해녀에 대한 접근을 생계유지를 위한 전통 방식 어업 이상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시되었음에도, 지금까지 제주는 물론 제주해녀가 출가(出稼)해 영향을 미쳤던 지역들에서는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적 의의를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해양수산부 정책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하고 있는 어촌뉴딜 300사업⁵⁾ 중에도 해녀 테마 사업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상당수가 부산영도 해녀문화전시관⁶⁾ 해녀 판매장과 전시장을 겸한 복합 시설을 포함하거나 해녀학교·마을을 만드는 내용이다. 해삼 양식의 막대한 지출 요소인 타 시도 인건비 유출을 막기 위한 해녀·해남 직접 양성 목적으로 ‘해녀해남복합센터’를 조성⁷⁾하는

3) 김윤지,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국가무형문화재 가치의 재인식과 쟁점 모색」, 『문화와융합』 38권 3호, 2016, 201~226쪽.

4)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무형문화유산 소개. <https://heritage.unesco.or.kr/%EC%9C%A0%EC%82%B0%EC%86%8C%EA%B0%9C/%EB%AC%B4%ED%98%95%EB%AC%B8%ED%99%94%EC%9C%A0%EC%82%B0%EC%86%8C%EA%B0%9C/>

5) 어촌뉴딜 300은 해양수산부 정책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진행되는 어촌 환경 개선 사업이다. 이는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고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통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며 어항 및 항·포구를 중심으로 인접한 배후 어촌마을까지 포함한 통합개발로, 사회·문화·경제·환경적으로 어촌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어촌마을마다 독특한 매력과 특색을 지닌 해양레저형·국민휴양형·어촌문화형·수산특화형·재생기반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재조성된다.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은 2019년 7월 한 달간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 70개소에 대해 2차 전문가 현장자문을 실시했다. 2019년 3월 시행된 제1차 현장자문에서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초기 현장의 문제점 및 고충사항 등을 파악하고, 예비계획의 보완사항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2차 현장자문은 1차 현장자문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고충사항의 개선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세부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해 사업의 내실화와 성공적인 어촌·어항·어장 재생기반을 구축할 목적으로 시행됐다. 어촌어항사업관리시스템.

6) 권경훈, ‘부산 영도에 해녀 문화전시관 착공’, 한국일보, 2018.12.17. - 「한국일보」

7) 김대홍, “인건비 유출 막자…부안군, 해녀·해남 직접 양성 나선다”-송포항 '어촌뉴딜 300사업'관련

내용도 있는 등 해녀문화의 특수성과는 편차를 보인다. 또 일부 자치단체는 나잠 어업의 신규허가 신청,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추진 등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별 편차가 커 제주해녀 출가(出稼)지역에서 해녀 양성과 해녀문화 전승·보전 작업이 미진한 상황이다.

전국 해녀 현황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식 통계를 통해 해녀의 숫자를 파악하고 있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신고어업 중 나잠어업 인구로 분류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일부 시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나잠 어업인 신고 현황 자료는 자료 수집 시점이 다르고 전·현직 해녀 구분이나 연령·출신 지역 등 상세 정보가 없어 전국에 걸쳐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해녀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⁸⁾

이렇듯,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제주해녀문화가 아닌 해녀를 지역경제 자본(어업인)으로 본 정책 발굴과 수혜성 지원, 문화예술 및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려는 접근은 해녀 전승·보전 체계를 약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주뿐만 아니라 제주해녀 출가(出稼)지역에서 제주해녀문화의 무형문화유산적 의의를 탐색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바다에 맨몸으로 들어가서 작업하는 여성 나잠업자인 해녀는 제주를 비롯한 한국 전역에 분포되어 있다. 100여 년 전부터 제주해녀들이 경상도,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 등 육지부로 바깥물질을 나갔다가 그곳에 정착하면서 물질기술과 해녀노래를 비롯한 제주해녀문화가 현지 해녀에게 전승됐다. 한반도에 진출한 제주해녀들은 현지 어민과의 입어분쟁을 겪으며 현지 문화에 적응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 출신 해녀끼리는 제주어를 고수했으며 부녀회 등을 조직해 토착 공동체 문화를 이어갔다. 제주 출가(出稼)해녀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졌으며 해녀노래나 입어분쟁 등 연구자들의 노력과 성과가 축적⁹⁾되고 있다.

사업으로 추진 계획, 프레시안, 2021.12.7.-[프레시안]

8) 문옥희·이아승·서은정, 『전남지역 해녀 실태조사』, 재단법인 전남여성플라자, 2013. 2020년말 기준 경상남도 통영시의 나잠어업인(해녀)은 경상남도 자료에는 204명이지만 통영시의회가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추진하며 작성한 검토보고서에는 262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말 기준 신고어업 현황에서 전국 8,093명의 나잠어업인 중 제주는 '0'명으로 집계했다. 부산광역시 나잠어업인을 697명으로 파악했지만 부산광역시 통계연보에는 751명으로 나와 있다.

9) * 해녀의 역사적 기원과 전개

강대원, 『해녀연구』 개정판, 한진문화사, 1973.

강대원, 『濟州潛嫂 權益鬭爭史』, 도서출판 제주문화, 2001.

고광민·김영돈·한림화·강만보, 『제주의 해녀』, 제주도, 1996.
 김영돈 외 3인, 「南濟州郡 中文面 中文里 海女」, 『耽羅文化』 제5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1.
 김영돈, 「제주도해녀의 출가」, 『석주선교수회갑기념민속학논총』, 1971.
 김영돈, 『한국의 해녀』, 민속원, 1999.
 김영돈·고광민·한림화·강만보, 『제주의 해녀』, 제주도, 1996.
 김영돈·김범국·서경림, 「海女調査研究」, 『耽羅文化』 제5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6.
 제주도문화예술과, 『朝鮮總督府官報 中 濟州錄』, 濟州道, 1995.
 제주도문화체육과, 『제주의 민속2: 생업기술·공예기술』, 제주도, 1994.
 박찬식, 「제주 해녀의 역사적 고찰」, 『역사민속학』 제19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4.
 박찬식, 「海女鬪爭의 歷史的記憶」, 『濟州海女 : 항일운동, 문화유산, 해양 문명』, 제주해녀박물관 개관기념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위원회, 2006.
 유철인·이성훈 외, 『해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보고서』, 문화재청, 2016.
 제주도청편·홍성목역, 『濟州島勢要覽』濟州島の經濟 濟州市우당도서관, 1999.
 좌혜경·고창훈·권상철·김동윤 외 6인,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 민속원, 2006.
 좌혜경, 「제주 출가해녀의 현지실태와 대응」, 『영주어문』 10권, 2005, 51~88쪽.
 江口保孝, 「濟州島 出稼海女」, 『朝鮮量報』, 1915.

* 해녀 문화·인류학적 조명

『구술로 만나는 제주여성의 삶 그리고 역사』, 제주도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2004.
 김영돈 외, 『제주민속론』,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5.
 김주백, 「女人國巡禮, 濟州道海女」, 『삼천리』 제1호, 1939.
 김봉옥, 『제주통사』,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0.
 김영·양징자 저, 정광중·좌혜경 역, 『바다를 건넌 조선의 해녀들』, 도서출판 각, 2004.
 안미정, 『제주 잠수의 바다: 사회관계와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문화적 실천』, 제주대학교 출판부, 2010.
 안미정, 「오사카 재일(在日) 제주인 여성의 이주와 귀향」, 『耽羅文化』 第32號,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이능화, 『朝鮮女俗考』, 翰南書林, 1927.
 梶田一二·홍성목역, 『개정판 제주도의 지리적 연구』, 제주시우당도서관, 2005.
 田口祺意, 「濟州島 海女」, 『朝鮮』218號, 1933(昭和 8年), 홍성목 역, 『「제주도」의 옛 기록 -1878~1940-』, 제주시우당도서관, 1997.

* 해녀 노래 연구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 -여성노동요를 중심으로-』, 조약돌, 1983.
 변성구, 「해녀노래의 사실 유형 분석」, 현지김영돈박사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편, 『제주문화연구』,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3.
 변성구, 『제주민요의 현장론적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민속원, 2007.
 양영자, 「해녀노래 사실에 드러난 해녀의 경제활동과 해녀노래 전승방안」, 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7.
 양영자, 「해녀노래의 표현과 주제」, 『영주어문』 제6집, 영주어문학회 2003.
 양영자, 「해녀노래의 표현형식과 고찰」, 『민요논집』 제8집, 민요학회, 2004.
 이성훈, 『해녀의 삶과 그 노래』, 민속원, 2005.
 이성훈, 『해녀노젓는소리 연구』, 학교방, 2010.

* 해녀 어업 관행·수산 정책 접근

권미선, 「근현대 제주도 출가(出稼)해녀와 입어관행 분쟁」,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8.
 김수희, 「日帝時代 濟州海女の 海藻類 採取와 入漁」, 『濟州海女 : 항일운동, 문화유산, 해양문명』, 제주해녀박물관개관기념국제학술회의 자료집,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위원회, 2006.
 김수희, 「일제시대 남해안어장에서 제주해녀의 어장이용과 그 갈등 양상」, 『지역과 역사』 제21호, 부경역사연구소, 2007.
 안미정, 「해방 전후 제주잠수(해녀)들의 부산 정착의 사회사적 고찰 : 지역 간 경계를 넘은 이동과

문화재청의 『해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가치 조사 보고서』¹⁰⁾를 보면 제주해녀는 ‘우리나라 해녀의 전통문화’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의 해녀들에 대해서는 제주해녀의 영향을 받았다는 언급이 있을 뿐이다. 제주해녀문화의 생업을 통한 문화 전파·확장의 이해를 위해서는 제주 해녀들의 출가(出稼) 배경부터 알아야 하기에 본 논문에서 제주해녀 출가(出稼)의 배경과 이동 경로, 제주해녀 출가(出稼)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제주출가 해녀의 생애사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제주해녀의 출가의 의미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제주해녀의 출가의 배경과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둘째, 제주해녀 출가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갈등을 중심으로, 『耽羅文化』 제37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안미정, 「해안마을 여성의 공동어로와 자원에 대한 권리 : 제주도 잠수(潛嫂)의 사례에서」,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10권 2호, 역사문화학회, 2007.
 안병대, 「李朝時代の 海運業-그 實體와 日本 海運業의 侵入-」, 『朝鮮社會の構造七 日本帝國主義』, 龍溪書舍, 1977.
 오홍석, 「帆船 航海時代의 濟·京 海路」, 『제주도연구』 제1집, 제주학회, 1984.
 朝鮮總督府, 『漁業曆』, 1916.
 朝鮮總督府農商工部編, 『韓國水產誌』, 제3집, 朝鮮總督府農商工部, 1910.
 朝鮮海水產組合, 『朝鮮海水產組合月報』 20호, 1910.
 朝鮮海通漁組合聯合會, 『朝鮮海通漁組合聯合會報』 4호, 1903.
 吉田敬市, 『朝鮮水產開發史』, 朝水會, 1954.

* 제주외 지역 해녀 연구

김정하·이종현, 「영도 해녀에 대한 현장론적 연구」, 『人文社會科學論業』 16호, 2008, 111~130쪽.
 오선화, 「죽변지역 이주잠녀의 사회·경제적 연망과 연대 양상」, 『한국민속학보』 제9호, 한국민속학회, 1998.
 오선화, 「竹邊地域 移住潛女の 適應過程 研究」, 안동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8.
 문옥희·이아승·서은정, 『전남지역 해녀실태조사』, 재단법인 전남여성플라자, 2013.
 유형숙, 「울산 여성 어업인(해녀)들의 변천사」, 『울산학연구총론』, 울산발전연구원 부설 울산학연구센터, 2014.
 신형석·안미정·좌혜경 외, 『울산 역사 속의 제주민 -두모악·해녀 울산에 오다-』, 울산 대곡박물관 특별전 도록, 2016.
 『영덕 해녀 구슬생애사: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나는 해녀 할 거다』, 영덕군·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20.
 김여나·황현일, 『나는 해녀다-기장군 1세대 해녀 자서전』, 기장군, 도서출판 참놀, 2022.
 10) 유철안·이성훈 외, 『해녀'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보고서』, 문화재청, 2016.

출가해녀들의 경험과 독특한 맥락을 연구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나는 출가 배경이 된 사회 환경적 변화와 생업과 연관한 어장 개척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15세기 후반 무렵은 흉년과 재해, 과중한 부역과 공물 부담, 왜구 출몰 등으로 살기 힘들어 제주를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잠수기선의 진입과 수탈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피하고 당시 환금성이 좋았던 천초 채취로 돈을 벌기 위한 선택을 했다. 해방 이후 4·3과 6·25 한국전쟁을 거치며 가난을 피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밀항까지 감행하며 국외로 나가기도 했다. 1960년대 들어서는 본격적인 경제 개발 정책 추진으로 전통적인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빠르게 바뀌면서 해산물 채취 시기에 맞춰 해녀 노동력을 필요로 한 지역으로 출가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다른 하나는 제주해녀들이 출가 또는 출향한 지역에 미친 영향을 해석하여, 결합된 공동 제작의 산물로 제주해녀문화를 확장한다는 점이다. 문화재청이 제주해녀를 특정하지 않고 한반도 전역의 ‘해녀’를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로 등재한 것은 그들의 존재가 어느 한 문화의 독자적인 발명품이나 전유물이 아니라 제주를 중심으로 바다를 타고 전파된 공생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강조¹¹⁾한 결과다. 문화재청은 ‘해녀’는 한국의 전통적 해양문화와 어로문화를 대표해 시대적 변천을 넘어 오늘까지 그 명맥을 이어온 산 증인으로, 단순히 ‘물질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해녀와 관련된 기술, 지식, 의례 등의 문화를 통합한 의미라고 밝혔다. 또 해녀가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랫동안 한반도에 전승되었다는 점, 최소한의 도구만으로 바닷속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기술이 독특하다는 점, 물질경험에서 축적된 생태환경에 대한 민속지식이 상당하다는 점, 배려와 협업의 공동체 문화 양식이 들어있다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¹²⁾

이는 앞으로 해녀 연구나 전승·보전 정책 개발에 있어 제주라는 대표성도 중요하지만, 제주를 구심점으로 동·서·남해안 그리고 바다 건너 일본과 중국 등의

11) 유철인·이성훈 외, 『해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보고서』, 문화재청, 2016.

12) 전통 어업의 명맥 잇는 ‘해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문화재청 보도자료 2017.5.1. https://www.cha.go.kr/newsBbz/selectNewsBbzView.do?newsItemId=155700255§ionId=b_sec_1&pageIndex=1&pageUnit=10&strWhere=title&strValue=%ed%95%b4%eb%85%80&sdate=&edate=&category=&mn=NS_01_02

특성과 환경이 수십 수백 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보태지고 결합된 공동 제작의 산물로 그 가치를 키워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해녀 인구 고령화 등 소멸 위기와 자원 고갈에 대응한 해녀 출가지(出稼地) 지자체들과의 공동의 관리 정책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간 연대를 위한 기본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출가 해녀의 의미를 확장해 출가 지역간 네트워크를 유도하고 제주해녀문화 보존과 전승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용어 정리

제주해녀가 거점이 아닌 지역으로 이동해 물질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을 출가와 출향(出鄕), 바깥물질 등으로 표현한다. ‘출가’는 일정한 기간 다른 곳에 가서 돈 벌이를 한다는 의미가 있다. 여기에는 ‘다시 돌아온’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어 고향을 떠난다는 ‘출향(出鄕)’과는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집을 떠나서 날씨가 따뜻한 4월부터 8월까지 제주해녀가 육지로 물질을 떠나는 것’¹³⁾으로 보기도 한다. ‘출가’는 근대기에 와서 발생한 현상으로 이를 대체할 전통적인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¹⁴⁾

출향(出鄕)해녀는 출가한 지역에 정착한 경우를 아우른다. 출향해녀는 현지에 정착해 지선(지역)해녀나 지역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물질이 아닌 경제적 활동으로 생계를 영위하기도 했다.

바깥물질에서 ‘물질’은 해녀가 바닷속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을 일컫는 제주방언¹⁵⁾으로, 잡녀질, 잡네질이라고도 한다. ‘물질하러간다’, ‘물질작업한다’ 등은 해녀들이 주로 사용하는 용어다. 학자들에 따라 민속어¹⁶⁾, 민속용어¹⁷⁾, 민족생

13) 오선화, 「竹邊地域 移住潛女の 適應過程 研究」, 안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8, 3쪽.

14) 권미선, 「근현대 제주도 출가(出稼)해녀와 입어관행 분쟁」,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8, 8쪽.

15) 제주어사전 조사·집필위원회, 『개정 제주어사전』, 제주특별자치도, 2009, 392쪽.

활어¹⁸⁾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해녀들이 주로 사용하고 그들 안에서 통용되는 용어로 다른 범주를 두기는 어렵다. 바깥물질은 제주도라는 섬 바깥으로 나가는 것으로 ‘출가물질’, ‘베갯물질’¹⁹⁾, ‘원정물질’, ‘육지물질’, ‘물질 나간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정작 해녀들은 다른 지역에서 물질하는 것을 ‘육지물질 허래 간’²⁰⁾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출가와 출향(出鄕), 바깥물질 등은 사용자와 상황에 따라 그 의미와 범위가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립국어원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에 걸쳐 기층 생활어 및 직업어²¹⁾를 조사·발굴하는 민족생활어 조사 과정에서 정의한 제주해녀들이 좀 더 나은 수익을 위해 돈벌이하러 나간다는 의미의 ‘출가’를 사용하고자 한다. 특히 출가는 1~2명이나 소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적게는 10~15명 또는 많게는 20~30명이 집단으로 떠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이는 모집형 출가와 독립형 출가로 구분²²⁾할 수 있다. 모집형 출가는 중간에 객주(선두, 전주, 인솔자)가

-
- 16) 조선어학회가 조선말 큰사전(1947)을 편찬하기 위해 사전(事前) 작업으로 1936년에 조선어학회가 간행한 ‘사정(査定)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의 머리말에 한글학자 최현배가 사정위원(査定委員) 한 번, 수정위원(修正委員) 세 번, 모두 네 번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에 영문학자 정인섭이 사정위원, 민족학자 송석하가 전문어 중에서 민속어를 주해(註解)한 사실도 적혀 있다. 민간 생활과 관계된 생활 풍속이나 습관, 신앙, 기술, 전승 문화 등에 쓰이는 말. 『고려대한국어대사전』, 2009.
- 17) 고광민은 자신의 저서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대원사·2004)에서 해녀·농업인 등 사회에서 사용 주체들이 사용하는 말을 민속용어로 구분해 사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물질 등 해녀 용어는 다른 사회·지역에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 주체들은 이해하는 말로 간단히 ‘해녀 사회(의) 용어’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2022년 11월 23일 인터뷰).
- 18) 국립국어원. 국어기본법 제2조는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쓰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국어의 보전과 계승은 국가와 국민의 정체성 확립 및 문화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 등을 거치면서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었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직업들이 없어지거나 생겨났다. 이 과정에서 고유한 생활어나 전통 직업어의 상당수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노력은 미미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국립국어원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에 걸쳐 기층 생활어 및 직업어를 조사·발굴하는 민족 생활어 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인의 생활 현장 곳곳에서 쓰이는 말의 모습을 관찰·기록하여, 삶과 문화를 표현하고 있는 다양한 어휘를 발굴하고 전승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다. 이렇게 조사된 어휘들은 “표준국어대사전”을 보완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분야별로 자료를 축적하여 “민족 생활어사전” 편찬 작업에도 이용될 계획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구술 자료와 음성 분절 파일 및 전사 파일, 그리고 멀티미디어(사진, 동영상) 자료를 축적하여 국어문화체험관 설립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사업에 착수한 첫 해인 2007년에는 전국 6개 권역 26개 지점에서 34개 분야, 71명의 제보자를 대상으로 조사 작업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10권의 보고서로 발간했다.
- 19) ‘베갯물질’은 바깥물질을 뜻하고, 물질나가는 곳이 한반도인 경우엔 ‘육지물질’이라는 말을 쓴다. 제주인들은 바다건너 한반도를 흔히 육지라고 한다. 김영돈·고광민·한림화·강만보, 『제주의 해녀』, 제주도, 1996, 218쪽.
- 20) 한림화, 「해양문명사 속의 제주해녀」,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 민속원, 2006, 92~93쪽.
- 21) 김영돈, 「해녀」, 『제주민속론』,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5, 39~51쪽
- 22) 이선애, 『海を越える濟州島の海女-海の資源をめぐる女のたたかい-』, 明石書店, 2001.

제주도 내의 해녀들을 모아 이동하는 형태이고, 독립형 출가는 제주도 내의 특정 모집원(주로 제주해녀의 남편이나 친척)이 해녀들을 모집해 이동하는 형태다. 1962년부터 1973년까지 약 10여년에 걸친 제주해녀의 출가물질의 통계상 변화를 볼 때 1960~1970년대로 접어들며 제주해녀들의 출가가 규모 면에서 상당히 위축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등 시대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생애사 연구

생애사 연구는 양적 연구방법론에 맞서 1930년대 인류학, 사회학 전통에서 인간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시작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심화되어 심리학, 역사학, 문학, 여성학, 가족 연구, 정치적 분야에서도 생애사 연구가 활용되고 있다. 생애사 연구는 개인적인 창문을 통해 공적인 맥락을 발견하여 이야기로 기술하는 연구방법²³⁾이다. 즉 과학적 패러다임에 기초한 전통적 인식론 차원의 지식 및 객관성을 벗어나, 개인적 경험을 내러티브로 드러냄으로써 경험적 연구를 확장시킨 것이다. 생애사 연구의 방법론적 특징은 시간적 맥락성, 내러티브, 관계 및 상호작용성, 인간화로 집약하여 말할 수 있다.

제주해녀 개인의 삶은 시대상과 사회환경적 변화를 함축하고 있어 구술 채록을 통한 기록과 역사적 사실을 연계한 흐름 중심의 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맥락들과 연결시키면서 어떻게 해녀의 특정한 삶이 구성되는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생애사 연구방법 중 연대기적 분석과 공간 및 소속 집단 중심 분석 방법²⁴⁾을 적용해 제주해녀의 출가 의미와 영향을 살폈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첫째로 공인된 평가기준, 선행연구, 기존자료를 확인하여 제주해녀·해녀문화의

23) 김영천·한광웅, 「질적 연구 방법으로 생애사 연구의 성격과 의의」, 『교육문화연구』 18권, 2012, 5~43쪽 정리.

24) 민성은·최성호·김영천, 「생애사 연구의 개념적 모형에 대한 이론적 탐색」, 『교육문화연구』 23권, 2017, 465~500쪽 정리.

의미와 가치를 확인하였다. 우선 제주해녀의 기본적 이해 작업을 토대로 국가중요어업유산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국가지정무형문화재 등 제주해녀·해녀문화의 가치에 대한 공인된 평가 기준을 살피고,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해녀 출가의 용어적 기원과 개념을 검토하였다.

둘째, 기존 문헌, 선행연구와 신문기사, 면담자료를 활용하여 해녀의 출가 배경과 의미를 확인하였다.

활용 문헌은 경상남도의 제주도해녀입어문제경과(1920~1935년)와 해녀어업조합에 관련 자료(1920~1930년대), 제주도 당국의 출가 해녀 보호 대책에 따른 문서(1960~1980년대)와 「제주의 민속」(1994) 이다.

1960년대부터 해녀연구를 시작한 향토사학자 강대원의 『해녀연구』(1970), 김영돈의 『한국의 해녀』(1999), 이성훈의 「해녀노젓는소리 연구」(숭실대학교 박사논문, 2007), 김수희의 「조선시대 잠수어민의 활동 양상 : 제주 잠수어민을 중심으로」(『耽羅文化』 제33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좌혜경의 「제주 출가 해녀의 현지실태와 대응」(『영주어문』 제10집, 영주어문학회, 2005), 진관훈의 『근대 제주의 경제 변동』(2006) 등의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또한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1920~1930년대 동아일보·조선일보의 신문기사와 1950년대 이후 제남신문·제주신보(1960년대 제주신문으로 변경)·제민일보의 ‘해녀(海女)’기획²⁵⁾ 기사를 확인하였다.

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 초기까지의 연구사례는 국내·외 출가물질을 한 해녀의 규모와 지역 등에 대한 보고가 주를 이루고 있어, 1950~1970년대 출가물질을 나가 현지에 정착해 사는 제주 출신 해녀들의 구술 자료를 기존 연구자료와 비교하였다. 1970년대 중반 이후 해녀 출가 연구는 출가지(出稼地) 현지 조사를 통해 진행한 2·3세대 해녀 인터뷰와 출가지(出稼地) 조사 자료를 참고하였다.

제주해녀의 출가가 가장 활발했던 부산 지역의 연구자들은 영도구와 기장군을

25) 제민일보는 2005년 창간 15주년에 맞춰 대기획 ‘제주해녀(잠녀)’를 기획했다. 이후 2022년까지 문헌 및 연구자료 수집에서 출발해 제주지역 100여개 어촌계를 도는 현장 조사와 출가물질 경험이 있는 해녀들의 구술 채록 및 해녀문화목록 작성 등 장기 기획을 진행했다. 제주특별자치도·(사)세계문화유산보존사업회와 공동으로 『제주해녀문화의 이해』(2013), 『통사로 살피는 제주해녀』(2014), 『제주해녀-역사의 고리를 잇다』(2015), 『제주해녀문화 가치를 읽다』(2016), 『제주해녀 공동체를 엿보다』(2017), 『제주해녀문화 꽃 피우다』(2018), 『제주해녀를 향유하다』(2019), 『제주해녀, 문화분권의 중심에 서다』(2020) 등을 제작했다.

중심으로 한 제주 출신 해녀와 현지 해녀에 대한 연구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료 수집을 하였다. 독도재단을 비롯해 지역학 또는 지역 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도 살폈다.²⁶⁾

문화재청이 해녀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해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진행한 『해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보고서』²⁷⁾에서는 조사 시점 이전까지 출가해녀의 이동 경로 변화와 직업관, 해녀굿 등 민속 전승, 잠수회 등 공동체 구성 양상을 살폈다. 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물질을 다녀온 고 강예길 해녀의 육성 자료와 생애사 분석을 통해 국외 출가물질 경로를 살펴보았다.

이 논문은 질적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다음과 같은 준거를 적용하였다. 첫째, 생애사 연구를 위한 내러티브, 인간화, 관계성, 상호작용성 등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질적 연구의 기간과 자료 수집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지역은 부산 영도로 한정하였다. 둘째, 분석 자료는 선행연구와 문헌, 인터뷰, 녹취록 등을 통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셋째, 연구 결과가 연구 참여자의 생애를 열거한 내러티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맥락과 해녀 문화 가치 제고 의미와 연결 지으려 노력하였다.

26) 유형숙, 「울산 여성어업인(해녀)들의 변천사」, 『울산학연구논총』, 울산발전연구원 부설 울산학연구센터, 2014. 신형석·안미정·좌혜경 외, 『울산 역사 속의 제주민 -두모악·해녀 울산에 오다-』, 울산 대곡박물관 특별전 도록, 울산 대곡박물관, 2016. 『영덕 해녀 구술생애사: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나는 해녀 할 거다』, 영덕군·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20. 김여나·황현일, 『나는 해녀다-기장군 1세대 해녀 자서전』, 기장군, 2022.

27) 유철인·이성훈 외, 『해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보고서』, 문화재청, 2016.

II. 제주해녀와 제주해녀문화

1. 제주해녀와 제주해녀문화의 이해

제주해녀는 해양을 기반으로 별도의 사회조직을 이룬 여성중심 집단이다. 기존 문헌과 자료를 통해 대표성, 차별성, 사회성, 공동체문화 측면에서 제주해녀와 해녀문화를 살펴보았다.

1) 대표성

제주해녀는 ‘어머니’, ‘바다’와 연결하면서 강한 생활력과 억척스러움 등 전사(戰士)이자 지역경제를 지지하는 산업 역군(役軍)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해녀문화는 물질기술 및 민속지식과 공동체 관습뿐만 아니라 물질도구, 해녀노래, 신앙 및 의례 등을 포함하고 있는 종합 어로문화이자 여성문화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델이다.

제주해녀의 물질기술과 물질경험에서 축적된 생태환경에 대한 민속지식은 문화재보호법 상 ‘한의학,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 지식’이라는 무형문화재 범주에 속한다. 숨을 참고 깊이 10~15미터나 되는 물속에서 1분 이상 작업하는 물질은 물속에서 자신의 몸이 적당한 수압에 견뎌내야 하고, 남은 산소의 양을 감지하고 수면까지의 거리를 가늠하여 잠수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암초를 비롯한 바닷속 지형과 채취하려는 해산물의 서식처에 관한 지식은 나잠어업의 어로 활동에서 필수적이다. 또한, 물질작업은 바람과 물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다. 물질은 이러한 생태환경에 대한 민속지식과 자신의 몸의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기술을 요구한다. 오랜 경험으로 해녀의 몸과 머리에 각인된 물질기술과 민속지식의 가치는 민속학은 물론 생태학적으로도 활용가치가 높다.

제주해녀문화의 특징 중 하나는 ‘해녀’가 보유하고 있는 공동체 관습의 가치다. 전국적으로 각 지역의 바다 생태환경에 따라 입어관행과 해녀공동체의 성격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물질작업의 본질은 협동이다. 동료는 경쟁자이면서도 작업 또는 작업 전후 발생할지 모를 위험 상황에 상호 예방하는 보호막 역할을 하므로 신뢰와 배려가 중요하다. 출가물질 과정에서 10~15명으로 동아리를 만들고 동아리를 대표할 반장 해녀를 뒤 객주와의 갈등이나 작업 환경 확보 등의 역할을 맡겼다.²⁸⁾ 이는 물질작업의 협업뿐만 아니라 생활연대도 강한 제주해녀들은 지역마다 잠수회(해녀회), 영어조합 해녀회, 해녀협동조합, 나잠협회(나잠부녀회) 등 여러 형태의 해녀공동체를 만들기도 한다. 제주해녀들은 물질 기량에 따라 상군(上軍), 중군(中軍), 하군(下軍)의 세 집단으로 나누는데 이는 해녀라는 직업이 고도의 훈련과 끊임없는 교육을 요구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제주해녀문화는 물질도구, 해녀노래, 신앙 및 의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전국 각지 해녀들은 나름의 민속신앙을 믿고 실천하고 있으나, 해녀공동체의 의례(잠수굿)는 현재 제주지역에서만 행해지고 있다. 해녀들이 돛배의 노를 저으며 부르던 해녀노래는 제주해녀의 출가와 함께 한반도에 전파되었다. 현재 해녀노래는 노동요의 기능은 상실했지만 사실에 물질의 노동 현장, 여성공동체의 삶, 고난과 극복의 삶 등이 잘 드러나 있어 당시 제주해녀들의 작업환경과 출가 등 이동 경로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²⁹⁾

제주해녀의 물질작업은 자연친화적인 채집기술로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물속에서 숨을 참을 수 있는 한계 때문에 많이 채취하겠다는 개인적인 욕심은 줄어든다. 해녀들은 물질을 하는 바닷속을 ‘바다밭’으로 인식하여, 1년에 두세 번 해안가와 조간대에서 공동으로 청소를 하고 잡초를 제거하는 활동을 통해 관리한다.

문화 정체성이란 특정 집단, 또는 민족이 상당 기간에 걸쳐서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여 그 집단과 민족을 고유하게 특

28) 제주도문화체육과, 『제주의 민속2: 생업기술·공예기술』, 제주도, 1994, 225쪽.

배에는 船主 밖에 선원 두셋이 함께 탄다. 돛배의 船主는 대체로 客主가 겸했다. 客主와의 이해관계는 늘 팽팽하다. 客主와의 이해관계 조절과 필요한 연락을 위하여 해녀 동아리는 대체로 반장을 둔다.

29) 이성훈, 「해녀노랫소리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7, 121~134쪽 정리.

정것는 요소로 자리 잡은 것을 가리킨다. 상당 기간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는 고유한 실체로 자기에 대한 경험을 정체성의 정의로 살필 때 제주해녀문화는 충분히 의미 있다. 제주해녀는 바다라는 ‘밭’을 관리하고 그 기술을 전승하며, 숙련도를 높이고 자체 규약을 성실히 따른다. 이 모든 것들은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우러난다. 제주해녀는 한반도 고유의 인문·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그들이 지키고 의지하는 바다는 사면이 바다인 제주에 있어 생태계 보전의 핵심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주해녀는 시대 변화에 적응하며 지금껏 공동체 정신의 명맥을 이어온 존재이다. 해녀는 한국의 전통적인 여성 직업인으로 채취기술과 생태 민속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제주해녀문화는 여성공동체의 독특한 문화를 보여주기 위해 한국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이 있다.

2) 차별성

제주해녀는 기계 장치 없이 맨몸과 오로지 자신의 의지에 의한 호흡조절로 바다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여성³⁰⁾으로 해양을 기반으로 별도의 사회조직을 이뤄온 여성 중심 집단을 지칭한다.

해녀로 통칭하는 여성나잠업자는 삼면이 바다인 한국의 연안 및 도서지방에서 나타나는 한국의 해양어로이자 여성어로로, 지역에서 자생한 해녀도 있지만 제주해녀가 100여 년 전부터 경상도,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 등 육지부로 출가물질을 나가거나 그곳에 정착하면서 물질기술과 해녀노래를 비롯한 제주해녀문화를 현지 지방해녀에게 전승했다고 보고 있다.

문화재청의 『해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보고서』(2016)는 제주해녀에 대해 ‘제주의 전통문화’를 대표한다고 규정했다. 제주 외 지역의 경우 공동체

30) 제주해녀박물관 ‘해녀소개’. <https://www.jeu.go.kr/haenyeo/haenyeo/haenyeo.htm>.

‘기계 장치 없이 맨몸과 오로지 자신의 의지에 의한 호흡조절로 바다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여성으로 이들이 하는 일을 ‘물질’이라 부릅니다. 해녀들은 바다밭을 단순 채취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끊임없이 가꾸어 공존하는 방식을 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획득한 지혜를 세대에 걸쳐 전승해왔다. 또한 해녀들은 바다 생태환경에 적응하여 물질 기술과 해양 지식을 축적하였고, 수산물의 채취를 통하여 가정경제의 주체적 역할을 한 여성 생태주의자(Eco-Feminist)들이라 할 수 있다. 반농반어의 전통 생업과 강력한 여성공동체를 형성하여 남성과 더불어 사회경제와 가정경제의 주체적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양성평등’의 한 모범이기도 하다. 또한 제주 해녀는 19세기 말부터 국내는 물론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국외로 진출하여 제주 경제영역을 확대한 개척자이다.’

문화 전승보다는 직업에 대한 애착이 강하게 드러나는 등 출가 후 지역 정착 과정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봤다³¹⁾.

물질은 자연적 생태주기를 이용한 한국의 전통적 어로법의 하나로서 마을어장을 공유하고 공동분배하는 관습이 잘 드러나는 생업기술이다. 다시 말해, 상호부조와 노동협업의 관습은 물질작업의 특성으로 해녀문화를 통해 지속되고 있다. 해녀가 지역 문화를 대표하는 경향은 제주가 가장 강하다. 제주해녀는 공동체적 문화, 집단적 협업의 문화, 공유자원(마을어장)의 이용 관습, 전통적 신앙, 민요와 전설 등 많은 부분에서 제주문화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해녀문화 가운데 생산공동체의 관습은 바다어장의 관리와 입어 관행, 해녀공동체 내부의 서열화 및 비공식적 교육에서 나타난다. 제주도는 어촌계원이 되어야만 해녀가 될 수 있으며 (물질)과 관련하여 해녀회를 중심으로 각종 해산물의 채취기, 잠수작업 시간, 잡을 수 있는 해산물의 크기를 규정하고 있다. 제주 외 지역 대부분에서는 연중 작업을 하는 형태를 보인다. 남해안(경남 통영과 거제)과 서남해안권(전남 도서지역 및 충남 안흥지역)의 일부 지역은 어업권을 확보한 해녀배 선주가 해녀와 계약을 맺고 작업시간을 관리하고 있다.

1962년 수산업협동조합 개정 전만 해도 지역 출신 해녀와 제주 출가해녀에 대한 제도적 차별은 없었다. 당시에는 모두 입어료만 내면 작업이 가능했고, 제주해녀들은 출가 과정에서 10여명 정도가 동아리 형태로 연대해 선주와 이해관계를 조율했다.³²⁾

개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으로 어촌계가 설립되고, 공동어장을 어촌계의 소유로 명시했다. 입어권³³⁾이 적용되고, 해산물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어촌계에서 제주해녀의 출가를 통제했다. 제주 출가해녀를 대상으로 지역 어촌계의 부당한 횡포가 심해지자 부산제주도민회는 1963년 12월 도민회 임원진과 지역 유력

31) 유철인·이성훈 외, 『해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보고서』, 문화재청, 2016.

‘제주해녀는 제주의 전통문화를 대표하고 있으며, 동남해안권의 해녀는 해녀 직업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애착심을 갖고 있으며 공동체 의식 또한 강한 편이다. 그러나 서남 해안권의 해녀 중 어촌계나 해녀단체가 없는 지역에서는 공동체의 정체성은 희박하여, 해녀문화를 보유한 집단이라기보다는 나잡어업을 행사하는 직업인으로 존재하고 있다’

32) 제주도문화체육과, 위의 책, 225쪽.

33) 입어권이란 공동어장 내에서 수산 동·식물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로 해녀 어장의 관습법상의 어장 이용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법률 용어다. 당시 정부는 해조류 증산 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 총독부의 해녀 어업 정책을 답습해 해녀 어장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입어권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흑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 수산청장의 재정(裁定)을 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인사들로 구성된 ‘잠수권의 옹호회’를 조직하기도 했다.³⁴⁾

마을 어장을 사용하기 위한 권리는 기본적으로 마을어촌계에 있어 어촌계가 이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 해녀들의 어로 활동이 달라지는 특성을 보인다. 마을 공동체 어장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 해녀가 어촌계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해산물 등을 채취할 수 있다. 제주해녀는 어촌계 내에 잠녀회나 해녀회 등의 독자적인 조직이 있어 자체 규약에 따른 어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그 형태가 드물게 나타난다. 동·남해안 어촌계 중 일부에서 소규모 나잠회를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제주 출신 해녀들을 주축으로 조직을 만든 것은 1997년 울산광역시 나잠부녀회가 최초다. 설립 당시에는 상조회 성격으로 구성했지만 2002년 제주 출신으로 울산에 정착한 해녀들과 제주해녀에게서 물질을 배운 지역 해녀를 포함한 ‘울산 나잠회’로 사단법인화했다. 해녀 권익 보호를 위한 사단법인화를 주도한 이가 제주 출신 김이나자 해녀(80)다. 김이나자 해녀는 당시 지역내 나잠 180여명과 함께 ‘나잠업은 수산물을 채취해 수출하는 등 국가이익에 일익을 담당하는 전문직 종임에도 불구하고 해녀들은 국가에서 공인받지 못한 기능인으로 대우받고 있다. 이에 따라 특수여성인 나잠들의 권익을 스스로 보호하고 탈의실 겸 휴게실 건립 등 기본적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사단법인을 설립키로 했다’는 내용의 사단법인 설립허가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1999년 구성된 (사)통영나잠제주부녀회는 어업권과 관계없이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제주 출신 해녀들을 주축으로 조직됐다. 통영은 어업권을 가진 해녀배 선주와 해녀가 계약을 맺고 물질을 하는 형태로, 별도의 조직이 없었지만, 당시 제주에서 출가해 작업하던 해녀 한 명이 바다에서 작업 중 목숨을 잃는 사고를 계기로 자생적으로 결성됐다. 통영 미수동 지역을 중심으로 250여 명의 해녀가 모여 지금까지 회원 관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제주의 해녀회처럼 자체 규약을 정해 지키는 형태가 아니라 공동 작업 환경(선주와 작업 계약 및 동일 작업 선박) 지역 출신 동료들과 친목을 도모하는 부녀회 성격이 강하다.³⁵⁾ 거제지역의 나잠어업인

34) 김정하·이종현, 「영도 해녀’에 대한 현장론적 연구」, 『人文社會科學論業』 16호, 2008, 111~130쪽.

35) 고미, 해녀기획 한바당 해녀 이어도사나 중 ‘내 바다’없는 해녀…지역살이가 만든 특별한 연대 강옥란 (사)통영나잠제주부녀회장 인터뷰, 제민일보, 2021.11.1.-[제민일보]

들을 대표하는 (새)거제시나잠협회가 2007년 2월 결성되었는데 이후 2014년 거제시에 거주하는 제주 출신 해녀들이 별도의 (새)한라잠수나잠부녀회를 설립하기도 했다.

출가지(出稼地) 해녀 구성에서 제주 출신 비율이 높을수록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어업 문화 전승이 일정 부분 이뤄졌다³⁶⁾고 해석할 수 있지만, 제주와 같은 정기적인 공동 마을어장 관리나 해녀굿 등 민속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 공동체적 문화 전승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바다 생업과 관련 무속의례로는 영등굿, 잠수굿, 풍어굿 등을 들 수 있는데 그 형태도 거의 제주에만 남아있다. 의례는 주체에 따라서 수산업협동조합이 벌이는 풍어굿과 각 마을 생업공동체가 벌이는 굿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해녀들의 무속의례로는 영등굿과 잠수굿을 들 수 있다. 해녀들은 잠수굿뿐만 아니라 바다 작업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마을에 있는 해신당을 방문하는 경우도 많다. 반면 한반도 지역에서 해녀들이 중심이 되어 잠수굿을 지내는 곳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³⁷⁾ 확인된 내용을 보면 부산 기장군 대변리에서는 해신제인 바다용왕굿을, 사하구 다대동과 해운대구 송정동에서는 어촌계 주관으로 풍어제를 지낸다. 해녀들은 어촌계 소속으로 용왕굿이나 풍어제에 참여하고 있다. 경북 울진군 죽변에서는 어촌계 주관으로 음력 정월 대보름에 성황당제를 지낸다.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에서는 음력 정월 대보름과 9월 9일에 해신당에서 마을제를 지내는데 이때 해녀들이 개별로 용왕에게 지드림하는 기원행위가 남아있다.

서남해안에도 마을 단위의 풍어제가 있는데, 어부와 해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제주와 형식이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 용왕을 주신으로 삼아 풍요를 기원하는 의례이고, 매년 초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3년에 한 번 별신굿³⁸⁾ 형태로 하는 경우도 있다. 해녀와 관련해서는 안전과 관련된 개인 의례들이

36) 유철인·이성훈 외, 『해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보고서』, 문화재청, 2016, 46~48쪽.

37) 유철인·이성훈 외, 위의 책, 78쪽.

3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남해안별신굿(南海岸別神—). 1987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경상남도 통영시와 거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한산도·사랑도·갈도 등의 남해안지역에서 행하여지는 마을 굿이다. 어민들의 풍어(豐漁)와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제의로, 보통 3년에 한번씩 굿을 벌인다. 별신굿의 '별신'은 현지에서 '별손·벨손·벨신' 등으로도 불리는데, 이 굿은 개(바다)를 먹이는 굿이라고 하고 있다. 제의는 주로 음력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 사이에 행하여진다. 굿당은 보통 마을회관에 꾸미며, 제물은 메·떡·삼색 과일·생선찜·생선전·생선포·나물 등으로 동해안 지역에 비하여 간단히 차리는 편이나 각 가정에서 한 상씩 차려와 문밖에 늘어놓는 거래상(退鬼床)을 올린다.

행해졌거나 행해졌다는 국립무형유산원의 조사 자료가 남아있다.³⁹⁾ 주요 내용으로 전남 완도군 청산도에는 ‘용왕 간다’고 표현하는 개인 의례가 있는데 이는 정월 초하루 아침에 1년 동안의 무탈을 용왕에게 기원하는 의례로 정월 초하루 아침에 선창에서 미리 장만한 과일 나물 등 음식을 바다에 뿌리면서 비손하는 형식으로 치러진다. 정월 초하루 말고도 정초 처음 개날이나 물질을 다니다가 꺼림직한 것이 있거나 어획량이 줄어들 경우에는 수시로 행한다고 한다. 신지도에서도 첫 물질은 물론 물질을 나갈 때마다 용왕제를 지냈지만 2000년대 들어 중단됐다. 완도군 금일읍 동백리에서는 해녀들이 선달 그믐 개별적으로 용왕제를 지낸다. 조상에게 먼저 차례상을 올리고 난 뒤 별도의 상을 준비해 선창이나 해안가에서 간단하게 축원이나 절을 하고 음식을 퇴송하는 형식으로 치른다. 전남 고흥군 도양읍에서는 물질을 할 때 한지에 쌀을 싸서 바다에 던지는 ‘용왕맞이’를 한다. 정초나 백중 때도 하는데 과거 정초 용왕맞이는 돼지도 잡고 비교적 큰 규모로 치렀으나 지금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해녀노래는 제주해녀의 한반도 진출과 같이 전파됐지만 현재는 제주에서만 제주특별자치도지정 무형문화재(1971.8.26. 지정)로 전승되고 있다. 제주도 해녀들의 한반도 출가물질은 출륙금지령이 해제된 1823년 이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출륙 금지령이 해제된 이후 19세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반도 출가물질은 노동요인 해녀노래가 한반도로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까지 한반도에서 해녀노래가 채록된 지역은 강원도 속초시, 삼척시, 경상북도 경주시, 포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사천시·통영시·거제시, 남해군 등지이다. 제주 출신 해녀가 다른 지역보다 늦게 정착한 강원도 지역에서는 1970년대까지 뱃물질을 나가면서 노를 저을 때 해녀노래를 불렀다고 하지만 현재 제주 출가 1세대 해녀들이 대부분 물질을 그만둔 상태여서 해녀노래가 계속 전승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⁴⁰⁾

39) 송기태·박정석 외, 『한국 무형문화유산 자원 7-서남해 해녀, 통소음악, 한지장』, 국립무형유산원, 2015, 44·75·90·91·127·148·149쪽 정리.

40) 유철안·이성훈 외, 위의 책, 68쪽.

3) 사회성

현재 겪고 있는 고령화와 해녀인구 감소 등의 문제는 사회환경적 변화와 연결해 해석할 수 있다. 일본 강점기 식민자본주의가 침입하는 과정에서 제주해녀도 하나의 자본과 임노동 관계 속에 편입되어 새로운 직업집단으로 변화하였다.⁴¹⁾ 전근대적 사회에서 해녀들은 ‘생존양식’ 혹은 ‘생존전략’의 수단으로 해산물을 채취하여 힘겹게 생계를 유지해 나갔고, 또한 다른 생산품과 교환하는 단순한 생산·교환체제 아래에 놓였다.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만 하여도 제주지역의 경제적 상황과 산업구조는 여전히 자급자족형 농업사회였으며 최저생계를 유지하는 형태의 경제생활을 했다.

1970년대 들어 전통적 생계유지형 농업구조가 재편화되어 환금작물 생산의 상업농 시대가 본격적으로 정착하게 되고 또한 관광산업이 국가적 지원에 힘입어 급격히 양적 발전을 거듭하면서 제주해녀의 수는 급격히 감소하기에 이르렀다.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되어 해녀 이외에 다른 직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해녀의 이미지나 역할이 과소평가 되지는 않았다. 제주해녀는 영농활동에 참여하는 외에 해산물 채취로 이중적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가정경제에 일익을 담당했다. 다만 이전과 달리 해녀의 경제적 수입이 가정경제의 주요 소득원이기보다는 보조적 소득원으로 바뀌게 되면서⁴²⁾ 해녀 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1970년대 이후에는 여성의 경제 활동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각종 직업들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직업군 세분화로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났고, 육체적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기회가 늘어나면서 해녀를 직업으로 선택해야 할 이유가 줄어들었다. 또한, 일제강점기 이후 한국 사회를 장악한 계급구조와 사회이동 흐름 속에서 과거 해녀가 생태환경에 적응한 적극적인 경제활동으로 이어왔다는 의미는 저평가되기 시작한다.

제주해녀의 소득 보존을 위해 소라 종패를 뿌려 공동으로 관리하는 해녀회(혹

41) 권귀숙, 「제주해녀의 신화와 실제-조혜정 교수의 해녀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30집, 한국사회학회, 1996, 227~258쪽.

42) 고승한, ‘제주해녀의 사회문화적 의미와 가치변화’, 『제주발전연구』, 통권 제8호, 2004, 173~190쪽.

은 어촌계 조직)에서 공동으로 마을 앞바다를 일정 구역을 차지하여 독점 운영하는 사회적 상황이 해녀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지는 경향도 나타났다. 특수한 직업 집단으로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과거 마을 대부분 여성들이 해녀 활동에 종사하였으나 오늘날은 일부 나이 든 해녀 활동은 다른 장비의 도움 없이 깊은 바닷속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로 현대에 들어서는 기피 업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도 하다.

사회 구조와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관점(기능론과 갈등론)으로 구분하면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사회 구조는 ‘역사성’과 ‘지속성’을 가진다. 한번 생겨난 구조는 오랜 기간 지속되는 특징이 있으며, 특정한 개인이 바꾸려고 노력해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 기능론적 관점은 사회 제도나 조직은 사회의 존속과 유지에 공헌하기 때문에 존재하고,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 속에서 공유된 가치나 규범을 폭넓게 합의하고 있다고 본다. 갈등론적 관점은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갈등에 주목한다. 사회 구성원이 동의하는 가치에 기초하고 있기보다는 갈등과 억압에 의해서 유지된다고 본다.

제주해녀는 작업기술에 따른 구분(상군·중군·하군)을 인정하고 전승하는 등 개인의 자질과 능력, 구성원들의 합의된 가치를 반영하는 기능론적 특징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동시에 마을 어장 운영이나 관리에 있어 지배집단의 가치 등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부정적 인식을 받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4) 공동체 문화

제주도가 1996년 발간한 『제주의 해녀』는 대분류로 ‘해녀사회의 공동체 의식’⁴³⁾을 다뤘다. 제주도내 102개 마을어촌계는 각종 해산물의 채취기, 잠수작업 시간, 잡을 수 있는 해산물의 크기를 규정하고, 물질작업에 필요한 기술과 도구를 통제하고 있다. 제주해녀들은 물질을 하는 바닷속을 ‘바다 밭’으로 인식하여, 1년에 두세 번 해안가와 조간대에서 공동으로 청소를 하고 잡초를 제거하는 이른바 갯닦이를 한다. 소라나 전복의 종패를 마을어장에 뿌리는 일도 수행한다.

43) 김영돈·고광민·한림화·강만보, 『제주의 해녀』, 제주도, 1996, 489~497쪽.

해녀가 경험을 통해 체득한 물질기술과 민속지식은 학술자료로 가치가 크다. 해녀의 추위 적응능력에 대한 생리학적 연구⁴⁴⁾는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제주해녀 공동체 내부에서는 또 바닷속 암초와 해산물의 서식처를 포함하는 바다에 대한 인지적 지도가 암묵적으로 전해진다. 조류와 바람에 대한 지식 역시 오랜 경험을 통해 학습된다. 세계적으로도 그 사례가 드문 해양 중심의 여성공동체이자 생업문화인 해녀문화는 학제간 공동연구, 통시·공시적 연구, 문화간 비교연구 등의 자료로서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물질이라는 전통적 어로기술, 생태민속지식과 해양세계관, 해양신앙과 의례, 해녀노래, 공동체의 관습, 공유자원의 이용과 관리 그리고 분배, 여성의 경제활동과 협업, 물질의 수중과학 등 해녀문화를 둘러싼 제 방면의 학술연구와 여러 학문의 학제 간 공동연구(민속학, 인류학, 사회학, 경제학, 여성학, 국문학, 해양학 등)가 가능하다. 또한, 제주해녀의 한반도 진출과 정착에 관한 통시적 연구와 바다 생태환경에 따른 해녀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해녀문화의 공시적 연구 가능성도 크다. 마지막으로, 일본 아마(海女)와의 비교연구를 통해 나잠어업문화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규명할 수 있다.⁴⁵⁾

해녀는 무형문화재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학술적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빗창 이외의 장비 도움을 받지 않는 해녀의 물질작업은 자연친화적인 채집으로 해양자원의 유지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제주해녀문화의 핵심에 있는 ‘공유(shared)’개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단어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된다. 바다 자원을 나누고 물질기술을 전승하는 것도, 공동체라는 이름의 문화를 유지하는 것도 ‘공동체 문화’로 설명할 수 있다.

44) 백광세 외, 「한냉자극(寒冷刺戟)에 대한 한국해녀의 혈관계 반응(血管系反應)에 관한 연구(Studies on Vascular Responses to Cold Stimuli in the Korean Diving Women)」, 『대한생리학회 대한생리학회지』 제3권 제1호, 1969, 59~66쪽.

이주영·이효현, 「제주해녀, 그 삶의 환경생리학적 보고(Korean Women Divers 'Haenyeo': Bathing Suits and Acclimatization to Cold)」, 『한국생활환경학회지』 17권 1호, 2014, 1~11쪽.

이주영·김시연 외, 「Diving bradycardia of elderly Korean women divers in cold seawater: a field report」, 『Extreme Physiology & Medicine』 4(Suppl 1), 2015.

연합뉴스, 「미 해군, 해녀 인체의 미생물이 체온 상승에 기여 가설 검증…제주서 현장연구」, 동아사이언스, 2021.9.9.-[동아사이언스]

45) 좌혜경, 「제주 출가(出稼)해녀의 현지 적응」,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 민속원, 2006.

2. 해녀 현황과 해녀의 가치

1) 우리나라 해녀 현황

우리나라를 통틀어 해녀를 별도 통계로 파악하고 있는 사례는 제주에서밖에 찾을 수 없다. 대부분 지자체는 신고어업 중 나잠어업으로 해녀 인구를 가늠하고 있다. 국가통계에서도 사정은 비슷하다. 나잠·맨손어업을 하나로 묶어 집계하거나 지역별 단순 현황만 조사하는데 그치고 있고, 내용도 남녀 비율과 연령대별 분류 등 기본 자료만 확보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2021년 12월 말 시도별 신고어업 허가처분현황 보고를 기준으로 집계한 우리나라 나잠어업인 수는 9,309명이다[표 1].

[표 1. 신고어업 수리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고어업	122,779	660	7,824	1,166	1,793	1,024	46,557	17,817	41,235	1,524	2,817	362
맨손어업	113,468	1	7,391	2	1,791	98	44,787	16,386	40,741	174	1,765	332
나잠어업	9,309	659	433	1,164	2	926	1,768	1,431	494	1,350	1,052	30
투망어업	2	-	-	-	-	-	2	-	-	-	-	-

【출처: 해양수산부, 2021년 12월말 기준, 시도별 허가처분현황보고】

[표 2. 주된 어로어법별 어업인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나잠어업	2,853	249	6	249	-	54	22	14	97	323	79	1,759

【출처: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2020년, 확정】

2020년 통계청의 농림어업총조사에서는 전국 나잠어업인 수가 2,853명에 불과하다[표2]. 타 지역에서는 기본통계에 나잠어업인 수를 집계하는 것과 달리 제주

특별자치도는 해녀를 별도로 집계하는데 2020년 말 기준 제주해녀 수는 3,613명 (현직 해녀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유산과)이다.

강원도 환동해본부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강원 동해안 해녀는 316명이다. 잠수어업인 중 여성만 구분해 집계한 결과다. 강원도의 전체 잠수어업인은 736명이다. 나잠어업인은 688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수산자원팀이 파악한 부산 해녀는 552명(2020년 7월 기준)으로 여기에는 신고자와 미신고자를 모두 포함한 숫자다.

표1·2와 지역별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 통계로 전국 해녀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지자체별 통계 역시 신고어업 중 나잠어업 또는 잠수어업인으로 기준을 달리 잡는 등 정확한 해녀 인구수를 가늠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2) 제주해녀 현황

한반도를 비롯해 중국·일본·러시아 바다까지 진출했던 제주해녀는 한때 3만명에 이르렀던 것으로 추산된다. 1970년대 1만 4,000명에 달했던 제주해녀는 1980년대 7,800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표 3]. 2021년말 기준 제주에서 활동하는 현직 해녀는 3,437명이다. 연령을 보면 30대 이하가 3명, 30대 27명이다. 40대가 53명, 50대 218명, 60대 990명, 70대 1,516명, 80대 이상이 630명이다. 30대 이하 해녀는 전체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면 70대 이상 고령 해녀는 62.4%로 계속해 그 비중이 커지고 있다[표 4, 5].

[표 3. 제주해녀 총괄]

(단위 :명)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2021	2020	2019	2021	2020	2019	2021	2020	2019
계	8,447	8,993	9,023	4,414	4,564	4,588	4,033	4,429	4,435
현직해녀	3,437	3,613	3,820	2,069	2,141	2,241	1,368	1,472	1,579
전직해녀	5,010	5,380	5,203	2,345	2,423	2,347	2,665	2,957	2,856

※ 현직해녀 : 소라, 전복 등 물질작업(헛무레)을 현재 하고 있는 해녀(해남)

※ 전직해녀 : 물질작업을 하였던 자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2022년】

[표 4. 행정시·연령별 현직 해녀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30세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80세	80세이상
계	3,437	3	27	53	218	990	1,516	630
제주시	2,069	-	10	30	153	622	824	430
서귀포시	1,368	3	17	23	65	368	692	220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2022년】

[표 5. 수협·연령별 현직 해녀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30세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이상
계	3,437	3	27	53	218	990	1,516	630
제주시수협	1,449	-	5	16	111	435	566	316
서귀포수협	522	-	10	10	24	135	265	78
한림수협	537	-	4	12	40	159	215	107
성산포수협	512	1	5	5	19	138	274	70
모슬포수협	334	2	2	8	22	95	153	52
추자도수협	83	-	1	2	2	28	43	5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체적으로 해녀 인구를 파악해 각종 시책에 반영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조례 다섯 개와 시행규칙 두 개를 포함한 총 일곱 개의 해녀 관련 자치 법규를 제정해 제주해녀를 지원하고 있다.

가장 오래 시행된 것이 2006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다. 이후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2008년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2012년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산업 진흥 조례’,

2017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와 그 시행규칙을 만들었다. 이들 조례를 근거로 해녀어업의 보존과 육성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계속해 수립·운영하고 있다.

3) 해녀의 가치

‘제주해녀어업’은 지난 2015년 대한민국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에 지정됐다. 국가중요어업유산은 오랜 기간 형성·진화시켜 온 보전·유지 및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전통적 어업활동 시스템과 그 결과로 나타난 어촌경관 등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말한다.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안에 근거해 이뤄졌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안은 2015년 1월 국회 본회를 통과해 2월 시행에 들어갔다. 해양수산부는 법률이 위임한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을 같은 해 8월 마무리해 곧바로 지정 절차에 착수했으며 ‘제주해녀어업’이 첫 지정 대상이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청서에서 제주도는 “여성들이 맨몸으로 숨을 참고 수십 15m까지 바닷속으로 들어가 포획·채취하는 작업기술을 보전·관리 전승하고 해녀 가치를 창출·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 해녀의 세계적 희소가치성과 식량 확보·생물다양성·경관 창출 등과의 다양한 연관성, 제주의 강인한 여성상 상징, 독특한 공동체 문화, 관광 등의 산업적 가치를 통해 등재 필요성을 부연했다.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추진은 ‘제주해녀문화’에 대한 평가를 바꾸는 기폭제가 됐다.⁴⁶⁾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전통지식과 지혜, 사회적 관습, 가치, 전통기술, 예술 등은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인류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직업·작업 등에 한정된 접근으로는 문화적 가치를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현재

46) 제민일보 해녀기획팀, 대하기획 ‘제주해녀’, 제민일보, 2005년~-[제민일보]

제민일보 해녀기획팀 외, 『제주해녀문화의 이해』(2013), 『통사로 살피는 제주해녀』(2014), 『제주해녀-역사의 고리를 잇다』(2015), 『제주해녀문화 가치를 읽다』(2016), 『제주해녀 공동체를 엿보다』(2017), 『제주해녀문화 꽃 피우다』(2018), 『제주해녀를 향유하다』(2019), 『제주해녀, 문화분권의 중심에 서다』(2020), 제주도·(사)세계유산보존사업회.

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걸작(마스터 피스)'이라는 무형유산에 대한 고정관념에도 모자랐다. 하지만 2012년 4월 문화재청 예규('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를 통해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를 신청할 가치를 지닌 무형문화재를 '국가목록'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제주해녀에 대한 접근이 수산어업 영역에서 문화유산으로 전환됐다.

당시 문화재청은 기존 중요무형문화재와 시·도 무형문화재 외에 관련 연구기관에서의 조사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는 '대한민국무형문화유산국가목록(이하 국가목록)'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지정 무형문화재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제주해녀는 우선 등재 추진 11개 목록 중 아리랑·김치·인삼·구들에 이어 다섯 번째였다. 이후 일본 아마문화의 유네스코 등재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문화재청은 2013년 12월 '제주해녀문화'를 우리나라의 19번째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신청 종목으로 선정하며 가능성을 열었다.

이렇게 구축된 제주해녀문화는 '살아있는 문화유산(Living Heritage)'으로 정리된다. 해녀가 가지고 있는 협업적 노동문화와 근면·자족 정신, 직업의식은 물론이고 겸손한 미덕과 상호 배려 문화는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덕목이다. '고유 직업으로서 세계성', '해양지역 시민의회(Citizen Assembly) 문화의 원형(잠수회)과 해녀항쟁', '경제적 개척주의' 등 해양문명사적 가치도 빼놓을 수 없다.

제한된 공간(바다)에서 공동으로 해산물을 채취해 판매하고, 그 수확을 동일하게 배분하는데 있어 상하 기술 우열에 차등을 두지 않으며 젊고 늙음에 관계없이 호혜평등의 원칙을 고수해온 민속지식(혹은 생업에서 파생된 문화)은 '공동체성'으로 인식되었다.

'제주해녀문화(Culture of Jeju Haenyeo(Women divers))'의 유네스코 등재는 1차적으로 해녀문화의 보호가 시급하다는 데서 출발했다. 또 제주도를 벗어나 조선시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여성으로 한국의 어업 근대화에 큰 영향을 미친 해녀 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무엇보다 해양 생태계를 보전하며 지속가능한 경제 행위를 영위한 공동체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작용했다. 특히 물질기술 외에도 민속지식을 통해 이어져 온 '살아있는 문화유산(Living Heritage)'의 인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과정에서도 이러한 가치가 인정됐다. ‘해녀’를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으로 지정할 만한 가치는 다음과 같다.⁴⁷⁾

첫째, ‘해녀’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해녀는 산소 공급장치 없이 무자맥질해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여성이다. 해녀 같은 나잠어업(裸潛漁業) 종사자는 17세기 조선 시대 제주도 관련 기록에 잠녀(潛女)로 등장한다. 한반도의 해녀는 19세기 말부터 바깥물질을 나갔다가 그곳에 정착한 제주 출신 1세 및 그 후손 해녀와 그 지방 현지 출신의 해녀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1만여 명의 해녀가 있으며, 이 중 제주도에 4,300여 명, 울산에 1,500여 명의 해녀가 있다.

둘째, ‘해녀’는 문화재보호법 상 ‘한의학,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이라는 무형문화재의 범주에 속한다. 해녀의 물질기술과 물질경험에서 축적된 생태환경에 대한 민속지식은 매우 중요하다. 숨을 참고 깊이 10~15미터나 되는 물속에서 1분 이상 작업하는 물질은 물속에서 자신의 몸이 적당한 수압에 견뎌내야 하고, 남은 산소의 양을 감지하고 수면까지의 거리를 가늠하여 잠수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암초를 비롯한 바닷속 지형과 채취하려는 해산물의 서식처에 관한 지식은 나잠어업의 어로활동에서 필수적인 것이다. 또한 물질작업은 바람과 물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다. 물질은 이러한 생태환경에 대한 민속지식과 자신의 몸의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기술을 요구한다. 오랜 경험으로 해녀의 몸과 머리에 각인된 물질기술과 민속지식의 기록화 작업이 매우 필요하다.

셋째, ‘해녀’라는 무형문화재 종목은 공동체의 관습이 살아있다. 전국적으로 각 지역의 바다 생태환경에 따라 입어관행과 해녀공동체의 성격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물질작업의 본질은 협동이다. 동료는 경쟁자이지만 물속에서 닥칠 위험을 상호 예방하는 보호막 구실을 하기 때문에, 해녀들은 동료 해녀에 대한 배려가 깊다. 그들은 서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서 물질을 한다. 물질작업의 협업뿐만 아니라 생활연대도 강한 해녀들은 지역마다 잠수회(해녀회), 영어조합 해녀회, 해녀협동조합, 나잠협회(나잠부녀회) 등 여러 형태의 해녀공동체를 만들기도 한다.

해녀공동체의 서열화 및 비공식적 교육도 공동체의 관습으로 중요하다. 물질기량에 따라 해녀들은 스스로를 상군(上軍), 중군(中軍), 하군(下軍)의 세 집단으로 나눈다. 해녀공동체의 서열화는 해녀라는 직업이 고도의 훈련과 끊임없는 교육을 요구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해녀공동체의 비공식적 교육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물밑에서 절대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이다.

넷째, ‘해녀’라는 무형문화재 종목은 총체적인 어로문화이자 여성문화이다. 해녀문화는 물질기술 및 민속생태지식과 공동체 관습뿐만 아니라 물질도구, 해녀노래, 신앙 및 의례 등을 포함한다. 물에 뜨기 위해 짚는 테와과 채취한 해산물을 담기 위한 망사리는 가장 기본적인 물질도구로서 해녀들 스스로 만들어 쓰고 있다. 테와과 망사리뿐만 아니라 해산물을 채취할 때 쓰는

47) 유철인·이성훈 외, 위의 책 인용.

채취도구도 채취물의 종류와 바다어장의 지형적 특성에 따라 크기나 길이가 다르다. 이렇듯 물질도구는 해양환경에 적응력을 높이는 기능에 충실함을 보인다. 숨을 참고 깊은 바닷속에서 하는 물질작업은 위험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해녀들의 신앙과 의례가 생겨난다. 전국 각지의 해녀들은 나름대로의 민속신앙을 믿고 실천하고 있으나, 해녀공동체의 의례는 현재 제주지역에서만 행해지고 있다. 해녀들이 돛배의 노를 저으며 부르던 해녀노래는 제주해녀의 바깥물질과 함께 한반도에 전파되었다. 해녀노래는 노동요로서의 기능은 상실했다. 그러나 해녀노래에는 물질의 노동현장, 여성공동체의 삶, 고난과 극복의 삶 등이 잘 드러나고 있어, 제주도에서는 해녀노래가 보존·전승되고 있다.

다섯째, ‘해녀’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델이다. 해녀의 물질작업은 자연친화적인 채집기술로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물속에서 숨을 참을 수 있는 한계 때문에 많이 채취하겠다는 개인적인 욕심은 줄어들다. 제주도에서는 마을어촌계가 각종 해산물의 채취기, 잠수작업 시간, 잡을 수 있는 해산물의 크기를 규정하고 있다. 제주해녀들은 물질을 하는 바닷속을 ‘바다밭’으로 인식하여, 1년에 두세 번 해안가와 조간대에서 공동으로 청소를 하고 잡초를 제거한다.

이러한 가치들을 근거로 문화재청은 물질이 ‘해녀’라는 무형문화재 종목의 핵심이기는 하지만, 물질뿐만 아니라 민속생태지식·공동체 관습·물질도구, 해녀노래, 신앙 및 의례 등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어로문화이자 여성문화로 해녀를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

역사적으로 조공·수탈의 대상에서 현대사회에 들어 해양수산업 등 경제적 관점으로 옮겨가는 변화가 있었지만 제주해녀의 가치 평가 작업은 저조했다. 다른 지역에는 없는 특이성으로 바라보던 관점은 2015년 국가지정어업유산 1호 지정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와 2017년 국가지정무형문화재 인정으로 ‘지역 자산’이라는 영역을 만들었다. 제주해녀는 현재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등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제주해녀·해녀문화는 이런 일련의 조각들을 모아 우리나라 무형문화유산 정책과 어업유산 활용 선도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제주해녀어업·문화의 전승 보존은 기본적으로 유네스코의 무형유산보호협약에 맞춰 진행돼야 하지만 균형발전과 경관 등으로 관리 영역을 확장하며 지역 경쟁력을 키우는 역할까지 수행하게 됐다. 어업의 영향을 생활문화와 공간으로 확장하는 기폭제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무궁무진해질 수도, 반감될 수

도 있다.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특별한 삶의 방식이자 세대 전승을 통해 생명력을 유지한 살아있는 유산이라는 평가 역시 지금까지 해양자원과 문화유산 등 이원적 접근으로 한계를 보여왔다.

해녀를 콘텐츠로 활용한 문화 활동도 전체 해녀문화 범주 안에서 일부에 불과하다. 국가중요어업유산 등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제주해녀에 대한 접근을 생계유지를 위한 전통 방식 어업 이상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지금까지 해녀문화의 전승에는 특정한 기준이나 요건 같은 것은 없었다. 정보와 경험 공유를 통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었다. 이런 흐름에서 볼 때 무형문화유산으로 제주해녀·해녀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주해녀문화의 의미와 가치를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전승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Ⅲ. 제주해녀 출가와 이동 경로

1. 제주해녀 출가 연구사 검토

제주해녀 출가 연구사는 제주지역 신문인 제민일보가 지난 2005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해녀 기획 연재와 사단법인 세계문화유산보존사업회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발간한 연구 보고서⁴⁸⁾를 토대로 정리했다. 보고서 중에서도 유철인·정광중·좌혜경·진관훈 등이 집필한 『통사로 보는 제주해녀』를 참고하였다.

‘해녀’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선행연구를 검토해보면, 출가해녀에 대한 연구 역시 1900년대부터 제주도를 연구하던 일본학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1910년 조선총독부가 발간한 『한국수산지 제3집 제주도편』⁴⁹⁾에는 제주도 주변의 수산물 생산 및 가공현황뿐만 아니라 잠수업과 잠수기업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으며, 1930년대 후반 『제주도세요람』의 「도민의 출가」⁵⁰⁾에서는 당시 해녀의 출가지역과 해녀 수 등 출가 상황을 자세히 밝히고 있다.

마쓰다 이치지(栴田一二)는 1934년 논문 「제주도 해녀의 지리학적 연구」⁵¹⁾를 통해 제주도의 지역, 취락, 물산, 해녀, 농민의 일본 출가 등 1930년대 제주도의 전반적인 현황을 정리했다. 그 중에서도 일제강점기 출가해녀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48) (사)세계문화유산보존사업회는 지난 2013년 제주해녀 등 생업에 기반을 둔 생활문화와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는 돌·무속 문화 등 도내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 모여 조직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업을 통해 『제주해녀문화의 이해』(2013), 『통사로 살피는 제주해녀』(2014), 『제주해녀-역사의 고리를 잇다』(2015), 『제주해녀문화 가치를 읽다』(2016), 『제주해녀 공동체를 엿보다』(2017), 『제주해녀문화 꽃 피우다』(2018), 『제주해녀를 향유하다』(2019), 『제주해녀, 문화분권의 중심에 서다』(2020)를 발간했다.

49) 조선총독부농상공부편찬, 『韓國水産誌』 제3집, 濟州島, 1910.

50) 제주도청편·홍성목역, 『濟州島勢要覽』 濟州島の經濟, 제주시우당도서관, 1999.

51) 마쓰다 이치지(栴田一二), 「濟州島 海女の地誌學的 研究」, 『大塚地理學會論文集』 第2輯, 1934, 홍성목 역, 『改訂版 濟州島の 地理學的 研究』, 제주시우당도서관, 2005.

제주도의 역사와 지리적 조사를 위해 제주도로 건너온 이즈미세이치(泉靖一)는 『제주도』 52)에서 「어로와 가족」의 연구를 통해 나잠기술, 나잠노동의 형태에 주목하였고, 다구치데이키(田口禎熹)는 1933년 『조선 : 218호』 53)에 「제주도의 해녀」라는 글을 실는 등 관련 연구와 조사가 이어졌다.

우리나라의 출가 해녀 연구는 강대원(1922~2015)에 의해 기틀을 잡았다. 1970년에 출간된 『해녀연구』 54), 1973년 『개정판 해녀연구』 55), 2001년 『제주잠수 권익투쟁사』 56)를 통해 출가 해녀에 대한 자료를 꾸준히 수집·정리했다. ‘잠수의 발상’에서는 물질 도구, 해녀기술 등 해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이후까지 출가 해녀들의 생존권 투쟁, 항일운동, 입어관행권 재정 분쟁과 공동어업권을 위한 사회학적 고찰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

1980년대의 김영·양징자의 『海を渡った 朝鮮人 海女』 57)는 제주해녀가 일본으로 출가해 정착, 생활하는 과정을 현지 조사를 통해 상세히 남기고 있다. 김영돈·고광민이 공동집필한 『제주의 해녀』 (1996)58)와 김영돈의 『한국의 해녀』 (1999)59)에서 제주해녀들이 국내는 물론 일본과 중국 칭다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출가하여 나잠업을 한 사례를 조사하여 기록으로 남겼다. 좌혜경은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에 게재한 「제주 출가해녀의 현지적응」60)에서 제주해녀가 출가물질을 나가 국내외에 정착한 사례를 현지 조사를 통해 심층 연구한 결과를 정리했다.

진관훈은 『근대 제주의 경제 변동』 61)에서 일제 강점기 제주지역 경제는 ‘해녀노동’에서 시작했고, 해녀 노동의 산물인 해산물 가치가 상승하면서 해안지역의 부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취락의 이동이 전개됐는 점, 이는 교통의 발달과 함께 해녀 출가와 도민의 도일(度日)을 가능하게 했다고 보는 등 경제학 측면에서

52) 이즈미세이치(泉靖一), 홍성목 역, 『濟州島』, 제주시우당도서관, 1999.

53) 다구치데이키(田口禎熹)저, 「濟州島の 海女」, 『조선』 218호, 昭和 8년(1933년) 7월, 홍성목역, 『濟州島の 옛 記録』, 제주시우당도서관, 2001.

54) 강대원, 『海女研究』, 한진문화사, 1970.

55) 강대원, 『改訂版 海女研究』, 한진문화사, 1973.

56) 강대원, 『濟州潛嫂 權益鬭爭史』, 도서출판 제주문화, 2001.

57) 김영·양징자 저, 정광중·좌혜경역, 『바다를 건너 조선의 해녀들』, 도서출판 각, 2004.

58) 김영돈·고광민·한림화·강만보, 『제주의 해녀』, 제주도, 1996.

59) 김영돈, 『한국의 해녀』, 민속원, 1999.

60) 좌혜경, 「제주 출가(出稼)해녀의 현지 적응」,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 민속원, 2006.

61) 진관훈, 『근대 제주의 경제 변동』, 도서출판 각, 2006.

해녀와 출가물질을 살폈다. 유철인은 『깨어나는 제주여성의 역사』에 쓴 「제주 해녀의 삶 : 역사인류학적 과제」⁶²⁾를 통해 문화인류학적 관점으로 출가 해녀에 접근하였다. 이성훈은 『해녀노젓는소리 연구』⁶³⁾육지로 출가한 제주 출신 해녀들의 생애와 그들이 부르는 ‘해녀노젓는소리’를 통해 ‘제주 밖’ 관점에서 출가 해녀 연구를 진행하였다. 2000년부터 동해 북부 해안가로부터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남해안까지 해녀노젓는 소리의 전승 양상을 중심으로 제주도 밖으로 나간 제주해녀들을 지속적으로 조명⁶⁴⁾했다.

출가 해녀의 입어 관행 분쟁⁶⁵⁾이나 출향해녀 물 정착⁶⁶⁾ 등 다양한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안미정은 「해방 전후 제주잠수(해녀)들의 부산 정착의 사회사적 고찰-지역간 경계를 넘은 이동과 갈등을 중심으로」(『耽羅文化』 제37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를 통해 제주해녀의 출가는 해산물이 있는 어장을 따라 확장되면서 해녀 노동력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과 더불어 전통적으로 여성에게는 제한됐던 바깥 생활을 용인받는 수단이 됐으나 지역간 경계를 넘나들이 사회적 갈등으로 전화(轉化)된 상황을 살폈다.

2. 제주해녀 출가의 배경

한반도의 해녀문화는 제주해녀들의 출가에서 비롯되었다. 현지에 정착한 제주해녀는 현지 해녀에게 물질기술과 해녀노래를 비롯한 제주해녀문화를 전승시켰다. 제주해녀의 다른 지역 이동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제주해녀들의 출가 배경에는 ‘생업을 통한 문화 전파·확장’이 있었다는 점에서 구분해 살필 필요가 있다.

62) 유철인, 「제주해녀의 삶 : 역사인류학적 과제」, 『깨어나는 제주여성의 역사』,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2001.

63) 이성훈, 『해녀노젓는소리 연구』, 학고방, 2010.

64) 이성훈, 『해녀의 삶과 그 노래』 민속원, 2005. 『해녀연구총서』, 숭실대학교 한국문예연구소, 2014.

65) 권미선, 「근현대 제주도 출가(出稼)해녀와 입어관행 분쟁」,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8.

66) 김창일, 「제주 출향해녀의 물 정착과 물질방식」, 『근현대 동아시아-어민문화와 그 전개』, 국립민속박물관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19, 78~99쪽.

제주해녀의 출가 역사는 크게 ‘조선 후기(1637~1897)’, ‘개항기·일제 강점기’, ‘1950~1970년대’, ‘1970년대 이후’로 나뉘어 살필 수 있다.

조선 후기 관리들의 수탈, 왜구의 빈번한 침입, 과도한 진상·부역 등으로 제주도를 이탈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1629년(인조7년) 출륙 금지령(出陸禁止令)까지 내려지지만 제주 유민은 줄어들지 않는다. 제주도 해녀의 물으므로의 이주 기록은 『성종실록(成宗實錄)』(1447년), 『학성지(鶴城誌)』(1749년), 『규합총서(閩閩叢書)』(1809년), 『경상도 울산부 호적대장(慶尙道蔚山府戶籍大帳)』 등에서 남아 있다. 해녀를 비롯한 제주 유민들은 경상도와 전라도에 집중적으로 거주했는데 이는 지리적인 인접성과 해산물을 채취하는 등 제주에서와 유사한 생업 환경이 있었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개항기·일제강점기 제주해녀들은 일본 잠수기선의 남획으로 제주 어장의 황폐화와 고가에 일본으로 수출되는 우뭇가사리 등의 해조류 채취를 위해서 육지로 나왔다.

1876년 당시 조선이 일본과 맺은 한일수호조약(강화도조약) 이후 일본 잠수기업자들이 들어오면서 맨손으로 소라·전복을 채취하던 해녀들의 입지가 좁아지기 시작했다. 일본 잠수기선의 남획으로 작업할 수 있는 해산물 양이 줄어들면서 제주 바깥으로 눈을 돌리게 됐고, 19세기 후반 고가에 거래되던 천초 등 해조류 가치 상승이 출가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천초가 일본으로 수출된 것은 1877년부터이고, 1893년 오사카 비단 제조상들과 상인조합에서는 조선산(朝鮮産) 가사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며 부산 총영사관에 문서를 보내 가사리 품질검사를 의뢰하기도 했었다고 한다. 당시 천초의 주요 쓰임은 비단의 광택을 내기 위해 바르는 원료였고 일본산(日本産)에 비해 품질이 좋아 일본 비단 제조상들이 선호하였다.⁶⁷⁾

우리나라 수산물을 매집하여 수출하려는 일본 자본가들이 부산에 부산수산회를 설립(1889년)하는 등 수산물 매매·유통 사업이 확대되면서 현금 소득화가 용이해 진 것도 제주 해녀의 출가에 영향을 미쳤다.

67) 김수희, 「日帝時代 濟州海女の 海藻類 採取와 入漁」, 『濟州海女: 抗日運動, 文化遺産, 海洋文明』, 제주해녀박물관개관기념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위원회, 2006, 73~74 쪽.

일본 학자 마츠다 이치지는 ‘제주도해녀(濟州島海女)’(1976)에서 제주해녀가 1895년에 부산부(釜山府) 목도(牧島, 지금의 영도)로 처음 출가⁶⁸⁾ 나갔다고 기술했다. ‘몇 명’이 ‘어떤 과정’으로 ‘무엇을 위해’ 출가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개항 이후 일본인들이 한국의 남동해안 어장으로 우뚝가사리와 감태 등 일부 해조류를 채취하기 위하여 아마(あま·일본 해녀)를 동원했던 사실 등에서 제주해녀들 역시 비슷한 이유로 부산(부) 목도로 진출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채취한 해조류가 좋은 가격에 일본으로 수출되면서 제주해녀들은 부산에 분거지를 둔 일본 해조류 상인이나 우리나라 중간거래상에게 고용되어 한반도 해안은 물론 일본, 중국 다롄과 칭다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출가지역을 확대하게 된다. 일제는 1904년 러일전쟁이 터지자 화약의 원료인 감태를 확보하려고 제주해녀들을 착취했다. 독도 출가물질도 일제강점기 시작됐다.⁶⁹⁾

제주해녀의 출가가 전성기를 이뤘던 1930년대는 제주도해녀어업조합(1920년 설립)의 횡포가 극에 달하며 해녀들이 단체로 일어섰던 해녀항일운동(1932년)이 일어났고, 이를 전후해 만주사변(1931년)과 중일전쟁(1937년) 등으로 일본이 감태(화약의 원료) 생산에 열을 올리던 때였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유추해 볼 때 경제적 이유만이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출가물질을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1950·60년대 사정은 조금 다르다. 해방 이후에는 17세 이상의 제주해녀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다른 지역에 나갔다 와야 했을 만큼 출가물질 작업이 성황을 이뤘지만, 제주도를 떠난 해녀들은 출가 지역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한 채 영세한 삶을 영위했다. 해방 이후 일본 출가가 사실상 막히면서 국내 출가물질 지역이 확장되기도 했다. 국가 간 이동이 엄격해지기 시작한 때인 만큼 이 시기 일본으로 건너간 사례의 상당수가 밀항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⁷⁰⁾

68) 김영돈·고광민의 『제주의 해녀』(1996)와 김영돈의 『한국의 해녀』(1999)는 제주도의 해녀들이 출가(出稼)하여 나잠업을 한 사례를 조사하며 이를 ‘바깥물질’로 정리했다. 이 논문에서는 출가로 통일해 표기한다.

69) 제민일보 해녀획팀, '제주잠녀'6부-제주해녀문화목록 바깥물질 3 독도 물질사, 2015.3.3.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측 명칭) 관계철'에는 '1921년(대정(大正) 10년)부터 매년 다수의 조선인을 독도로 끌고가 전복과 소라 등을 따도록 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1939년(쇼와(昭和) 14년)부터는 90t과 20t 짜리 어선으로 독도주변 해역에서 조업을 했는데 선원 40명 가운데 감독을 맡은 일본인 2~3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조선인이었다고 기록돼 있다. 특히 1941년에는 제주도에서 잠녀 16명을 끌고 와 일을 시켰으며 주로 성계를 채취하도록 했다는 내용도 확인된다. 비슷한 시기 독도 어장을 배경으로 히사미(久見) 어업조합을 운영했던 야하다 사이다로(八幡才太郎)가 쓴 '다케시마 일지'의 '독도에는 30여명이 이용할 수 있는 우물이 있었고, 강제징용자들의 숙소로 추정되는 막사 2채가 있었다'는 내용이 있다. -[제민일보]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정부수립(1948년 8월)과 한국전쟁(1950년 6월)과 휴전(1953년 7월) 등으로 어수선했고, 제주는 4·3사건⁷¹⁾으로 당시 제주 인구의 10분의 1이 넘는 2만5000~3만명⁷²⁾이 사망했을 만큼 사정이 좋지 않았다. 경제 상황까지 극도로 어려워지면서 생계를 위한 출가가 이어졌고, 곤궁하고 불안한 제주 상황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피하는 수단으로 출가를 선택하기도 했다.

1953년 수산업법에 기존의 관행어업권을 입법화하면서 제주해녀도 소정의 입어행사료만 내면 지선공동어장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일부 지역에서 위탁판매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채취한 해산물에서 일정한 요금이 매겨거나 과도한 수익분배를 요구하며 마찰을 빚었다. 주요 출가지였던 경북에서는 지역 해녀들이 해조류 채취를 본격화하면서 출가한 제주해녀와 분쟁이 이어졌다.⁷³⁾ 제주도와 수산당국은 ‘해녀 안보내기 운동’(1966년), ‘나잠어업자 출가 지침’(1968년) 등 출가해녀 억제정책⁷⁴⁾을 내놓았다. 1968년 경북재정지구 ‘입어관행권 소멸확인소송’⁷⁵⁾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으며 출가 해녀 수가 줄어들고 출가

70) 조경희, 「불안정한 영토, ‘밀항’하는 일상-해방 이후 70년대까지 제주인들의 일본 밀항」,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06호, 한국사회사학회, 2015, 39~75쪽 정리.

일본의 식민지통치하에서 일상화된 조선인들의 노동이동은 해방 후 냉전/국민국가 체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외부자들의 부당한 영토침입으로 규정되었다. 해방 직후 약 130만명의 조선인들이 한반도로 귀환하였으나 대책없는 귀환정책과 한반도의 정치경제적 혼란과 불안정한 생활환경은 조선인들의 일본 재도항=밀항의 밑바탕이 되었다. 정당한 탈식민 과정 없이 방치된 조선인들은 존재자체가 쉽게 불법화될 상황에 노출되었다. 1950년 나가사키현에 설치된 ‘오무라 입국자수용소’는 1970년대까지 주로 강제송환이 결정된 한반도 출신자들을 수용하는 시설로, 지리적 주변부에 위치하면서도 전후일본 국민국가의 내적 경계를 획정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한편 해방 후 한반도의 정치경제적 불안정은 조선인들이 영토를 이탈하는데 충분한 조건이 되었다. 특히 ‘열전’의 무대이자 국민국가의 변경에서 생존과 생활을보장받지 못했던 제주인들에게 밀항은 자신들의 안전=안녕을 추구하는 행위였다.

7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7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는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4·3사건을 미군정기에 발생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이르기까지 7년여에 걸친, 한국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 피해가 극심했던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명시하고, 당시 인명피해를 2만5000명에서 3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가 확정된 희생자 수는 2022년 7월 기준 1만4660명이다.

73) 권미선, 위의 논문, 43쪽.

74) 권미선, 위의 논문, 52쪽

75) 권미선, 위의 논문, 50쪽.

1960년대 후반에는 해녀들의 출가가 늘어가고 점차 기술을 배운 육지부 지선(地先) 여자들도 해조류 채취를 본격화하여 해녀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에 967년 3월에는 경북재정지구 3개 어업협동조합이 ‘입어관행권 소멸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제주도 출가해녀들의 입어관행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이 소송은 구룡포, 갑포, 양포의 어협장이 원고가 되어 몇 해 동안 입어 실적 없는 제주도 출신 해녀 6명을 상대로 대구지법에 제기한 것으로 경북재정지구의 제주도 출신 해녀는 매년 공동어장에 입어하는 자만 관행에 의한 입어권이 있는 것이고, 최근에 입어경력 없는

지가 전남·경남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실제 1950년대 울릉도·독도까지 물질하러 나간 사실이나 1960~1970년대 충청남도 외연도, 1960년대 후반 전라남도 여수 등지로 나간 사례⁷⁶⁾를 찾을 수 있다. 강원 등 미역 채취 시기 노동력이 부족해진 지역들에서 제주에서 직접 해녀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출가하는 사례도 1960~1970년대 나타났다.⁷⁷⁾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1962년)으로 어촌계에 가입해야 해산물 채취가 가능하게 되면서 현지에 남아 ‘지선(방)해녀’화하는 것을 택하는 출가 해녀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부는 결혼 등으로 지역에 정착하고 물질로 번 자금을 바탕으로 시장 경제를 움직이기도 했다.⁷⁸⁾

1970년대 이후는 지역해녀들이 증가하고 미역 가격이 하락하면서 출가하는 해녀가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본격적인 경제 개발 정책 추진으로 전통적인 농업 사회가 산업사회로 빠르게 바뀌면서 어업인구가 감소하게 됐고, 해산물 채취 시기에 맞춰 해녀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 출가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아버지나 남편 등 가족 구성원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해녀 출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을 보인다. 급속도의 산업화·도시화로 지역간 격차가 벌어지면서 남성들이 1차산업 비중이 높았던 제주 대신 제조업·해운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이 발달한 부산 등 다른 지역에 취업을 하면서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때 제주 출신 여성들이 현지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생계비 보전 등을 위해 물질을 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현재 주요 출가지(出稼地) 제주 연고 해녀 대부분은 광복 전후 출가한 뒤 귀향하지 못하고 현지에 정착한 해녀의 2·3세대이거나 1970년대 이후 후 물질을 하는 사례다.⁷⁹⁾

자는 입어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76) 문옥희·이아승·서은정, 『전남지역 해녀실태조사』, 재단법인 전남여성플라자, 2013. 유형숙, 「울산 여성 어업인(해녀)들의 변천사」, 『울산학연구총론』, 울산발전연구원 부설 울산학연구센터, 2014. 신형석·안미정·좌혜경 외, 『울산 역사 속의 제주민 -두모악·해녀 울산에 오다-』, 울산 대곡박물관 특별전 도록, 2016. 『영덕 해녀 구슬생애사: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나는 해녀 할 거다』, 영덕군·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20. 김여나·황현일, 『나는 해녀다-기장군 1세대 해녀 자서전』, 기장군, 도서출판 참놀, 2022.

77) 김창일, 「제주 출향해녀의 물 정착과 물질방식」, 『근현대 동아시아-어민문화와 그 전개』, 국립민속박물관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19, 85~89쪽.

78) 김영돈·김범국·서경림, 「海女調査研究」 『耽羅文化』 제5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6. 제주도문화체육과, 『제주의 민속2 : 생업기술·공예기술』, 제주도, 1994, 217~225쪽. 김영돈, 「해녀」, 『제주민속론』,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5, 39~51쪽. 고광민·김영돈·한림화·강만보, 『제주의 해녀』, 제주도, 1996. 김영돈, 『한국의 해녀』, 민속원,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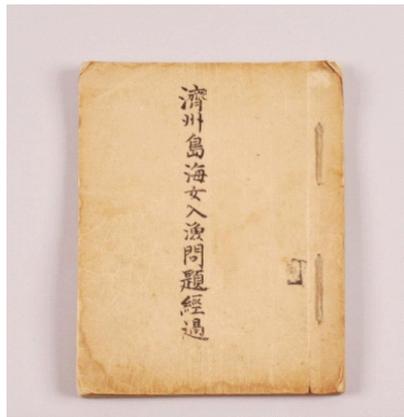
79) 김창일, 「제주 출향해녀의 물 정착과 물질방식」, 『근현대 동아시아-어민문화와 그 전개』, 국립민

3. 출가해녀의 이동 경로

1) 국내 출가

제주해녀의 국내출가 이동경로는 부산 지역에 한정해 논의하기로 한다.

제주해녀들은 출륙금지령이 해제된 1823년 이후부터 한반도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문헌상 기록은 없지만 ‘제주향토기’⁸⁰⁾에는 ‘1887년 경남 부산부의 목도(牧島)로 간 것이 시초’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 1915년 제주군 서기였던 일본인 에구치 야스타카⁸¹⁾는 ‘제주도 출가해녀’에서 ‘1892년 경상남도 울산과 기장에 출어한 것이 최초’라고 했다. 역시 일본인 마스다 이치지⁸²⁾의 논문 ‘제주도 해녀의 지리학적 연구’와 경상남도의 ‘제주도해녀입어문제경과(1920~1935년)’⁸³⁾[그림 1]는 ‘1895년 경상도 목도(현재 부산 영도)로 진출한 것이 처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연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결국 제주해녀들이 출가를 시작한 것은 1890년대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 경상남도 제주도해녀입어문제경과(1920~1935). 제주해녀박물관 소장]

속박물관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19, 86쪽.

80) 양홍식·오태홍, 『제주향토기』 프린트본, 1958, 56쪽. 박찬식, 「제주해녀의 역사적 고찰」,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 민속원, 2006, 127쪽.

81) 江口保孝, 「濟州島 出稼海女」, 『朝鮮彙報』 제3호, 1915.

82) 梶田一二, 「濟州島 海女の 地誌學的 研究」, 『大塚地理學會論文集』 제2집(下), 1934, 155쪽.

83) 경상남도, 『濟州島海女入漁問題經過』, 1920~1935, 문서철, 3쪽.

부산 영도에 제주도인들이 처음 정착한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124년 전인 1885년이라 한다.⁸⁴⁾ 당시에 구좌읍에 살던 김완수씨가 처음으로 정착했으며, 1900년 초부터는 부산 영도와 경상남도 일원에 제주 마을을 집단적으로 형성했다. 1915년 무렵 경상남도 지방의 해녀 수만도 1,700여 명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산된다. 이후 1970년대까지 더 많은 제주해녀들이 영도로 이주해왔지만 이주 배경에는 연대별로 차이가 있다.

19세기말 제주해녀 출가는 일본인 ‘잠수기 어업자’의 제주도 진출에 따른 연안 바다의 황폐화⁸⁵⁾와 관련이 있다. 일본인 어업자들의 한반도 부근 연안에서의 어업 활동이나 이주는 ‘한일수호조약(강화도조약)’(1876년) 이후 적극적으로 이뤄졌다. 갑오경장(1894년)을 전후하여 우리나라 연안에서 생산한 해조류의 효용도가 높아지면서 부산 일대에 해조상이 많이 생겼고, 해조상들이 직접 제주로 와서 해녀들을 모집해 나가는 경우도 많았다.

일제강점기와 개항기⁸⁶⁾ 부산 지역에는 우리나라의 수산물을 매집하여 일본에 수출할 목적으로 일본인 자본가들이 부산수산회사를 설립하였다. 1889년 설립된

부산수산회사는 1903년에는 부산 어시장을 개장해 종래 일본에 대한 수산물 수출 사업 외에 본격적으로 조선 내에서의 수산물 매매·유통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어장 조사, 수송, 수산물 제조 가공, 수산물 냉장용 제빙 및 판매, 자금 대여 등으로 사업 영역을 계속해 확장한 부산수산회사는 남해안 거문도 등에 출장소를, 통영에는 지점을 설치해 어획고를 올렸다. 부산수산회사는 어획된 수산물은 부산 어시장을 통해 조선 내부 시장에 유통하는 한편으로 일본, 만주로도 수출하였다.⁸⁷⁾

부산수산회사를 중심으로 일본 상인들과 우리나라 객주들이 모여들었고 해조

84) 김정하·이종현, 「영도 해녀에 대한 현장론적 연구」, 『人文社會科學論業』 16호, 2008, 106~107쪽. 부산제주도민회 제12대 회장 김길두(93세)씨 인터뷰 인용.

85) 藤永 壯, 「1932年 濟州島 海女の 鬪爭」, 홍성목 역, 『「제주도」의 옛기록』, 제주시우당도서관, 1997. 93쪽.

86) 부산항토문화대전. 1876~1910년 시기 부산 지역 역사를 통칭하는 기준. 개항기는 아직도 봉건 체제였던 조선 사회가 근대 무역을 통해 세계 자본주의와 교류하면서 근대 사회로 전환을 모색해 가던 시기이다. 동시에 제국주의 서구 열강과 청 및 일본과 같은 외세에 의해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적으로 주권을 위협받던 시기였다. 이 시기 부산은 일본과 교역을 통해 성장했다. 부산항 개항 이후 1880년 5월 원산항이 개항할 때까지 4년간은 부산항이 외국과의 무역을 독차지 하였다.

87) 부산역사문화대전. 김호걸·황무원·윤일이·김창일, 『부산 영도 민속조사 보고서』, 국립민속박물관·부산광역시, 2020.

류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를 채취할 노동력 확보를 위해 제주해녀의 출가를 유도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천초가 일본으로 수출된 것은 1877년부터였다. 당시에 가장 수요가 많고, 가격이 비쌌던 해조류로 식재료이기도 하지만, 일본 비단 산업에서 비단의 광택을 위한 원료로 사용되었다. 우리나라 천초에 관심을 가진 일본 비단 제조상들이 1893년 부산 총영사관에 문서를 보내 조선산(朝鮮産) 가사리 품질검사를 의뢰⁸⁸⁾하기도 했었을 만큼 관심을 받았다. 당시 천초의 주요 쓰임은 비단의 광택을 내기 위해 바르는 원료였고 일본산(日本産)에 비해 품질이 좋아 일본 비단 제조상들이 선호하였다. 구체적인 기록은 찾지 못했지만, 일제강점기 부산 영도에는 이들 중개인이 거점으로 삼아 활동했던 숙소 성격의 건물이 있었다는 말도 전해진다.⁸⁹⁾

당시 제주해녀들이 어떻게 부산 영도까지 갔는지는 해녀노래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해녀노래는 해녀들이 돛배를 타고 뱃물질 하러 오갈 때 노를 저으며 불렀던 노동요다. 제주지역 내에서도 불렀지만 출가한 해녀들의 입에서 전해져 출향 해녀들로 인해 한반도 전역에서 전승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노랫가락은 구성지지만 14일 이상 걸렸던 험한 뱃길이다. 이런 해녀노래 사설에는 해녀들의 삶의 궤적이 온전히 투영되어 있다.⁹⁰⁾ 해산물 채취의 어려움, 노 젓는 노동의 힘듦, 고향 제주와 자식에 대한 그리움, 신세 한탄과 인생무상이 드러난다고 했다. 특히 돛배를 탄 해녀들은 소상한 해도(海圖)를 잘 기억⁹¹⁾해 노래 가사에 반영하기도 했다.

성산일출 바라두곡
 소완도로 가는구나
 완도지방 넘어가군

88) 김수희, 「日帝時代 濟州海女の 海藻類 採取와 入漁」, 『濟州海女: 抗日運動, 文化遺産, 海洋文明』, 제주해녀박물관개관기념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위원회, 2006, 73~74쪽.

89) 고미, 한바당 해녀 이어도 사나-신(新)물질로드 고행섭 전 부산제주특별자치도민회 총괄부회장 인터뷰, 제민일보, 2021.10.20.-[제민일보]

90) 이성훈, 「해녀노젓는소리의 형성과 본토 전파」, 『우리문학연구』 제24집, 2008, 51~83쪽. 진선희, “해녀노래는 제주방언의 보물창고” 이성훈 『해녀노래 주석사전』저자 인터뷰, 한라일보, 2018.11.30.-[한라일보]

91) 제주도문화체육과, 위의 책, 225쪽. 이성훈, 「해녀노젓는소리 사설의 현장론적 분류와 유형」, 『고전과 해석』 6권, 2006, 113~14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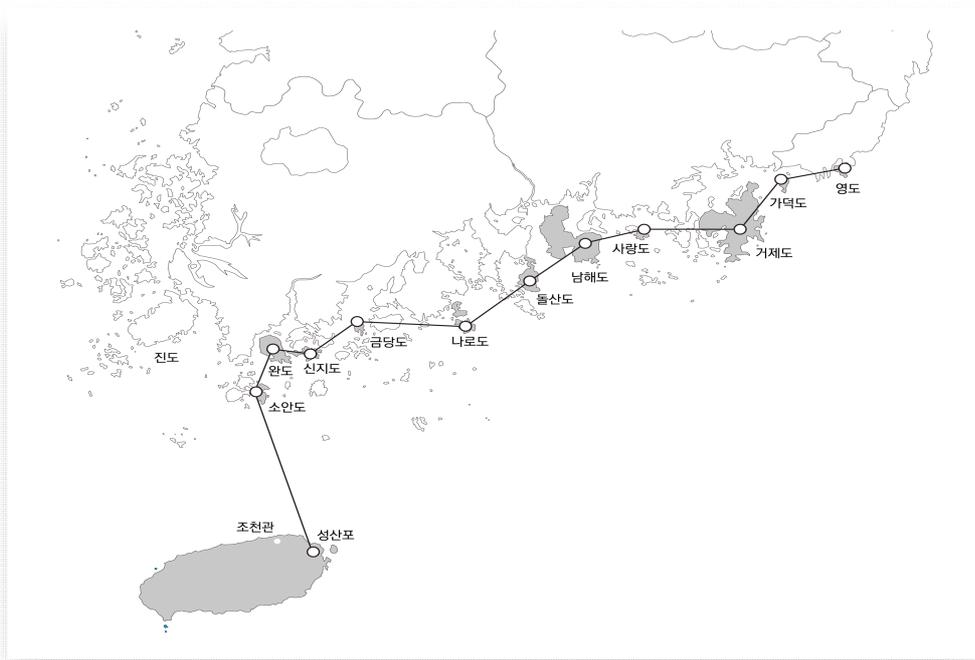
신기도영 넘어가곡
 금당아로 넘어가근
 저큰바당 다지나곡
 지누리대섬 넘어가근
 나라도로 건당흐다
 나라도를 넘어가곡
 병돌바당 건너간다
 돌산을 너어가근
 솔치바당 건너간다
 솔치바당 건너가민
 남해로다 노양목
 사랑도바당 넘어간다
 물파랑것도 지나가근
 지제장실포 넘어가곡
 가덕동곶 지나가민
 등바당을 넘어간다
 다대곶을 넘어가민
 부산영도 이로구나

위에 인용한 것은 김영돈이 제주시 삼양동 장갑생 해녀로부터 채록한 제주해녀 출가길의 뱃노래⁹²⁾다. 사실을 보면 당시 제주해녀들이 국내 출가 대상지의 하나였던 부산 영도로 가는 바닷길에 있는 섬과 바다 이름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제주도 성산항(성산 일출봉)에서 출발하여 전라남도 소안도(所安島)·완도(莞島)·신기도(薪智島)·금당아(金塘島)·지누리대섬(未詳)·나라도(羅老島)·돌산(突山島)과 경상남도 남해(南海島)·노양목(露梁海峽)·사랑도(蛇梁島)·지제장실포(巨濟島 知世浦 長承浦)·가덕동곶(加德島)·다대곶(多大浦)을 거쳐서 부산(釜山) 영도(影島)에 이르는 바닷길이다[그림 2].

이동수단 발달이 영도와 연결점을 만들었다. 돛배로는 최소 2주 정도 걸렸을 거리가 발동선에 이어 제주-부산 항로가 개척되면서 이동 경로와 시간에 변화가 나타난다. 기선을 이용하여 부산 방면으로 갈 때는 소안도를 경유하지 않고 거문도를 경유하였고, 목포 방면으로 갈 때는 거문도 대신 소안도나 추자도를 거쳐

92)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상』, 일조각, 1965, 228쪽.

이동했다.⁹³⁾이러한 사실은 아래 인용한 『조선총독부관보』 1915년 4월 14일 정규호 806호 17~18면 명령항로 정기발착일시 인가(4~6월) 기사⁹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그림 2. 뚝배를 이용한 제주해녀 출가물길 항로]

부산 : 제주도선(기항지: 장승포·여수·거문도·성산포·김녕·조천·산지·한림·협재·모슬포·서귀포·표선, 사용선박 三浦丸)

목포 : 제주도 東廻線(기항지: 소안도·산지·조천·김녕·성산포·표선·서귀포, 사용선박 公州丸)

목포 : 제주도 西東線(기항지: 조도·추자도·산지·한림·협재·모슬포·마라도·서귀포, 선박 같음)

항로	선박명	출발일시	도착일시	비고
부산-제주도선	三浦丸	4월 14일	4월 15일	정기발착
목포-제주도 東廻線	公州丸	4월 14일	4월 15일	정기발착
목포-제주도 西東線	선박 같음	4월 14일	4월 15일	정기발착

[그림 3. 『조선총독부관보』 1915년 4월 14일 정규호 806호 17면]

93) 이성훈, 「해녀노젓는소리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7, 125~126쪽. 이성훈, 「국내 출가해녀」, 『일제강점기 제주여성사Ⅱ』, 제주연구원, 2011, 268~269쪽.

9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조선총독부관보, 문화예술과, 『朝鮮總督府官報 中 濟州錄』, 濟州道, 1995, 47쪽.

1925년 무렵 부산 영도에 ‘출가물질’ 나와 있던 제주해녀들의 수는 조선총독부 내무부장으로부터 부윤, 군수 앞으로 통첩된 공문을 통해 일부 파악할 수 있다. 공문에는 ‘부산부 근해에 입어할 제주도 해녀 어업조합원 수 결정, 부산부 250명, 동래군 650명(기장어업조합 지역 내 400명, 기타 250명)’이란 기록이 있다.⁹⁵⁾

해방 이후에는 선주 또는 객주 모집 형태로 부산으로 출가한 후 물질을 하다가 현지인과 결혼해 정착하는 경우와 생계 책임과 지속적인 물질을 이어가기 위해 가족 전체를 불러들여 정착하는 경우, 남편이 외항선원 취업 등으로 가족이 이주, 생계를 위하여 물질을 시작한 경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출가한 제주해녀들은 부산 영도에 모였다가 기장, 울산, 경주, 포항 등 부산 인근의 어촌으로 퍼져나갔다.⁹⁶⁾ 해방 이후 많은 제주도민이 영도로 대거 이주했고 1950~1970년대 중반까지 부산 영도를 거점으로 제주해녀의 출가가 이어졌다. 부산박물관의 2021년 특별기획전 ‘부산, 관문 그리고 사람’⁹⁷⁾에서도 일제강점기 이후 ‘제주도에서 물으로 와 정착한 부산 해녀들이 영도에 모였다가 기장, 울산, 경주, 포항 등 부산 인근의 어촌으로 퍼져나갔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해방 이후 많은 제주도민이 영도로 대거 이주했고 1950~1970년대 중반까지 부산 영도를 거점으로 제주해녀의 출가가 이어졌다고 살폈다.

해방 이후 혼란 상황과 한국전쟁, 경제 부흥까지 격동기를 거치면서 제주해녀 출가에도 변화가 생긴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귀향하고, 4·3사건을 겪으며 제주 경제 사정은 피폐해졌다. 입어료만 내면 해산물을 채취할

95) 김정하·이종현, 위의 논문, 106쪽.

96) 제주도문화체육과, 위의 책, 224쪽.

제주해녀들은 주로 어디에들 나갔었을까? 국내의 경우는 光復될 때까지 慶尙南道로 물렸던 것으로 드러난다. 예를 들어 1987년에 펴낸 「濟州島勢4要覽」을 보건대 그해 3월말 현재 한국 각 연인에는 2천8백1명이 出稼한 것으로 돼 있는데 慶尙南道에만 1천6백5 십명을 필두로 慶尙北道 473명, 全羅南道 408명, 忠淸南道 110명, 江原道 54명, 黃海道 50명, 咸鏡南道 32명, 天羅북도 19명, 咸鏡北道 5명으로 드러난다. 이통계를 보건대 제주해녀들은 慶尙南道 다음으로 咸鏡南道·咸鏡北道까지 北進했다. 그러니까 平安南道를 뺀 한반도 연안 곳곳에, 심지어는 黑山島·獨島에 이르기까지 제주해녀들은 한사코 진출했다는 말이 된다.

97) 부산박물관은 9월 17일부터 12월 5일까지 80일간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2021년 특별기획전 ‘부산, 관문 그리고 사람’을 열었다. 이 전시는 부산시와 국립민속박물관의 ‘2021 부산 민속문화의 해’ 사업 업무협약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부산박물관 전시에 앞서 2021년 6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국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부산, 바다와 물의 나들목’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된 바 있다.

수 있던 상황도 역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1962년)과 지역해녀들과의 마찰로 여의치 않게 됐다. 1970년대 급속도의 산업화·도시화로 어업인구가 줄어들면서 제주해녀 출가는 ‘해산물 채취 시기에 따른 노동력 공급’으로 바뀌어 간다. 이런 배경 속에서 출가해녀 중 상당수가 제주도로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육지에 남아 정착했다.⁹⁸⁾

1962년 수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지선공동어장에서는 ‘지역해녀’와 ‘출가해녀’의 구분 없이 소정의 ‘입어료’만 내면 어로작업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지방민이 텃세를 부리며 공동어장을 처분하거나, 아니면 수익의 60% 이상 요구하는 분배방식을 강요하며 공공연하게 해녀들의 이익을 수탈했다. 제주해녀들의 피해가 늘어나면서 부산제주도민회에서는 1950년 5월 28일 영도 남향동 항구극장에서 제주도민 400여 명이 모여 해녀들의 권익을 위한 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다. 이후 1963년 12월 도민회 임원진과 지방의 저명인사들로 ‘잠수권익 옹호회’를 조직하여 처참한 생활을 하는 해녀들의 실상을 관계 당국에 호소하는 한편 약 3개월간에 걸쳐 투쟁을 전개했다. 그 결과 비록 영도지구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나 제주해녀들에 대한 착취 행위를 근절하기에 이르렀다.⁹⁹⁾

이런 형태는 1970년대에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부산 영도를 거점으로 활동하던 상인들은 미역 등 해조류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제주해녀를 모집했다. 이로 인해 광복 후 제주도민이 영도로 대거 이주했다. 1970년 동아일보의 ‘땀 흘리는 한국인’기획 중에는 ‘제주집’이라는 소재목과 더불어 ‘물질 원정 왔다가 동해안에 정착’, ‘부산 영도는 주민 8할이 제주계’라는 내용이 게재된다¹⁰⁰⁾[그림 4, 5]. 아래 인용한 기사 내용을 보면 미역 채취권 등을 둘러싼 민민(民民) 갈등의 중심에 주인이 모호한 바다에서 작업을 하는 소위 ‘제주집’이라 불리는 제주해녀들이 있음을 거론했다.

“(제주집)은 물질하러 육지에 나왔다가 현지 남자들과 결혼 내지 이주해온 사람들인데 동해안 일대 주민의 약 3할 가량이, 부산 영도의 경우는 약 8할을 차지하여 선거 때

98) 오선화, 「죽변지역 이주잠녀의 적응과정 연구」, 안동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8, 20쪽.

99) 김정하·이종현, 위의 논문, 109쪽.

100) 땀 흘리는 한국인- 해녀 20 ‘제주집’ “물질 원정 왔다가 동해안에 정착”, 동아일보, 1970년 7월 25일자-[동아일보]

의 물표로도 나타나고 있다. 내륙지방에서 보기에는 제주도가 천리길 바다 밖이지만 동해안 일대에서는 제주도가 바로 옆마을이다. 이것은 제주본도인들도 마찬가지다. 구룡포의 경진하숙이 어떻고 소섬(우도)의 이발소가 어떻고는 동해안~제주도간의 공통 생활 정보가 된다.

감포(월성군) 어협 관내만 해도 작년의 200여명에 이어 금년엔 100여명으로 제주도 출가(出稼) 해녀 수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줄고는 있지만 5년 전까지만 해도 여름이면 제주도 해촌의 여자라고는 집보는 노인이나 아이들뿐이어서 제주해촌의 여자가 동해안으로 출가(出稼)했다가 출가(出稼)해버리는 예는 수두룩했고, 아주 이주해서 '제주집'이 되곤 했다. 제주집은 물론 이런 미역바위 권리엔 참가할 수 없었고 그 아이들까지도 학교에서 흔히 원주민들에게서 따돌림을 받기 일쑤였다.”(동아일보 1970년 7월 25일자 6면)



[그림 4. “물길 원정 왔다가 동해안에 정착”]

【출처: 동아일보 1970년 7월 25일자 6면의 ‘땀 흘리는 한국인’ 해녀 20 ‘제주집’】



[그림 5. 해녀촌 풍경]

【출처: 1974년 04월 11일자 동아일보 기사】

연구자는 2021년 4~10월까지 부산 영도를 중심으로 기장군, 울산과 경북 포항(구룡포), 경남 거제·통영시, 전북 군산시를, 2022년 11~12월에는 부산 영도·기장군과 경기도, 인천시, 강원도 고성군에서 출가 해녀를 현장 조사하였다. 해당

지역은 제주해녀가 출가한 것으로 알려진 지역들이지만 이 중 부산 영도구에서 1970년대를 전후해 눈에 띄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일자리를 찾는 가장(남편)을 따라 가족 전체가 부산으로 이주했다가 현지에서 물질을 하게 된 경우로 기존 부산에 자리를 잡은 제주 출신 해녀들과는 달리 어촌계 가입부터 난항을 겪었다. 현재 부산 영도에 남아있는 제주 출신 해녀의 대부분이 이런 경우다. 나머지는 제주 출신 부모를 둔 지역에서 태어난 2·3세대 해녀들이다.

2021년과 2022년 조사 모두 영도구 동삼어촌계 소속 제주 출신 해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조사 해녀들은 2019년까지는 남항어촌계 소속이었지만 부산영도해녀문화전시관 개관 후 1층 수산물 판매장 이용 조건으로 동삼어촌계로 적을 옮겼다. 남항어촌계 해녀는 전원이 제주 출신이다.

물질 경력만 60년이 넘는 김영호 할머니(1939년생·구좌읍 출신·2021년 면담)는 30~40대까지 제주 출신 해녀 100명이 같이 물질을 했었다고 기억했다. 김 할머니를 포함해 현재 부산 영도에 남아있는 제주 출신 해녀들은 출가 후 출향해녀가 된 경우다. 동삼어촌계 최연소 해녀(66세)를 포함해 사례조사를 한 제주 출신 해녀의 평균 연령은 70세를 훌쩍 넘는다. 나이와 관계없이 조를 짜고 작업을 하는 날이면 오전 7~8시부터 물질을 준비해 바다로 나간다. 건강 상태나 채취하는 해산물에 따라 작업을 끝내는 시간은 달랐지만, 대부분 수산물판매장 운영시간에 맞춰 움직였다.



[그림 6. 구좌 평대 출신 고승여 해녀(사진 맨 왼쪽)와 김영호 해녀, 종달 출신 고금순 해녀(사진 맨 오른쪽)]



[그림 7. 구좌읍 종달리 출신 고금순 해녀] [그림 8. 김정생(사진 오른)·윤연옥 해녀]

구좌읍 평대 출신으로 해녀 경력 47년의 고승여 할머니(1949년생·2021년 면담)는 처음 부산에 왔을 때는 배를 타고 나가 작업을 했다. ‘영도 바다’ 외에도 일본과 서해안으로 물질을 다녀온 경험이 있다[그림 6]. 1~3월은 일본 모집책을 따라 움직였고, 서해 해삼 작업은 4월 10일 정도부터 5월 말까지 했다. 구좌읍 종달리 출신의 고금순 해녀(1953년생·2022년 면담)와 하도리 출신 김정생 해녀(1947년생·2022년 면담), 평대리 출신 부축생 해녀(1949년생·2022년 면담), 우도 출신 윤연옥 해녀(74·2022년 면담)는 남편을 따라 부산으로 이주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그림 7-8].

한국전쟁 이후 사회경제적으로 곤궁해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외국으로부터 돈과 기술을 빌려 공업을 육성하게 된다.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얻어다가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을 이용하여 물건을 만들어 수출했다.

1970년대 들어서는 새마을 운동(1970년)과 고속 국도 건설(1970년), 10억 달러 수출 달성(1971년), 산업단지 건설과 근로자 해외 파견, 중화학 공업화 선언(1973년), 최초 고유 모델 자동차 생산(1975년) 등 노동과 기술집약적 산업이 발달하게 되고 사람과 자본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다. 일차산업 집중 구조인 제주에서는 일자리 부족과 저임금 문제가 나타나게 됐고, 제주에서 일을 구하지 못한 남자들이 육지로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면서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면담한 해녀들은 남편들이 외항선을 타고 다른 나라로 간 사이 가게 보탬과 여유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물질을 했다고 말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텃세가 심

해서 숨어서 몰래 물질을 했다. 부측생 해녀(1949년생)는 청학동에서 물질을 했다. 2년 정도 몰래 작업을 하거나 멀리 떨어진 용호동까지 가서 작업을 했다.



[그림 9. 제주 출신 부산 영도 해녀들이 물질 후 해산물을 손질하고 있다. 2022.11.17. 촬영]

부산영도해녀문화전시관 조성 이후인 2019년에도 비슷한 일이 생겼다. 전시관이 동삼어촌계 부지에 지어지면서 남향어촌계 해녀들이 수산물판매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동삼어촌계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 어촌계 가입까지는 했지만 해녀회에서는 받아주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남향어촌계 해녀 중 일부가 작업을 포기하고 바다를 떠났다. 동삼어촌계 가입을 포기하고 개별 작업을 하는 해녀도 있다고 했다[그림 9]. 부산시가 2021년 12월 실시한 조사에서 영도구 해녀는 동삼어촌계 97명, 남향어촌계 19명 등 116명이다.

원래 동삼어촌계 소속이었던 최동식 해녀(1956년생·2022년 면담)는 부산 이주 3세대다[그림 10]. 외할머니가 풍선을 타고 부산까지 건너와 정착했는데 해녀는 아니었다고 기억했다. 부산 태종대에서 최동식 해녀의 어머니(작고·1926년생)를 낳았다. 부산에서 태어난 어머니는 해녀 일을 얼마 정도 하다가 그만뒀다. 최동식 해녀는 제주 바닷가 마을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동네 갯가에서 놀면서 물질을 배웠다. 18살부터 본격적으로 물질을 하다가 24살에 방직공장에 일을 얻었다. 부산항을 통한 수출이 증가하면서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물질보다 더 벌 수 있다는 말에 해녀를 그만 두는 경우도 많았지만, 최동식 해녀는 공장에서 병을 얻

고 26살에 다시 물질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하고 있다.



[그림 10. 동삼어촌계 총무 최동식 해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제주해녀문화의 특징 중 하나인 ‘공동체’의 존재다. 동아일보 1970년 7월 25일자 6면의 ‘땀 흘리는 한국인’ 해녀 20 ‘제주집’ 기사에는 또 ‘바다가 있는 곳이면 어디나 후조(候鳥·철따라 자기 환경에 맞는 곳으로 살 곳을 옮기며 살아가는 새)처럼 몰려다니는 출가해녀들은 곧잘 동해안 연안에 제주촌을 이룬다’는 사진 설명이 달려있다. 마을까지는 아니지만, 해녀가 있는 곳에서 그들이 모여 살았던 이야기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출가 과정에서부터 무리를 이뤄 서로 의지하고 이동 과정이나 출가지(出稼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했다.¹⁰¹⁾ 2021년과 2022년 조사 과정에서 부산에서 물질을 하고 있는 출가해녀들도 어촌계 외에 부녀회 성격의 잠수회에 가입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주해녀들이 조직을 만드는 이유는 첫째, 해녀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둘째 결혼이나 장례 등의 대소사를 처리할 때 서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셋째 어촌계 등에서의 전달사항을 쉽게 전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입어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부녀회는 부녀회장과 총무를 두고 있다. 하지만 영도 해녀들의 나이가 대부분 많아서 요즘에는 젊은 해녀가 부녀회 회장직을 연임하고 있다.¹⁰²⁾

최동식 해녀(1956년생)는 조사 시점인 2022년 기준 동삼어촌계 총무다. 해녀

101) 제주도문화체육과, 위의 책, 225쪽.

102) 김정하·이종현, 위의 논문, 113쪽.

회 소속 해녀 중 가장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이미 수년째 총무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그림 10].

부산시가 2021년말 기준으로 자체 조사한 나잠어업인은 784명이다. 국가 지역 통계와 별도로 미신고자를 포함해 집계했다. 기장군이 521명으로 가장 많고, 영도구 116명, 해운대구 79명, 사하구 22명인 반면 서구 20명, 남구 14명, 수영구 11명, 강서구는 1명으로 파악됐다. 연령대별로는 신고를 기준으로 60대 이상이 95.8%였다. 신고한 659명 중 70대 이상이 497명으로 74.2%, 60대가 142명으로 21.6%였다. 기장군의 50대 17명, 40대 3명을 제외하면 20·30세대는 단 한 명도 없다.

지금까지 제주해녀의 출가를 부산 영도 해녀 자료와 면담 내용을 통해 살펴본 결과 제주해녀들이 부산 지역으로 출가물질을 나가게 된 이유는 생계유지로 정리할 수 있다.

19세기 말 제주해녀가 출가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었다. ‘한일수호조약(강화도조약)’(1876년) 이후 일본인 잠수기 어업자들이 제주를 포함한 우리나라 연안에 진출해 장비를 이용해 해산물들을 채취하기 시작했고, 제주해녀들이 작업할 수 있는 해산물은 크게 줄어들게 됐다. 생계에 위협을 느낀 제주해녀들은 전도금(선급금)과 채취량에 따른 수익을 담보로 다른 지역에 나가 물질을 하게 됐다. 이 시기 우리나라 해조류의 가치를 알아본 일본 자본가들이 부산에 수산물 유통과 수출을 전담할 부산수산회사를 설립하고 어시장을 만드는 등 해조류 수요가 늘어났고, 이로 인해 해조류 가격이 높아지면서 제주해녀들의 출가가 증가하는 요인이 됐다.

이 같은 상황은 해방 후에도 이어진다. 미역 양식 기술 보급에도 자연산 미역(돌미역)에 대한 수요가 이어졌지만 이를 채취할 수 있는 노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지역들에서 제주해녀들의 노동력을 활용하면서 객주를 통한 출가가 이어지게 됐다. 돌미역 채취는 현재 남아있는 공동어업 행위 중에서도 어촌계원 상호간에 긴밀한 협업을 요구하는 어로공동체 작업이다. 미역바위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채취하여 공평하게 분배하는 방식을 유지하는 어촌이 아직도 많다. 특히 돌미역 채취가 대대적으로 이뤄지는 곳은 동해안이다. 물론 남해안의 통영, 거제 견내량, 여수 거문도, 진도 조도면 독거도·맹골도, 제주도 일대 그리고 흑산도 등지

에서도 돌미역 채취가 이뤄지지만, 강원도 고성·속초·강릉·삼척, 경상북도 울릉도·울진·영덕·포항·경주, 울산광역시, 부산 기장 등 동해안 지역의 돌미역 채취량이 월등히 많다.¹⁰³⁾ 이들 지역은 제주해녀들의 주요 출가 지역과도 상통한다.

부산 기장군은 부산 영도와 더불어 제주해녀 주요 출가지역 중 하나다.

[표 6. 부산광역시 나잠어업(해녀) 현황]

(단위: 명)

지역	2010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합	578	685	751	731	693	684
중구						
서구				5	5	5
동구						
영도구			59	57	57	56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19	19	19	14	14
북구						
해운대구		38	38	38	37	35
사하구		21	22	22	21	22
금정구						
강서구		1	1	1	3	1
연제구						
수영구		14	14	13	13	12
사상구						
기장군		592	598	576	545	539

【출처: 국가통계포털 지역통계, 2021년】

국가통계포털 지역통계(2021년) 자료 기준 539명이던 기장군 해녀는 2022년 부산시 신고 기준으로 521명으로 줄었다[표 6].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이기도 하다. 예전에는 제주 출신 해녀들이 많았지만, 현재는 지역에서 나고 자란 해녀들이 대부분이다. 1962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정으로 기존 행정구역인 理 단위가 아닌 마을 단위로 미역채취 구역이 재분배됐고, 미역양식기술이 보급되면서 어촌

103)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돌미역채취’. 김창일, 「동해안 어촌의 돌미역 채취 방식과 소득분배 방식 비교」, 『비교민속학』 69집, 비교민속학회, 2019, 119~152쪽을 정리해 인용했다.

계 총유로 관리하던 곽암¹⁰⁴)과 달리 양식 어장의 개인 사유가 급진적으로 이루어졌다.

1960년대 말 정부는 시장성과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수협에서 양식장 건설을 지원했다. 1971년에는 어민소득증대 사업의 하나로 강원, 경북, 경남 등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 10여 개의 미역 및 다시마 양식 단지를 신설한다. 1970년대 미역 생산 과잉과 일본의 미역수입 규제로 미역 가격이 폭락하기도 했지만, 부산 기장에서는 염장 미역을 일본으로 꾸준히 수출했다. 미역의 생산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작업방식도 분업화되었다. 양식 미역은 주로 남성들이 채취하고, 자연산 돌미역은 여성들이 도맡아서 채취하는 것으로 구분되며, 해녀들은 기세 작업을 전업으로 삼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¹⁰⁵ 고광민의 현지 조사 자료(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칠암리 제주도 출신 해녀 고○○(1942년생, 여), 29세가 되는 해에 출가해 해녀 작업으로 생계를 꾸리다가 31세가 되는 해에 이 마을 남자와 혼인(婚姻)하였다)를 보면 기장의 미역들(곽암)의 ‘곽주’들은 미역과 참물(모자반)만 소유하였고, 그 이외 해산물은 제주도 출신 해녀들이 자유롭게 딸 수 있었다. 음력 5월부터 8월까지의 우뭇가사리를 따다. 음력 9월부터 10월까지의 성계와 도박을 따다. 동짓달과 선달에는 해삼을 잡았다.¹⁰⁶

기장군 1세대 해녀들은 미역 작업과 관련한 내용보다는 해산물 채취로 돈을 모았고, 직접 제주에서 해녀를 모집하기도 했었다. 2019년부터 2년여에 걸쳐 기장군 1세대 해녀들을 취재한 김여나·황현일의 기록¹⁰⁷)에서 이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제주 출향해녀 2세대 김정자 기장읍 신암어촌계 해녀회장(1948년생·2020년 조사)은 기장군으로 출가한 제주 출신 어머니로부터 물질을 배웠다. 어머니는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출신 한철녀 해녀로 1998년 2월 7일 작고했다. 기장군 1세대

104)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자연산 미역이 자라는 ‘미역바위’를 뜻하는 일반명사.

105) 박혜영. 「기술변동에 따른 미역 인공양식의 확산과 어민들의 생업전략 - 부산 ‘기장미역’을 중심으로」, 『실천민속학 연구』 28호, 2016, 47~94쪽 정리.

106) 고광민 ‘제주의 생활사’ (4)두모악-‘두모악’(頭毛岳)은 동해안 갯마을에 살았던 제주도 해녀들이었다 중, 제주의 소리, 2022.12.8.자,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10181>

107) 김여나·황현일, 『나는 해녀다-기장군 1세대 해녀 자서전』, 기장군. 도서출판 참놀, 2022. 동화작가인 김여나와 기장군보 편집장인 황현일 사진작가는 2020·2021년 기장군내 18개 어촌계를 돌며 1920년대와 1930년대 출생한 기장 1세대 해녀 6명을 취재해 정리했다.

해녀인 한철녀는 18살에 언니 둘과 일본 출가물질을 갔다가 기장 신암마을 출신의 남편을 만났다.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먼저 귀국했던 남편이 고향에서 다른 여성과 결혼을 했지만, 임신하는 바람에 신암마을에 정착하게 됐다. 신암 바다는 해산물이 풍부했지만, 작업을 할 사람이 없어 한철녀 해녀는 매년 봄마다 제주에서 해녀 열댓 명을 모집해 왔다. 이후 울산과 부산 영도와 다대포, 기장군 갯가 등에 제주해녀를 소개하며 ‘해녀 언니’ ‘해녀 스승’으로 불렸다.

구좌읍 하도리 출신 김복례 해녀(1926년생·2020년 조사)는 열세 살에 물질을 배웠고 열아홉에 결혼을 하지만 뒤늦게 가정이 있는 남성인 것을 알고 홀로 물질로 생계를 유지하며 아들을 키웠다. 아픈 아들의 병원비를 모으기 위해 해녀 열네 명과 발동선을 타고 부산 기장군 신암마을까지 왔다. 3개월 계약 기간이 끝난 뒤 다른 해녀들은 귀향했지만 김복례 해녀는 한철녀 해녀의 도움으로 현지에 남았다. 이후 한철녀 해녀의 뒤를 이어 해녀 스승으로 물질을 가르치며 78살까지 바다에 나갔다.

한림읍 금능리 출신 고순임 해녀(1929년생·2021년 조사)는 열다섯 살에 어머니에게 물질을 배웠고 스무 살에 울산 당포로 출가했다. 바다에 해산물이 적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참에 신암마을에서 온 해녀를 따라 작업 지역을 옮겼다. 이후 70살까지 물질을 했다. ‘물질 짝지’가 있었지만 10여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자연스럽게 바다를 떠나게 됐다.

기장군 1세대 해녀 중 강달선 해녀(1937년생·2021년 조사)의 출가 사연에서는 해방을 전후한 시기 제주해녀의 지위를 살펴볼 수 있었다. 충무 용초 출신인 강달선 해녀는 여덟 살이던 1945년 제주 우도해녀의 수양딸이 됐다. 당시 용초로 출가한 해녀들이 물질을 해 돈을 버는 것을 본 어머니가 여동생과 강달선 해녀를 차례로 제주도 해녀에게 수양딸로 보냈다고 했다. 강달선 해녀는 양어머니가 물질하는 동안 아기를 업고 집안일과 농사일을 도우며 10년 정도 바닷일을 배웠고 스물한 살에 신암마을 출가해녀 모집에 응해 해녀 열댓 명과 발동선을 탔다. 스물일곱에 결혼을 하고 1969년께 철공소에서 일하겠다는 남편을 따라 부산으로 거주지를 옮기지만 탄살림을 차린 남편을 피해 다시 신암마을로 돌아왔다. ‘해녀 대장’으로 서암과 동암, 공수, 송정 등 부산 바다를 돌며 작업을 했다.

남원읍 태흥리 출신의 오정자 해녀(1934년생·2021년 조사)는 4·3과 한국전쟁

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밭에 굴을 파서 숨어 살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고구마·조·메밀 농사를 돕느라 물질을 배우지는 못했지만, 새어머니의 구박을 피해 열아홉 살(1953년)에 해녀 모집을 하는 객주를 따라 기장군 신암마을로 왔다. 방을 얻어 함께 살던 해녀 세 명의 어깨너머 물질을 익히고 우뚝가사리와 도박을 뜯었다. 여름 작업을 마친 해녀들이 제주로 돌아갈 때 따라가지 않고 정착했다.

이옥희 해녀(1936년생·2021년 조사)는 김녕 출신 부모가 울산 방어진으로 이주한 뒤 그곳에서 태어났다. 열다섯 살에 어머니로부터 물질을 배웠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가게를 돕기 위해 기장군 신암마을에 왔다. 제주에서 온 해녀 열명과 방을 얻어 함께 지냈다. 부지런히 돈을 모아 고깃배를 샀고 이후 계속 큰 배로 바꾸며 성공한 사업가로 소문이 났지만 1989년 선원 사망사고로 큰 빚을 지게 되며 사실상 바다를 떠났다. 지금은 15년째 천지슈퍼를 운영하고 있다.

기장군 1세대 해녀들은 처음 부산 영도로 출가물질을 갔던 해녀들과 마찬가지로 10~15명 정도 동아리를 이뤄 이동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물질을 나갔다가 옮기거나 또는 이미 출향한 부모의 영향으로 기장군까지 간 경우들로 볼 수 있다. 돈벌이가 목적이었으며 광복 후 한국전쟁을 전후한 곤궁했던 사정을 피해 출가지역 정착을 선택하기도 했다. 출향 해녀 수가 많지 않은 대신 물질 기술을 가르쳐주는 등 지역 해녀와 서로 의지하는 관계를 형성했다. 해녀공동체 특유의 서열화 및 비공식적 교육 방식은 유지했지만 상·중·하군 등 제주해녀사회에서 사용하는 표현이 사라지고 해녀 스승·해녀 대장·해녀 짝지 등 지역에서 통용되는 말을 쓰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례를 정리해 볼 때 해방 이후 제주해녀들은 물질기술과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진 해산물 거래 구조를 바탕으로 경제력을 유지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산물 채취 작업에 해녀 노동력이 필요해지면서 해방 이전 형태의 객주 중심 모집이 이어졌지만, 같은 방식을 습득한 출향해녀들이 객주가 되는 사례도 있었다. 한국전쟁 이후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국내 사정과 이후 육지부를 중심으로 한 경제발전으로 인한 지역 간 소득 격차도 해녀들의 출가에 영향을 미쳤다. 출가지 정착의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 시기에는 가난을 피해 계속해 출가지를 옮기거나 별다른 연고 없이 출가 후 현지에 남는 경우도 적잖았다.

1970년대 이후에도 경제적 이유로 출가를 했고, 수산업협동조합법(1967년 제정)에 따른 어업권과 결혼 등으로 현지에 정착하는 사례가 늘었다. 1987년 ‘경향신문’은 부산에서 속초까지 ‘제주해녀촌’이 형성돼 있고, 특히 울산 방어진에는 80여명이 한 마을에 거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림 11].

고향 제주를 떠나 물로 나선 제주해녀들, 이들은 부산에서 속초에 이르기까지 동해안을 따라 곳곳에 ‘해녀촌’을 이루며 강인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은 노파가 된 이 해녀들은 대부분 바닷속에서 캐낸 해물로만 가정을 일궈 자녀들을 대학에까지 보내고 집도 장만하는 등 물에 새로운 해녀 풍속을 이식시키고 있다.

경북 울산의 방어진에는 여전히 특유의 제주도 사투리를 쓰는 해녀 80여명이 함께 살고 있다.

대부분 제주도를 떠난지 20~40년씩 되는 이들은 물에서 자리를 잡았다고 ‘정착해녀’로 불린다.

방어진 동진부락에서 최고령 정착해녀는 현경순 할머니(68)로 일제 말기인 지난 41년 고향인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을 떠나 시고모가 있던 울산으로 왔다고,

“일제말 공출이 너무 심해서 만아들과 함께 고향 제주도를 떠났다”는 현 할머니는 “뼈를 고향에 묻는 것이 소원”이라며 요즘도 6m 아래 물속에서 해초를 따고 있다. 물로 나온 해녀들은 고향에서 익힌 기술 덕분에 한때는 생활이 괜찮았지만 양식장이 늘고 울산의 경우 현대그룹 계열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급속도로 사양길을 걷게 되었다.

역시 제주 성산읍이 고향이라는 오금수씨(45)는 “제주해녀들은 생활력이 남달리 강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식들 공부시키고 살림을 늘려 왔다”며 “그러나 물이 오염되고 노쇠한 몸때문에 생활에 여유가 없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이곳의 최연소 해녀가 28세이고 ‘견습해녀’는 거의 없어 제주해녀는 물론, 해녀라는 직종도 가까운 시일 내에 없어질 것으로 보였다.

제주 출신의 정착해녀는 동해만을 거슬러 올라가 속초에도 아직 남아있다.

속초 최초의 해녀인 김만순 할머니(72)는 26년 전 제주처녀를 물로 데려와 해물을 따게 하고 임금을 주던 소위 ‘선두(船頭)’가 돈을 떼먹고 달아나는 바람에 그대로 눌러앉은 경우,

그녀는 “한때는 수입도 괜찮다고 하여 물로 나온 해녀들이 속초에 만 1백명이 넘었지만 살기가 훨씬 좋아진 제주도로 대부분 다시 돌아갔다”면서 “나도 따라가야 할 텐데...”라면서 말끝을 흐렸다.

해녀들은 웬만한 파도나 추위에는 만성이 되어 있고 대개 상오 9시경부터 하오 5시까지 점심도 거른 채 계속 물질을 한다.

10여 년 전부터 나온 고무 잠수복 덕분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지만 병의 원인이 되고 있고 가라앉기 위해서 허리에 차는 5kg 정도의 납덩이가 몸을 죄는 괴로움도 있다.

비록 몸은 물에 있지만 제주해녀들은 가끔씩 한 자리에 모이게 되면 ‘이야도 산아 이야도 산아, 유패타고 어벨가꼬/진도 바당 골로 가자/이목저목 홀돌 목에 닥쳤구나해야/이야도 산아 이야도산

아' 라는 옛노래를 부르면서 수구초심을 달란다.<속초·울산=장화경 기자> (경향신문 1987년 10월 5일자)



[그림 11. 동해안의 제주해녀촌 - 경향신문 1987년 10월 5일자]

경향신문의 기사 내용은 해방 직후 출가한 해녀들의 현지 정착을 다루고 있다. 해산물 채취를 위해 동해안으로 출가한 해녀들이 제주에서 배운 물질로 가게를 지탱하는 것을 지역에는 없던 '새로운 풍속'으로 살폈는가 하면 모여서 해녀노래를 부르는 등 공동체 성격을 유지하며 마을을 이루고 있는 상황을 살폈다. 출향하게 된 이유는 다르지만 '동향'이라는 것만으로도 의지하고 고�령에도 바다에 나가 물질을 하는 강인한 삶을 다루면서 비슷한 사례가 부산에서 속초까지 동해안을 따라 확인된다고 기술하고 있는 등 제주해녀들의 출가와 정착 배경을 일정 부분 정리할 수 있다.

2) 국외 출가

제주해녀의 국외출가 이동경로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물질을 다녀온 강예길 할머니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한다.

제한된 제보자만을 대상으로 당시 국외출가 상황을 일반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해녀들은 출가 과정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질작업도 동아리를 이루어 함께 나가기 때문에 물질 습속이나 생활상은 대체로 공동의 체험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일반화가 가능하다고 보기도 한다.¹⁰⁸⁾

김영돈·고광민은 『제주의 해녀』(1996)¹⁰⁹⁾에서 출가물질에 대해 “제주해녀들의 行動 半徑은 썩 널찍했다. 물질이 이뤄질 만한 한반도 연안 곳곳과 크고 작은 섬으로 이르지 않은 곳이 없었는가 하면, 일본·중국·러시아 등 동북아시아 일대의 여러 나라에까지 폭넓게 뻗었다. 이는 곧 부딪힌 어려움의 부피가 한없이 크고 걸머진 삶의 무게가 엄청나게 육중하다 하더라도 결코 이를 외면함이 없이 까무러치지 않고 정면으로 생활을 개척하려는 튼실한 의지”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어 “현지 조사에 뛰어들어 보면 일본 물질을 다녀온 해녀들은 어렵잖게 발견된다. 광복 때까지 해마다 1천 수백명씩 일본을 드나들 만큼 일본 물질은 극성스러웠고, 그 수요도 흔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칭따오(靑島)·따리엔(大連) 등 중국이나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러시아로 물질 나가는 일은 드물었으며, 그 곳을 다녀온 해녀들도 만나보기 어렵다”고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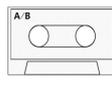
제주도 구좌읍 행원리 출신인 강예길 할머니(1989년 별세)에 대한 조사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물질을 다녀온 해녀로 유일하게 이름이 남아있다[그림 12]. 1994년 제주도(특별자치도 지정 이전)가 제주 출신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집대성한 『제주의 민속』 시리즈 II권 「생업기술·공예기술」¹¹⁰⁾과 김영돈이 1999년 펴낸 『한국의 해녀』¹¹¹⁾에도 같은 사연이 정리돼 있다.

108) 이성훈, 「해녀노젓는소리 연구」, 송실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2007, 226쪽.

109) 김영돈·고광민·한림화·강만보, 『제주의 해녀』, 제주도, 1996, 466~468쪽.

110) 제주도문화체육과, 『제주의 민속2 : 생업기술·공예기술』, 제주도, 1994, 248~250쪽.

111) 김영돈, 『한국의 해녀』, 민속원, 1999, 414~416쪽.

오성찬 기증 구술 자료 목록				
연번	테이프 표제	테이프 속지	테이프 본체	기존 정리 내용(별지)
				
455	오장촌(吳張所)씨 인터뷰		A면 : 오장촌(吳張所)씨 인터뷰	기타 대담 오영조
456	박용직(朴隆職)의 고향이야기		A면 : 박용직(朴隆職)(재일동포-在日同胞)고향이야기	기타 고향생각 박용숙
457	고봉옥(高鳳玉)의 생애이야기		A면 : 고봉옥(高鳳玉)생애이야기 3면 : (산년개속)	기타 생애 그분유
458	해녀(海女) 강예길(姜禮吉)의 일생	해녀(海女)강예길(姜禮吉)의 일생	A면 : 해녀(海女)강예길(姜禮吉)의 일생(一生)(88세) 행원리 막내딸 박정자의 집. 1985. 2. 8. 오전	기타 해녀 강예길(88) 35
459	「거멸칭」주변이야기		A면 : 거멸칭 주변 A면 : 1996. 2. 9	기타 거멸칭
460		외세다대(牟橋田大)강연 '96. 2. 9 『제주와 일본의 역사적 관계와 문명적품』	외세다대(牟橋田大) 강연초(抄) B면 : 외세다대(牟橋田大) 강연초(抄) '96. 2. 9 16:00	기타 강연 오성찬, 제주와 일본의 문명적품
461	오사카(大阪), 오승철 int		A면 : 오승철 인터뷰 (일본-日本)	기타 대판여행 오승철 '95

[그림 12. 오성찬 기증 구술자료 목록]

【출처: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이번 논문에서는 오성찬이 1985년 2월 8일 채록한 강예길 해녀 구술 원본[그림 13]을 바탕으로 국외, 특히 블라디보스토크 출가 과정을 살펴보았다. 오성찬은 『제주의 마을』 시리즈를 집필하며 제주 곳곳을 돌아다니며 만난 사람들의 인터뷰·증언채록·녹음테이프 등 자료 521점을 1997년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에 전달했다. 1985년부터 10여년 간 모아온 기록들로 제주도 내 마을의 유래와 민요, 전설 등 제주풍속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들이 대부분이었다. 4·3사건에 대한 주민들의 증언은 물론 시골 노인과 해녀 등 도내 500여 개 마을을 돌며 그동안 만난 사람 수백 명의 구술 자료다.¹¹²⁾

그 안에 강예길 할머니의 구술 자료는 1시간 분량 1개와 10여분 안팎 1개로 총 2개가 남아있다. ‘해녀(海女)’ 강예길(姜禮吉)의 일생(一生)(88세) 행원리 막내딸 박정자의 집. 1985. 2. 8. 오전¹¹³⁾이라고 구분한 자료를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강예길의 정확한 출생 연도는 확인되지 않지만 조사 당시 나이를 감안해 보면 1897년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구좌읍 행원리가 고향이지만 실제 태어난 곳은 부산 해운대다. 구술 내용을 보면 출가물질을 가는 도중 배에서 고사를 지내고 나서 돼지고기를 나눠 먹는 과정에서 ‘강예길’이라는 본명 대신 ‘강해운대’라고 불리는 사연이 나온다. 그렇게 불린 연유가 어머니인 현산옥이 부산으로 출가물

112) 양성철, 10년 모은 민속자료 박물관 기증 오성찬씨, 중앙일보, 1997.2.21.자, <https://www.joo-nyang.co.kr/article/3407050#home> -[중앙일보]

113) 오성찬 기증 구술 자료 목록.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질을 갔다가 산달이 돼 해운대에서 강예길 할머니를 낳았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채록작업을 도운 강예길 할머니의 딸 박정자도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었다.

강예길-(울산 출가물질 가는)배에서 제 지내낭 또 이제 배에서 (돼지를) 잡안 또 배에서 숯양 막
다 깨끗이 숯양 띄 해놓고 해영 제 지내낭 줌녀들 막 보제기 이만큼씩 행 꿰주는데. 먹는 사
람은 먹곡, 멀미하는 사람은 못 먹곡. 멀미를 안합디게 우리는. 멀미를.

오성찬-팔뚝만큼씩 끓었으네

강예길- 멀미하는 사람들은, 나 이름이 본데예, 내 이름이 강예길이우다마는 그뻐 해운대 해운대
해났수다. '아이고 해운대야 나 직시 괴기 먹영 네 저서도라 네 저서도라'

박정자-본명 잘 안부릅니께, 해운대 강해운대

오성찬-해운대렌 한 말은 무슨 말이파

박정자-해운대에서 나부니깐예. 별명이 해운대 해운대. 부산 해운대 마썸.

오성찬-무사 어떻행 해운대에서 났수가

박정자-몰르쿠다. 그자 어머니 별명이 날 때부터 해운대렌헐 이제 지금까지도 해운대, 해운대 합
니다.

오성찬-아버님이 어디 무슨 부산에 사셨구나 마썸

박정자-우리 아버지 마썸?

오성찬-아니 아니 할머니 아버지

박정자-아 어머니가 예

오성찬-어머니가 부산이우파

박정자-옛날도 어머니 물질하레 갔수다. 우리 어머니. 외할머니가

오성찬-외할머니가 물질 갔당 부산에서 남자를 만났구나 마썸

강예길-우리 어머니 물질을 막 일등으로 해났수다

박정자-아니우다. 외할아버지가 행원인디예 행원이라도 외할아버지영 살명 외할머니가 육지 간거
라 마썸 육지로 물질갔당

오성찬-물질갔당 부산에서 났구나 마썸

강예길-야 물질 갈 땐 부산으로

오성찬-게난 만삭 때도 물질을 다닙니까

박정자-물질하당예 달수 차면 거기서 나고

오성찬-외할머니 성함을 아시겠습니까

박정자-어머니 압니다

오성찬-어머니 이름이 무시거파

강예길-우리 어머니말이파. 현산옥이, 현가니까 현산옥이 마썸. 우리 아들이 쇠돌이난 돌아가신디
가 쇠두해라

채록 내용 중 다른 부분에 외할아버지가 선주였다는 대목도 나온다. 제주해녀 출가물질 첫 사례가 '1895년 경상남도'인 점을 감안했을 때 강예길 할머니의 어머니가 부산으로 물질을 나간 것과 시대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출가한 지역에서 출산을 했다는 사실은 제주해녀의 열악한 작업 환경을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제주해녀의 물질이 가정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다 부모나 공동

체에서 배운 지식 외에는 출산 전후 관리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라 해녀들이 출산 직전까지 물질을 했다는 사례는 자주 확인된다.

출가물질이라고 사정은 다르지 않았는데 양석봉 해녀(1930년생·우도 출신)는 제주여성특별위원회가 진행한 생애사 조사에서 “...난 그냥 나대로 낫주(출산). 육지서도 나대로 그냥 나고. 난 아기냥(아기낳고) 3일 뉘넌 물질 허래 다녀서...그땐 죽지 안허믄 살기로 험 거난 험 거지. 하루라도 물에 안 들어 가믄 아기들 굶영 죽을 건디”라고 구술하기도 했다.¹¹⁴⁾ 이화자 해녀(1928년생·구좌읍 세화리 출신)도 한국전쟁 이후 부산 영도에 살면서 물질을 하던 중 임신한 상태로 전라도 남섬으로 출가를 갔는데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물에 못 들어가 떨고 있는 자신을 선장이 바다에 밀어 넣어 고생했다는 기억을 말했다.¹¹⁵⁾

이동 수단의 제약도 있었지만 모집 형태로 출가를 하면서 계약기간에 묶인 사정 역시 출가지 출산을 불가피하게 했다. 고향 해녀(1927년생·남원읍 태흥리 출신)은 27살이 되던 해 거제 지심도(동백섬)까지 가 물질을 했는데 울산 방어진 살던 고모가 찾아와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인술자가 “계약으로 데려온 해녀는 가족이 와도 보내줄 수 없다”고 실랑이를 했었다는 경험을 전하기도 했다.¹¹⁶⁾

강예길 할머니는 10살부터 물질을 시작해 13살 이후부터는 상군 노릇을 했다. 갑장들과는 이미 차이가 컸고 30~40대 해녀들이 고동(소라)을 잡을 때 생복을 찾을 정도로 실력이 좋았다. 평균 열두 질¹¹⁷⁾ 정도 깊은 물에서도 작업을 했다.

출가물질은 17살이던 1914년 부산 목섬(목도)로 갔는데 소섬(우도)와 성산읍 시흥리, 구좌읍 김녕에서 온 해녀배 23척이 정박해 작업을 했다고 기억했다. 선주였던 아버지가 부산으로 가 일본 상인과 일본 상인과 거래하는 객주에게 우뚝 가사리를 팔았다. 강예길 할머니는 나이와 관계없이 상군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여러 곳으로 출가물질을 갔다.

오성찬-계난 그 물질에 바다에 몇 질까지 들어가잡디가.

강예길-아이그 열두질까지 들어잡니다. 여 청진도 가난 10명 갔자 물에 못 들어간 난 계난 수심

114) 김순자 외, 「제주여성의 생애-살았지만 살았주」, 『제주여성 근·현대사 구술자료Ⅱ』, 제주여성특별위원회, 2006, 117쪽.

115) 고영자·김은희·안미정·양영자·고수미, 『숨비질 배왕 놉주지 아녀-제주해녀 생애사 조사 보고서』, 제주도, 2014, 199쪽.

116) 고영자·김은희·안미정·양영자·고수미, 위의 책, 2014, 303쪽.

117) 해녀들은 물질을 위해 잠수를 할 때 발을 차는 동작을 하는 것으로 기술 정도를 가늠한다. 대체로 ‘발’을 단위로 표현하는데 강예길 할머니는 ‘질’과 혼용해 사용했다. 전체 구술 내용을 보면 평균 열 발 이상 잠수를 했던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을 게나네 아홉발 열발 한디 수십 재영 그 합저¹¹⁸⁾ 배있는 데까지 해. 어떤 놈이 이룬데 오란 니네 이런 합저 100명 오라도 저 합저 조무는 즈녀가 없는디 니넨 어리석텐 이리 이 바당에 갔다왔네 영 험난 우리가 '깊어도 우리가 하쿠다'행 배가 막 합저 잡젠 줄줄이 줄줄이 막 땀나게. 막 그냥 여기 섰다가 저기 섰다가 배가 줄줄이 우리배로 신겨주라 우리 배로 신겨주라. 그 때 나이가 스물 네 살, 스물 다섯 살 때 노국까지 가십주.

오성찬-그때가 육지 간계 처음이파.

강예길-어이구.

오성찬-처음엔 몇 살에 갔수과.

강예길-처음 17살에부터 여기 경상도. 부산, 부산 알더래. 부산 울산이렌도 하고 경상도라고도 하고. 울산 월산면. 아버지가 배입자, 배 해노니까 물건을 부산오랑 풀니께 우미랑 도박. ...삼십 울산 강산에 오륙 따라서 삼십삼포구에 ***^(배 이름 추정)생이렌 해났수다. 초용¹¹⁹⁾으로 갔덴 허영예.

일제강점기 풍선을 이용한 출가 과정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영등달¹²⁰⁾ 보름에서 그믐 사이, 늦어지면 3월 초닷새에 출발하는 일정으로 부산으로 출가했다. 바람을 잘 만나면 사흘이면 가는 길을 하늬바람이 불면 13일 정도, 셋바람이 불면 바람을 피해 포구 좋은 곳에 정박했다가 이동하면서 15일 이상 20일 가까이 걸렸다.

강예길 할머니는 1920년대 초반 스물네 살과 스물다섯 살 두 해 동안 청진으로 출가물질을 나가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다녀왔다. 1920년대는 역사적으로 일제의 사회·경제적 수탈이 심화했던 시기로 출가한 해녀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대신에 작업할 지역을 찾아 이동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청진은 1913년 일제에 의해 최대 철광석 산지인 무산광산이 개발되면서 일본은 물론 중국 자본도 유입되면서 도시가 성장했고 자연스럽게 경제활동도 활발해졌다.

강예길 할머니는 부산으로 출가한 뒤 다시 기선(입신환·군두환)을 타고 청진으로 이동하였다. 미역과 성게 가격이 좋아서 3개월 정도 작업을 하기로 하고 출가했다. 기선을 이용했지만 가는 데만 닷새가 걸렸다. 같이 간 해녀들과 집을 빌려서 살면서 물질을 했는데 현지에서 거래를 하는 사람 중에는 김녕과 대정, 가과

118) 구술 내용 중에 강예길 할머니는 합저와 합제를 혼용해 사용했다. 여기서 등장하는 합저(제)는 홍합으로 '합자(蛤子)'라는 한문 표기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 구술 인용 외의 표기는 홍합으로 통일해 사용한다.

119) 첫 출가물질을 이르는 제주어.

120) 음력 2월1일~2월15일(양력 3월17일~3월31일)

도 등 제주 출신이 많았던 거로 기억했다. 북쪽 지역이라 4월도 눈이 있었다.

미역은 한 달 정도 작업을 했고 나머지는 대구를 낚는데 쓰는 미끼용 홍합을 채취했는데 깊은 바다에서 작업을 해야 했지만, 돈벌이가 됐다. 홍합 작업은 3개월여에 걸쳐 진행했다. 성계도 많이 잡혔는데 강예길 할머니는 보통 해녀들이 하루 한 통 작업할 때 다섯 여섯 통씩 작업할 만큼 실력이 좋았다고 했다.

강예길 할머니는 “가루사탕 담아난 거 이십디게 왜정시대에. 그거를 비닐 깔아난 알맹이를 물에 잘 씻어서 잔소금 채에 놔서 뿌리고 간즈메에 담아난 일본 드레도 보내고 청진 드레도 보내고. 줌너들은 검은 성계가 들어갑니다. 그걸 전주 가 다 골랑 간즈메 만드는 옆에 따로 골라났다. 살이 검은 건 돈을 안줍니다. 그거 골라난 반찬해 먹으라고 나눠줘서 젓 담양 먹으면 들끓었다”고 말했다.

제주해녀의 청진 출가물길은 일제강점기 후반에도 이뤄졌는데 1940년대에는 일본 서해안 항구들, 북해도의 삿포로(札幌)로부터, 하코다테(函館), 니가타(新潟), 시모노세키(下館), 오사카(大阪)까지 연결하는 항로를 확보했다. 일제가 세운 만주국(1931~1945) 수도新京(新京), 현재 중국 지린성(吉林省)의 성도인 창춘(長春)을 연결하는 항로도 있었다.

강은자 해녀(1935년생·한림읍 비양리 출신)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나 해방 되던 해인 1945년 국민학교를 졸업했다. 1940년대 청진에 제주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마을 이루고 살았는데 남자들은 고기잡이를 하고 여자들을 물질을 하면서 생계를 이었던 것으로 기억했다. 해방 후 혼란기에 기차를 타고 평양, 사리원까지 이동한 뒤 서해안을 따라 걸어서 이동하다 제주 출신에, 북에서 넘어왔다는 이유로 수용소 생활을 하고 가까스로 부산 영도에 있는 친척을 찾아 제주로 올 수 있었던 사연을 가지고 있었다.¹²¹⁾

지난 2011년 제4회 제주해녀축제에 참가했던 김순덕 해녀(당시 89세)는 청진 출가 후 중국 지린성 창춘시로 출향한 생애사를 가지고 있었다. 17살이던 1939년 청진에 소재한 일본 회사의 제주해녀 모집으로 출가했다. 당시 청진에 제주해녀가 많았고 성계와 미역 작업을 했다고 구술했다. 1962년엔 북송선을 타고 온 재일동포 중 제주 출신 해녀들과 작업을 하기도 했다. 중국인 남편과 결혼했지만,

121) 고영자·김은희·안미정·양영자·고수미, 위의 책, 69~70쪽.

북한 국적을 가지고 있어 가족들과 떨어져 살다가 1967년에야 중국으로 이주했다. 큰 딸인 진향림이 지린성 가무극원 예술총감 및 교장으로 활동하는 등 지역에서 활약하면서 1990년 한국을 방문했고, 어머니가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애쓰며 70여년 만에 귀향이 성사됐다. 제주에서 출가하며 가지고 간 물질도구(눈)를 제주해녀박물관에 기증하기도 했다.¹²²⁾

강예길 할머니는 사공이던 사촌(고모 아들·오빠)의 주선으로 블라디보스토크로 출가했다. 블라디보스토크에는 해녀 열세 명이 함께 갔는데 늦은 봄에 가서 석달 동안 살다가 돌아오는 일정이었다. 청진에서 배를 빌려 두만강을 건넜다. 강예길 할머니는 풍선으로 두만강을 건너는 것만 3일 정도 걸렸다고 기억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곰포(다시마)를 채취했다. 품에 안고 나오려고 해도 자꾸만 미끄러져서 왕대를 잘라 건져내듯이 작업을 했다. 15일 정도 작업을 했는데 국내 출가와와는 달리 낚선 데다 현지 도적들이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고 밤낮없이 들리는 짐승 울음소리 때문에도 오래 머물기는 어려웠다고 했다.

“저 노국, 총소리, 밤에 누워시면 와당탕 와당탕 총소리. 껍 소리 또 막 그냥 밤중에 누워시면 그 여름이나넌 마당에들 줘너 열세이여 사공 서이에 누워시든 또 총소리가 와당탕 와당탕 와당탕. 또 막 노루사슴은 무사 경 만나카. 노루사슴 소리도 못 자쿱디게....청진서 풍선, 풍선으로 두만강 넘어간. 저 막 먼디 막 풍선으로 한 사흘이나 들어야. 남저, 우리 고모 아들이 우릴 데려가십주. 청진 간 풍선을 산 마썸. 총소리에 무서웁디다. 총소리에. 계믄 **에서 통계가 읍니께 노국갈 때. 어느 마을에서 이제 노국 사람이고 대국 사람이고 이제 돈을 메영 놔두라. 우리가 어느날 며틀 갈게니까니 돈을 행 놔두라 영하믄. 그 **에선 딱시 이젠 아편장사들 하젠 청진에서 막 들어갑니께, 경 들어강 그때 왜정이실 때난예 경 들어강허믄. 그에 이제 또 연락을 하면 또 우리신드레 연락이 오라마썸. 아이고 보따리 다 모살 소곱에 다 파묻고. 풀 소곱에 몇 시간 곱앗당 나오고 포대기도 막 모살 다 묻고. 어디 갈 디가 아닙디다....돈 모으랜 한 사람들은 다 도둑들. 서로들 노립디다. 우리배 가가난 우리배가 좀네 몇개 신그고 사촌오라방까지 서이행 가가난 그놈들은 우릴 이젠 도둑 심으러 다니는 배여행 노래영....경행 열흘 보름 물질행 그냥 아이 조선 나가켄, 청진 나가켄. 경헨 오라방 오빠신디 생 야단, 영 흔디 우리신경 왔덴 막 생야단헨난 스무날 살앙 풍선이 그 물건, 물건은 곰포마썸. 발로 서발, 뽕으로 서뽕마썸. 우리 오라바님이 키가 크우다게. 그 어른 뽕으로 너비가 서뽕, 발로가 서발 두발가왕. 제일 짤룬게 두발마썸. 곰포 곰포. 곰포가

122) 고미, ‘잠녀의 삶 역사와 문화가 되다-중국 길림성 거주 제주출신 김순덕 잠녀 할머니 제4회 해녀축제 참가’, 제민일보, 2011.10.15.-[제민일보]
 허영선, 허영선이 만난 사람-제주출신 중국동포 해녀 김순덕·무용가 진향란 모녀, 제민일보, 2011.10.28, -[제민일보]

일본사람들 큰 반찬, 좋은 반찬입니다. 다시마. 경행 막 그것을 한아름 안양 나오려고 하면 소록 소록 소록소록 골라정. 영 뒤트레 바래면 바로 이 듬북튼게라 마썸. 경허난 배에서 대가 막 그 왕대가 흐 몇 개씩 올라강 왕대 그찬강 물아래 쏙 질레줍네다. 질레주면 이제 호미 요 물건 영 안은들로 요 손으로 이제 대를 영 붙잡으른 배에서 우긋하게 들려주면. 뒤터레 바래보른 바로 큰 듬북튼게라 번번한. 경헨 보름 물질헨 그냥 청진 나오란...우리고라 제주 사람이렌 '남도 나그네' '남도 나그네'라고. 세수하젠 보난 여기 동구새끼 대동대동 다 돌아전. 경허난 8월 그름에 오난 마산이라는 섬이십디다. 거기서 합저값 몬 쳐징. 아이고 땡겨난디 말할 수가 어수다, 나중에는. 젊을 때민 사람이주 늘그민 귀신이우다 귀신. 몸이 늘거지난 귀막아 눈어두거가 말 못 알아들어."

강예길 할머니는 블라디보스토크 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는 물론 일본까지 건너가 물질을 했다.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전라도 지역으로도 물질을 나가기도 했고, 아들이 군대에 입대했을 때는 강원도로 출가를 했다. 일본 물질은 50대에 했는데 한국전쟁을 전후했던 시기였다. 쓰시마에 가 작업을 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현해탄 건너 쓰시마와 오사카, 도쿄, 시코쿠 남부 코우치켄까지 가서 물질을 했다.

나광 벗해난 사람들 행원 사람들 몬 죽영...일본 대마도까지가고 저 대판까지 저 동경까지, 고지 현까지. 나 발자국 아니흔디가 어수다...53에 일본터레 가정 벌어당 아이들 공부들 시키고 허젠 대마도 물질, 거저 두어덜해서.

강예길 할머니는 출가물질을 다니면서 우리말 외에 러시아어와 중국어, 일본어까지 3개 국어를 구사했다. 종종 출가해녀들의 '대장' 역할을 맡곤 했는데 물질 실력이 좋아 선주들도 함부로 할 수 없었고 함께 출가에 나선 해녀들이 의지할 수 있을 만큼 경험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젊은 시절 출가를 했을 때는 출가지역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희롱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해녀들이 힘을 모아 대응했다. 그렇다고 해녀들의 출가나 노동을 무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했다. 강예길 할머니는 자신이 열여덟, 열아홉 살이던 무렵 부산에서 물질을 할 때 지역 청년이 술을 마시고 추태를 부리자 해녀들 여남은 명이 모여 힘으로 제압했고, 그것을 본 다른 청년들이 와서 '제주 해녀들은 돈을 벌어서 다 부모들 어린 동생들을 키우고 한다는 말을 다 들었다. 너가 이런 행동을 해서 동네 평판을 나쁘게 했다'고 말렸던 일화를 말하기도 했다.

강예길 할머니는 76세까지 테왁을 메고 바다에 갔다. 깊은 물은 힘들었지만

어린 해녀들과 낚시질을 했다. 79세에는 아무리 힘을 쥐도 몸이 뚱뚱 뚱뚱했다. 고무 옷을 입지 않고 자력으로 물질을 했던 터라 “자꾸만 머리가 위로 올라가서” 그만뒀다.

제주해녀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만이 아니라 중국의 칭타오(淸島)와 다롄(大連)까지 출가했다. 이중 칭타오는 미역밭을 의도적으로 조성해서 집단으로 출가를 나갔다는 점에서 유다르다.¹²³⁾ 칭타오 출가물질은 문덕진이란 사람이 칭타오에 미역밭을 조성하면서 성사됐다고 한다. 문씨를 도와 일을 했던 강로찬씨를 면담 조사¹²⁴⁾한 내용을 보면 문덕진은 일제강점기 원산에서 사업을 하다 실패하고, 부산에서 운영하던 여관을 화재로 잃고 나서 일본 쓰시마(대마도)로 건너가 몇 년 해산물 가공업에 손을 댔지만, 다시 화재로 실패했다. 이후 중국 칭타오로 건너갔다가 바다에 우뚝가사리가 많이 나지만 제대로 수확하지 못하는 데다 미역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제주에서 미역 포자가 자라는 돌들을 칭타오 바다로 옮겨 키울 계획을 세운다. 1933년 사업을 본격화해 2년 후 전복 양식은 실패하고 미역은 채취할 만큼 키웠다. 또 미역을 채취할 수 있는 어업권을 당시 그곳을 점령한 일본으로부터 획득했다. 구좌읍 종달리와 성산읍 고성리, 한경면 용수리, 안덕면 사계리, 표선면 표선리와 우도면 상군 해녀를 80명 정도를 모집해 전도금(前渡金)을 주고 중국으로 데려갔다. 칭타오를 드나드는 데에는 18t의 발동선을 이용했는데 평균 55시간 정도 걸렸다.

칭타오로 출가물질을 나간 제주해녀들은 5월에 이동해 8월 추석 전에는 고향에 돌아왔다. 칭타오로 나간 해녀들에 대한 대우는 극진했고 귀향할 때는 각각 300원의 목돈을 쥐고 돌아왔다. 당시 소학교 교사 봉급이 40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돈벌이가 됐다. 칭타오 물질은 광복으로 중단하게 됐다.

중국 다롄으로 출가물질을 다녀왔다는 김효형 해녀의 기록¹²⁵⁾도 흥미롭다. 1985년 조사에서 김효형 해녀는 경상북도(울산·당포·서성·강구·구룡포)·전라남도(욕지도·소리도·우왕리·보길도)·충청남도·황해도 등에서 출가물질을 했다고 말했다. 일본 쓰시마(대마도)와 중국 다롄까지 동북아시아 세 나라를 두루 거쳤다. 중

123) 제주도문화체육과, 『제주의 민속2 : 생업기술·공예기술』, 제주도, 1994, 251쪽.

124) 제주도문화체육과, 위의 책, 251쪽. 김영돈·고광민이 공동집필한 『제주의 해녀』(1996)와 김영돈의 『한국의 해녀』(1999)에도 관련 내용이 나온다.

125) 제주도문화체육과, 위의 책, 261쪽.

국 다렌으로 출가물질을 간 것은 김효형 해녀가 35살이던 1941년이였다. 일제가 중국을 군사점령(1940년)한 직후여서 개별적인 출가물질은 힘들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 출신 인솔자를 따라 돛배를 타고 황해도로 건너갔고, 황해도를 근거지로 물질을 하다가 음력 5월경 다렌으로 물질을 갔고 밤이 되면 다시 황해도로 돌아오는 형식으로 작업을 했다. 황해도에는 전복 작업만 했고 음력 7월에 마감했다. 황해도와 다렌은 모두 ‘난바르’(뱃물질)였다. 다렌 물질을 마치고 나서는 황해도와 충청남도 앞바다를 이리저리 돌면서 난바르 물질을 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강예길 할머니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출가물질을 가게 된 동기는 돈을 벌기 위해서였다. 일제강점기 일본 잠수기선의 제주해안 잠식과 수탈이 심해지면서 제주에서는 생계유지가 어려웠던 사정이 계속해 출가지역을 확대하게 했다.

강예길 할머니는 제주해녀의 첫 국내 출가지역이었던 경상도 부산 해운대에 서 1897년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해녀의 첫 국내 출가 시점을 1890년대 후반이라고 봤을 때 해녀였던 어머니가 부산으로 출가해 출가지역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3살부터 상군 노릇을 했던 강예길 할머니는 물질 실력이 좋은데다 선주였던 아버지를 따라 17살 때부터 출가를 했다. 처음 출가지역은 부산 목도(지금의 영도)였지만 이어 울산, 청진 등 동해안을 따라 출가했다. 울산 출가 때는 풍선을 이용해 배에서 고사를 지내고, 노를 저었던 기억을 했고, 청진 출가는 부산에서 기선을 타고 이동했다고 말했다.

블라디보스토크 물질 시기는 기록자에 따라 편차가 있다. 『제주의 민속』 시리즈 Ⅱ권 「생업기술·공예기술」과 Ⅲ권 「의·식·주 문화」(1994)와 『한국의 해녀』(1999)에는 스무 살과 스물한 살에 블라디보스토크에 출가물질을 갔다는 내용이 정리됐지만, 오성찬의 구술 채록 자료에는 스물네 살·스물다섯 살로 4년 정도 편차가 난다. 일본인들이 선호하는 곱포(다시마)채취가 목적이었고 북쪽이라 날이 추워 늦은 봄에 건너가 석 달 정도 작업을 했다.

강예길 할머니는 블라디보스토크 만이 아니라 50대에 일본 출가물질을 하는데 이 시기는 한국전쟁을 전후해 제주를 비롯한 전국이 전란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였다. 돈을 벌기 위해 전국 각지는 물론 일본 동부 시코쿠 남부의 고치현까지 출가물질을 했다.

중국 출가물질은 제주에서 해녀를 모집해 칭따오와 다렌을 이동하는 형태였는데 1940년을 전후해 일본이 중국을 군사 점령해 장악하면서 어업권을 엄격하게 행사했던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IV. 제주해녀 출가(出稼) 방식과 정착 과정

1. 제주해녀 출가 방식

제주해녀는 제주를 포함한 한반도의 바다 일대에 진출하여 ‘물질’ 기술뿐만 아니라 바다밭 운영 방식이나 조직(잠수계), 공동작업 등을 통한 이익 분배 등의 작업방식을 전파했다.

지금까지 출가물질을 얘기할 때는 ‘돈을 벌기 위해’라는 목적에 집중했지만 ‘어떻게’에 대한 접근은 부족했다. 출가물질이 가능해졌다고 하더라도 이동수단이 제한적이면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까지 가기 어렵다. 직접 채취한 해산물을 거래해야 한다는 조건도 감안해야 한다.

이런 상황들을 정리하면 제주해녀의 출가 형태는 크게 객주의 모집과 독립 출가 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남·강원·함경도 지역으로 출가하는 해녀들은 대개 동력선이나 기선편으로 부산 영도에 기착한 다음에 출가 대상지로 이동한 반면, 전라도 지역으로 출가하는 해녀들은 범선으로 출가 대상지로 옮겨갔다.¹²⁶⁾

출가지역도 초반은 배로 이동이 가능한 지역을 주요 기착지로 자리를 잡았지만 천초 등 해조류 가치를 인식하면서 상업이나 산업 발달로 현금화가 용이한 지역들로 확대됐음을 알 수 있다.

1876년 당시 조선이 일본과 맺은 한일수호조약(강화도조약) 이후 일본 잠수기 업자들은 잠수사를 고용해 금채기간에도 해산물을 싹쓸이했다. 어장이 황폐해지면서 생계가 불안해진 제주해녀들은 제주 밖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1895년 첫 부산부(釜山府) 목도(牧島, 지금의 영도) 출가물질은 ‘모집’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¹²⁷⁾. 윤유녕은 ‘부산의 한 해조류 상인의 요구에 의해 적은 수의 제주해녀들이 부산 앞 목도라는 작은 섬에서 우뚝가사리를 채취했다. 이들의 첫

126) 이성훈, ‘국내 출가해녀’, 『제주여성사Ⅱ·일제강점기』, 제주발전연구원, 2011, 259~290쪽.

127) 김영돈·고광민이 공동집필한 『제주의 해녀』(1996)와 김영돈의 『한국의 해녀』(1999)에 기술된 제주도 해녀 출가와 나잠업 사례 연구에서 정리.

출가는 성공적이었고 그들을 이용하여 돈을 벌려는 자본주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한반도 연안 해조류의 채취는 그 이전부터 일본 해녀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었는데 이들의 작업시간은 제주해녀들에 비해 짧았다. 따라서 해녀들을 고용하여 이익을 남기는 자본주들은 당연히 제주해녀들을 선호하였다. 제주해녀의 한반도 출가 이후 점차 일본 해녀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제주의 해녀들이 일본으로 물질을 떠나게 되는 역현상마저 일어났다'는 조사 자료¹²⁸⁾를 공개하기도 했다.

일본은 1883년 조일통상조약을 맺은 이후 거제도과 통영, 여수, 경주 감포, 포항 구룡포에 '이주어촌'이라는 사실상의 식민 어촌을 만들어 일본 어민들이 이주했다. 일본 어민들은 일본식으로 개량한 어선과 어구어법으로 동해와 남해, 제주도 연안에서 마구잡이로 잡은 수산물을 부산, 마산, 구룡포 등지에 설립한 시장을 통해 자국으로 수탈해 갔다.

갑오경장(1894년)을 전후하여 우리나라 해조류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부산 일대에 해조상이 많이 생겼고, 해조상들이 직접 제주로 와서 해녀들을 모집해 나가는 경우도 늘어났다. 1889년 일본 자본가들에 의해 설립된 부산수산회사는 우리나라의 수산물을 매입하여 일본에 수출했다. 해조류 거래가 늘어나면서 1903년에는 부산 어시장을 개장해 종래 일본에 대한 수산물 수출 사업 외에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수산물 매매·유통 사업을 주도했다. 부산수산회사는 또 어장 조사, 수송, 수산물 제조 가공, 수산물 냉장용 제빙 및 판매, 자금 대여 등으로 사업을 계속해 확장하면서 남해안 거문도 등에 출장소를, 통영에는 지점을 설치해 어획고를 올렸다. 어획된 수산물들은 부산 어시장을 통해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만주까지 수출됐다. 일본의 대륙 침략이 고조에 달했던 1930년대에는 중국 화북 지역까지 진출하면서 부산수산회사는 전체 수산물 유통의 70%를 수출하기에 이른다.¹²⁹⁾

일본은 1910년 한일병합 이전 우리나라 천초 어장을 주목하고 있었다.¹³⁰⁾ 1929

128) 윤유녕, 「Toward reviving the myth of woman's land」, 제1회 섬학술회의 발표 논문, 1997, 7쪽.

129) 배석만이 中村資良, 『朝鮮銀行會社要錄』, 東亞經濟時報社, 1921. 『법인 대장』, 재무부, 간행년 미상. 김동철, 「부산의 유력 자본가 향주원태랑(香椎源太郎)의 자본 축적 과정과 사회 활동」, 『역사학보』186, 역사학회, 2005. 등에서 찾아 정리한 '부산역사문화대전-부산수산회사'편에서 인용했다.

년 동아일보가 보도(6월17일자 2면)한 한 기사에서도, 경상남도 앞바다의 어획고는 일본인들의 주요 어장이었고, 이곳의 어획고는 조선의 1/3를 차지할 정도였다. 그리고 그 속에 '제주도 해녀'가 왕래하며 출어하였고 그 인원이 1000명 가량이 있었다는 내용이 나온다[그림 13].



[그림 13. 경상남도에 진출한 제주해녀를 언급한 동아일보 1929년 6월17일자 2면]

이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제주해녀의 부산 영도 출가물질을 정리해 보면 처음 부산부 목도(영도)에 이동했을 때는 돛배를 이용하던 시기여서 한 번에 부산까지 가기는 힘들었고,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운 전라남도과 경상남도 해안섬을 목적지로 정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배에 실을 수 있는 식료품의 양¹³¹⁾과 풍랑 등 날씨 영향으로 섬에서 섬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택했다.¹³²⁾

발동선이 도입된 이후 부산 방면으로 갈 때는 소안도를 경유하지 않고 거문

130) 김수희, 「日帝時代 濟州海女の 海藻類 採取와 入漁」, 『濟州海女: 抗日運動, 文化遺産, 海洋文明』, 제주해녀박물관개관기념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위원회, 2006, 73~74쪽.

131) 김영돈 외, 「남제주군 중문면 중문리 해녀」, 『탐라문화총서(10)제주도부락지(IV)』,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1, 103쪽.

132) 이성훈, 『해녀노젓는소리 연구』, 학고방, 2010, 172쪽.

도를 경유하였고, 목포 방면으로 갈 때는 거문도를 경유하지 않고 소안도나 추자도를 경유하였다. 이후 제주-부산 항로에 기선이 취항하면서 출가가 용이해졌다.¹³³⁾ 부산을 기점으로 한 제주해녀의 국내 출가 이동 역시 어장과 더불어 일본 상인의 시장 진입 결정 요인이 됐다. 또 천초(우뭇가사리) 등 해조류의 가치 상승이 해녀 출가물질 지역을 확장 시켰다는 사실도 살필 수 있다.¹³⁴⁾

기존 제주해녀 연구자들의 연구와 강예길 할머니의 구술 자료를 보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물질이 가능해진 것도 일본의 대형 증기선 운항이 주효했다. 모집책을 중심으로 10~15명 정도가 부산과 울산 등에서 작업을 했고, 배로 원산과 청진까지 희망자를 중심으로 단체로 이동했다. 숙소를 빌려 공동생활을 하면서 물질을 하지 않으면 해당 지역 농사일이나 돈을 벌 수 있는 허드렛일을 찾아서 하는 등 경제활동을 이어갔다.

강예길 할머니는 청진항에서 블라디보스토크 출가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제주에서 같이 간 객주가 현지에서 배를 빌려 두만강을 건넜다고 말했다. 일제 강점기 3대 항구는 원산항, 마산항, 목포항이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은 함경남도 원산항에서 기선(汽船)을 이용하거나 육로로 두만강을 건너 블라디보스토크로 갔다는 사료 등이 남아있어 당시 러시아로 진출하는 관문은 원산항임을 알 수 있다. 청진항은 1908년 일본에 의해 군수물자 수송항으로 개항되었다.

청진에서의 경험을 비교적 뚜렷하게 기억했다. 청진 고래잡이배에 탔던 제주 출신 선원이 챙겨준 고래고기를 13명이 3일 정도 나눠 먹었고, 직접 잡은 성게며 홍합을 직접 손질해 간즈메(통조림)로 만들었다는 내용이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물질을 하는 외에 옥수수 등을 수확하는 일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활동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다렌·칭타오 물질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다렌의 경우는 모집을 통해 황해도까지 뚝배로 이동을 하고 다시 다렌으로 건너가 물질을 하는 형태였다. 칭타오는 제주 출신의 사업가가 미역 종자를 키운 뒤 제주에서 상군 해녀들을 모집

133) 이성훈, 「해녀노 젓는소리 연구」, 송실대학교대학원 박사 논문, 2007, 125~126쪽. 이성훈, 「국내 출가해녀」, 『일제강점기 제주여성사Ⅱ』, 제주연구원, 2011, 268~269쪽.

134) 김수희, 「日帝時代 濟州 海女の 海藻類 採取와 入漁」, 『濟州海女: 抗日運動, 文化遺産, 海洋文明』, 제주해녀박물관개관기념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위원회, 2006, 73~74쪽.

해 채취하는 방식으로 출가했다. 발동선으로 꼬박 이틀 반, 55시간 걸려 이동했다.

사례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제주 출가해녀들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대신 출가 지역에서 다시 출가를 하는 등 비교적 장기간 타향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결혼 등으로 지역에 정착해 출향해녀가 됐지만, 많은 경우는 고향으로 돌아왔다.

제주해녀의 출가와 출향, 그리고 시기별 출향의 특징을 구분 짓는 기준도 사회 변화양상에 따라 설명할 수 있다. 출가지(出稼地)에 혈연·지연 등의 요인으로 연결된 지역공동체¹³⁵⁾ 형성 유무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지역공동체는 공동체의 특성인 지리적 근접성, 인간들의 사회적 관계, 정서적인 동류의식(소속감) 중에서 지리적 근접성이 강조되는 공동체이다. 지역공동체의 정의에서 공동의 목표는 한 마디로 ‘지역을 기반으로 더불어 삶’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을 촉진시키는 것은 ‘신뢰와 협력의 사회적 환경(사회적 자본)’이다.

전통적인 공동체 가치는 ‘상부상조(相扶相助)’이며, 근대적 열린 공동체 가치는 참여, 연대, 생태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생태란 자연이나 환경 같은 좁은 의미를 넘어 사회적 호혜와 연대, 자율, 내적 성찰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을 의미한다.¹³⁶⁾ 이런 특징들은 제주해녀 공동체를 설명할 때 등장한다.

지역공동체가 ‘지역을 기반으로 더불어 삶’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가치 실현이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제주해녀들은 출가 과정에서부터 무리를 이뤄 서로 의지하고 이동 과정이나 출가지(出稼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했다. 출가라는 목적 아래 같은 동네 사람 혹은 지인·친척들이 모여 움직이면서 결속력이 강했던 영향이다.

현희옥 해녀(1945년생·성산읍 신산리 출신)는 노를 저어가며 18년간 출가물질을 했는데 당시 동네마다 해녀를 모집하는 사람이 한 명씩은 있었고, 해녀들이 스스로 모집자가 되어 출가했던 상황을 기억했다. 물질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

135) 박병춘,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 『지역사회연구』, 20권 2호, 2012, 1~26 정리.

협회의 지역공동체는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일정한 지역을 주요 기반으로 하며, 지역주민과 생활 전반에 걸쳐 서로 긴밀하게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고, 공동의 목표와 가치라는 정서적 유대감을 공유하는 사회적 조직 단위체’라 정의한다.

136) 박병춘·김석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DB 정보 플랫폼 개발」, 『지역사회연구』 20권 1호, 2012, 1~21쪽 정리.

고 싶어 하는 해녀나 아픈 해녀가 있을 때는 동네 해녀들이 차비를 모아 보내줬으며 그곳에서 데리고 간 처녀를 결혼시킨 경우도 있었다로 했다.¹³⁷⁾

결혼 등의 이유로 출향한 해녀들이 동향 또는 제주 출신 해녀들을 모으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고춘자 해녀(1938년생·구좌읍 하도리 출신)는 출향한 작은 언니의 부탁으로 23살 때 해녀 12명을 모집해 울산 지역으로 출가했다. 당시 작은 언니가 살던 동네에는 제주 사람 30가구가 모여 살았는데 남제주군 한경면 사람이 많았다고 기억했다. 25살에는 남편과 경북 울진 죽변으로 오징어잡이를 나갔다가 현지에 집을 구해 10년간 살았다. 그 곳에서 제주사람들끼리 모여 형제처럼 지냈던 경험이 있다.¹³⁸⁾

제주해녀들의 출가는 다시 여성의 경제활동 영역 확장과 더불어 권익 보호를 위한 조직 구성¹³⁹⁾ 등 지역사회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1962년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어장 소유권을 가지게 된 어촌계가 제주해녀의 출가를 제한하면서 물질할 수 있는 바다가 제한되고 지역에서 생산한 이익 배분을 둘러싼 출가해녀와 지역민 간의 갈등 양상이 노출되기 시작한다.¹⁴⁰⁾

폐쇄성이 강한 어촌 공동체의 특성¹⁴¹⁾은 혈연·지연을 근간으로 사회문화적 동질성을 통해 끈끈한 공동체를 구성하기도 하지만 여기에 수산자원의 공동 생산,

137) 고영자·김은희·안미정·양영자·고수미, 위의 책, 288쪽.

138) 고영자·김은희·안미정·양영자·고수미, 위의 책, 332쪽.

139) Google Arts & Culture, “어업공동체 - 해녀들은 그 집단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미 구한말부터 '계'의 형태로 자생적인 공동체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출가해녀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어업공동체가 조직되었다”, 제주해녀박물관 인용 정리.

제민일보 해녀기획팀, 해녀공동체를 옛보다 5. 잠수회 I, 제민일보, 2017.4.4.-[제민일보]

‘물질 원정 왔다가 동해안에 정착’-땀 흘리는 한국인 해녀 20 ‘제주집’, 동아일보, 1970.7.25.

바다가 있는 곳이면 어디나 후조(候鳥, 철따라 자기 환경에 맞는 곳으로 살 곳을 옮기며 살아가는 새)처럼 몰려다니는 출가해녀들은 곧잘 동해안 연안에 제주촌을 이룬다’는 사진 설명이 달려있다. -[동아일보]

140) ‘물질 원정 왔다가 동해안에 정착’-땀 흘리는 한국인 해녀 20 ‘제주집’, 동아일보, 1970.7.25.

“(제주집)은 물질하러 육지에 나왔다가 현지 남자들과 결혼 내지 이주해온 사람들인데 동해안 일대 주민의 약 3할 가량이, 부산 영도의 경우는 약 8할을 차지하여 선거 때의 몰표로도 나타나고 있다. 내륙지방에서 보기에는 제주도가 천리길 바다 밖이지만 동해안 일대에서는 제주도가 바로 옆마을이다. 이것은 제주본도인들도 마찬가지다. 구룡포의 경진하숙이 어떻고 소섬(우도)의 이발소가 어떻고는 동해안~제주도간의 공통 생활정보가 된다. 감포(월성군) 어협 관내만 해도 작년의 200여명에 이어 금년엔 100여명으로 제주도 출가 해녀수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줄고는 있지만 5년 전까지만 해도 여름이면 제주도 해촌의 여러자고는 집보는 노인이나 아이들뿐이어서 제주 해촌의 여자가 동해안으로 출가(出稼)했다가 출가(出嫁)해버리는 예는 수두룩했고, 아주 이주해서 ‘제주집’이 되곤 했다. 제주집은 물론 이런 미역바위 권리엔 참가할 수 없었고 그 아이들까지도 학교에서 흔히 원주민들에게서 따돌림을 받기 일쑤였다” -[동아일보]

141) 김준, 「마을 어장의 위기와 가치의 재인식」, 『도서문화』,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11, 245~272쪽.

이용과 소득 분배라는 생산 영역이 적용되면서 새로운 구성원 진입을 제한하는 경향이 강해지게 된다. 특히 수산 여건의 악화와 더불어 어촌의 공동화와 고령화의 진행이 어촌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면서 신규 해녀의 진입을 제약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했다.

이런 사례는 1970년대 경제 활동을 위해 타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은 남편을 따라 출향한 뒤 출가물질을 하는 경우에서 많이 확인된다. 현재 부산 영도에서 물질을 하는 제주 출신 2세 해녀들은 어촌계에 가입할 수 없어 숨어서 물질을 하거나 지방해녀들로만 구성된 어촌계에서 물질을 했다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¹⁴²⁾

기존 공동체 진입이 어려워진 해녀들이 상대적으로 결속이 약하거나 어촌계 수입 중 해산물 의존도가 낮은 지역으로 이동해 정착하는 경향을 보인 것도 무관하지 않다. 이로 인해 국내 출가 해녀 거점이 바뀌는 양상도 나타났다.

이는 국외 출가물질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 등을 감안할 때 조선인 신분으로 러시아와 중국에 정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강예길 할머니는 부산으로 출가물질을 나갔다가 청진으로 이동하고, 청진에서 풍선을 빌려 블라디보스토크에 넘어갔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도 별다른 보호를 받지 못해 도적과 짐승을 피해 서둘러 귀국하는 등 현지 정착을 시도하지 않았다. 중국 칭타오·다렌으로 출가물질을 했던 해녀들은 제주에서 모집책을 따라 이동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다. 칭타오 물질은 현지에서 미역바다를 조성하고 어업권을 획득한 문덕진이 있어 가능했고, 다렌 물질은 황해도를 거점으로 배

142) 부산 영도 동삼 어촌계 소속 제주 출신 해녀 조사 자료. 2022년 11월 17~18일. 구좌읍 종달리 출신 고금순 해녀(69)와 하도리 출신 김정생 해녀(75), 평대리 출신 부축생 해녀(73), 우도 출신 윤연옥 해녀(74).

송기태, 「청산도 마을어장의 확장과 어업공동체의 적응」, 『남도민속연구』 36호, 2018, 225~254쪽. 처음에는 오로지 제주해녀사업자와 제주해녀가 나잠어장을 개척하여 독점적인 소득을 올리다가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마을주민들이 해녀사업에 진출한다. 이때까지도 나잠어장은 일부 해녀사업자와 해녀들의 어장으로 이용될 뿐 마을어장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70년대 후반부터 양식어업을 시작하고 어업권과 면허지에 대해 인식하게 되면서 나잠어장도 마을어장으로 편입시키게 된다. 그러나 나잠어장은 잠수능력이 있는 해녀들만 입어할 수 있는 구역이었기 때문에 어촌계에서는 해녀와 계약을 통해 마을어장을 공유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어촌계가 마을어장을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내부적으로는 통과 해녀가 어장을 공유하면서 공존하게 된다. 그런데 1970년대 후반부터 전통적인 어업공동체 '통'은 급격히 쇠락하고, 해녀의 나잠어장은 어촌계에서 '빈매(임대)'로 운영할 뿐 실질적으로 마을의 공동체적 질서로 편입되지는 못한다. 이러한 현상은 1970년대부터 겪게되는 급격한 인구감소와 함께 양식어업의 등장, 자연산 해조류의 가치 하락, 나잠어장에 대한 관리미흡, 전통시대부터 이어져 온 농업의존적 상황 등이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하면서 전반적인 마을어장의 쇠퇴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를 타고 낮 동안만 물질을 하는 형식으로 출가의 성격이 다르다.

반면 일제강점기부터 광복 등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된 일본 물질의 경우 출가했거나 출항 후 물질을 시작한 해녀들 중에 현지에 귀착한 경우가 아직 남아있다.¹⁴³⁾

김영·양징자의 「바다를 건넌 조선인 해녀」(海を渡った朝鮮人海女)(新宿書房, 1988)를 보면 일반적으로 제주도 해녀의 일본 진출은 1895년을 그 기점으로 하여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첫 시기는 1895~1945년 사이 자유 이민시대로 한반도 내는 물론이고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으로 진출이 용이했다. 1945~1960년 지역적 이민시대에는 국경이 있어 외국으로 이민이 제한되면서 ‘밀항’을 통한 이동이 많았다. 1970년부터 현재까지는 출입국 신고 등 합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불법적 체류방식도 있었다.¹⁴⁴⁾

제주해녀는 처음 미야케지마를 시작으로 하여 주로 미에현에 진출했다. 미에현 해녀들이 우리나라에서 작업을 한 적도 있었지만, 제주해녀보다 작업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반대로 미에현에서 제주해녀를 모집해 가는 상황이 됐다. 마스다 이치지는 「제주도해녀」(1976·『마스다 이치지 지리논문집』)를 통해 ‘제주해녀가 미에현의 이세 해녀 등 일본 해녀들에 비해 노동임금은 저렴하면서도 능률이 비교적 높고, 추위에 강하다는 이유로 일본 진출 해녀의 수가 매년 증가해 일제 강점기인 1932년 즈음에는 1600명이 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일본 진출 해녀는 당시 일본 어업업자나 우리나라 선주 등과 고용관계를 맺는 형태로 이동했다.

일본 쓰시마 출가 물질은 1912년경부터 시작됐는데 당시 제주해녀들은 주로 소라를 비롯하여 미역 등 해조류를 채취했다.¹⁴⁵⁾ 강춘 해녀(1917년생)은 19살부터 21살까지(1936~1939년) 3년 동안 쓰시마로 물질을 다녔는데 제주에서 ‘발동기’를 타고 가서 소라·전복을 채취했다고 기억했다.¹⁴⁶⁾ 권영애 해녀(1929년생·구

143) 오성찬, 「제주해녀들의 거친 삶」, 『새가정』 5월호 통권 369, 1987, 27~33쪽.

김영·양징자 저, 정광중·좌혜경 譯, 『바다를 건넌 조선의 해녀들』, 각, 2004.

유철인·제민일보 해녀기획팀, 『제주해녀 역사의 고리를 연결하다』, 제주도·(사)제주세계문화유산보존사업회, 2016.

좌혜경, 「제주 출가 해녀의 현지실태와 대응」, 『영주어문』10, 2005, 51~88쪽.

144) 이선애, 『海を越える濟州島の海女-海の資源をめぐる女のたたかい-』, 明石書店, 2001.

145) 이선애, 『海を越える濟州島の海女-海の資源をめぐる女のたたかい-』, 明石書店, 2001, 165쪽.

좌읍 종달리 출신)는 14·15살에 쓰시마로 물질을 가는데 당시 쓰시마행 화물선은 제주해녀로 가득 했다고 기억했다. ‘전주’라는 사람이 쓰시마에서 미역 키울 바다를 사서 관리하다가 그것을 채취할 시기가 되면 제주에 와서 해녀들을 모집해 갔다고 했다.¹⁴⁷⁾ 강산옥 해녀(1925년생·성산읍 신흥리 출신)은 16살 되던 해 강제 징용을 피해 제주에서 해녀를 모집해 쓰시마로 가는 인솔자를 따라갔는데 40명 정도가 일본으로 가는 화물선을 탔다고 했다. 강산옥 해녀와 같이 마을인 신흥리에서 간 해녀 외에도 오조리와 보목리 해녀도 있었다.¹⁴⁸⁾

1920년대 중반 제주와 오사카(大阪)간 직항로 개설은 제주해녀의 일본 출가에 촉매제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제주도 해녀는 기선에 의해 출가하는데 기선에 의한 일본 본토로의 출가는 쓰시마를 제외하고는 모두 오사카를 경유하였다. 부산과 시모노세키를 경유하던 기존항로에 비해 시간이 절반밖에 걸리지 않았고, 배삯도 저렴했기 때문에 도민들은 누구나 쉽게 일본으로 출가할 수 있었다. 해녀들은 다음 목적지까지 기선편이나 철도로 이동했다.¹⁴⁹⁾

양정심 해녀(1925년생·우도면 서광리 출신)는 18살 일본으로 첫 출가를 했다. 제주시에서 무역선을 타고 일본에 도착한 후 차를 타고 이틀을 이동해 나가사키현 구주쿠시마에 갔었다.¹⁵⁰⁾ 홍석량 해녀(1924년생·한림읍 금능리 출신)는 스무살이던 1944년 언니와 함께 제2기미가요호를 타고 오사카 축항에 입항한 후, 아마가사키에 살았다. 제주도에 있을 때는 일본군의 명령으로 화약 연료가 되는 해초(감태, 우뭇가사리)를 채취해야 했고, 일본에서도 살기 위해 물질을 했다.¹⁵¹⁾ 1983년 와타우라에는 이정연(당시 72세), 이태옥(당시 72세), 고인옥(당시 68세), 양춘옥(당시 66세) 등 4명의 제주출신 해녀가 있었는데 이들은 1922년 제주도와 오사카간 출항했던 군대환을 타고, 출가물질을 나왔다.¹⁵²⁾

146) 고영자·김은희·안미정·양영자·고수미, 위의 책, 379쪽

147) 고영자·김은희·안미정·양영자·고수미, 위의 책, 212~213쪽.

148) 고영자·김은희·안미정·양영자·고수미, 위의 책, 267~268쪽.

149) 마쓰다이치지(栴田一二)·홍성목 역, 『改訂版 濟州島の 地理學的 研究』, 제주시 우당도서관, 2005, 123쪽.

당시 오사카와 제주도는 특별한 관계에 있었으므로 조선우선(朝鮮郵船), 아마사키기선(尼琦汽船), 가고시마상선(鹿兒島商船)등은 경쟁적으로 여객을 실어 날랐다.

150) 고영자·김은희·안미정·양영자·고수미, 위의 책, 224쪽.

151) 이봉언, 『재일동포 1세, 기억의 저편』, 동아시아, 2009. 발췌.

사진으로 기록한 재일동포 1세들의 마지막을 기록했다. 저자는 2001년부터 5년간 일본 전역을 찾아다니며 식민지 백성으로서 온갖 차별과 핍박, 가난과 전쟁의 공포를 딛고 곳곳이 삶을 지켜온 재일동포 1세 91명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채록했다.

광복 이후 제주해녀의 일본 출입이 통제됐지만, 일본에 정착한 제주 출신 수산업자가 제주해녀를 모집해 일본 아마들과 더불어 나잠업을 하는 경우는 일부 유지됐다. 밀항으로 일본으로 건너간 뒤 다른 일을 찾지 못해 물질을 하거나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일본행을 선택했다가 먼저 출가해 정착한 해녀들로부터 물질을 배운 사례도 있다.¹⁵³⁾

일본 법무성 산하의 입국관리국의 2020년 말 기준 통계에 따르면, 등록 재일 한국인의 수는 45만 4,122명(16%)으로 전체 재일 외국인 가운데 재일 중국인(재일 대만인 제외)에 이어서 2번째로 많다. 통계상 확인할 수 있는 재일 한국인의 본적지(출신지)별 구성을 기준으로 제주 출신은 전체 재일 한국인의 16% 수준으로 추산된다.¹⁵⁴⁾

1920~1940년대 일본 군수산업에 투입됐던 한국인들 중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 남은 사람들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하였는데, 제주사람들도 따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하였으며, 그 공동체 안에서 도일했던 제주사람들끼리 혼인하는 사례들이 많았다. 이쿠노구(生野區) 츠루하시(鶴橋)는 대표적인 제주공동체가 모여 살던 곳이었다.¹⁵⁵⁾ 해방을 전후해 일본으로 건너간 제주인들도 이쿠노구 츠루하시로 모이면서 ‘일본 속의 제주’로 불릴 정도로 집성촌을 이뤘지만, 현재 이 곳에서 제주 출신 해녀를 찾는 일은 쉽지 않다.

일본의 어업협동조합법에는 양식업과 관련해 구획어업권이 있는데 이는 몇몇 자본을 필요로 하는 양식업을 제외하고 경영자가 아닌 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어업권을 공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¹⁵⁶⁾ 어촌지역의 민주적 경제발전을 위해서나 연안어장의 환경관리라고 하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어업 행위를 제한하고 규제해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며, 양식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상업자본의 과도한 침투를 막고 양식어장 환경을 광역 관리할

152) 좌혜경, 「제주 출가(出稼)해녀의 현지 적응」, 『영주어문』 10권, 영주어문학회, 2005, 56쪽.

153) 제민일보 해녀기획팀, 제주해녀 문화로 꽃 피우다3-바깥물질의 확장 II ‘생애사 아닌 사회사적 관점으로 본 고단한 삶 역사로’, 제민일보, 2018.12.24.-[제민일보]

154) 문경수 리쓰메이칸대학 명예교수, ‘재일 제주인의 4·3피해 실태조사를’, 제주일보, 2022.4.4.자. 문경수는 제주4·3 74주년을 맞아 게재한 신문 기고에서 이같이 추산하고, 2012년 수치지만 지금도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제주일보]

155) 현혜경, 「임노동자의 삶」, 『일제강점기 제주여성사Ⅱ』, 제주연구원, 2011, 454쪽.

156) 송정현, 「일본의 양식어장 이용제도에 관한 연구」, 『수산경영론집』 제41권 제1호, 2010, 53~72쪽.

필요가 있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해녀들의 일본 물질은 현지 모 집 또는 고용 등을 통해 작업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동해 이뤄졌다.

일본 미나미현 보소반도 일부 어업협동조합은 정관 등을 통해 제주해녀의 물질을 허용¹⁵⁷⁾하기도 했지만, 일본인들과 동등하게 정식으로 조합원이 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점차 사라지게 됐다. 다만 이런 방식으로라도 제주 출신 해녀들이 일부 모여 물질을 했거나 하고 있지만, 그 외 국가들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1965년 한일협정이 체결된 이후인 1970년 한일 지역간 교류 및 외화벌이를 위해 제주해녀들이 일본에 출가하기도 했다. 제주도와 일본 고지현 사이의 교류 사업으로 이뤄졌다. 당시 제주해녀의 출가는 한국여성의 외화벌이로 신문에 보도되기도 하였다.¹⁵⁸⁾ 김영자 해녀(1949년·구좌읍 김녕리 출신)가 스물 두살 때 일로, 김 해녀는 교류단 일원으로 고지현에서 3개월간 작업했다. 김녕 출신 해녀가 12~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월정 8명, 부산 2명 등 20여명이 함께 생활했다. 그 때 번 돈으로 부모 도움없이 결혼하였다.¹⁵⁹⁾

일본 출가도 모집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취업비자를 받은 기록은 따로 없다. 일본에 정착한 친인척의 초청이나 관광비자를 받고 들어가 몰래 물질을 하다 경찰에 붙들려 강제송환되는 사례도 있었다.

곽경여 해녀(1934년생·구좌읍 월정리 출신)는 40대에 오사카와 미에현으로 일

157) 좌혜경, 「제주 출가 해녀의 현지실태와 대응」, 『영주어문』10, 2005, 51~88쪽.

- 일본 보소반도 가나야 천우어업 협동조합 정관 : 가나야 천우어업 협동조합 정관에는 '어민'에 대한 규정이 있다. 곧 "이 조합 지구내에 주소를 두고 일년 동안 90일 이상 영업하고 그것에 종사하는 어민"으로 되어 있다. 이 정관의 문제점은 '어민'이라는 자구에 그 한계가 있었다. 곧 가나야의 관습과 전통으로는 나잡업을 하는 '해녀'라는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과연 제주해녀가 어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라는 점이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소라채취 어업증'이라는 허가증을 주었다. 그러나 이 시책은 시행하려고 내건 것이 아니라, 회유책의 일환이었다. 해녀들과의 토의 끝에 경계선을 그어서 바다의 일부를 해녀들에게 내주었으나, 일시적인 방책으로 이용한 것이다.

- 일본 보소반도 가츠우라 어협의 준조합원 대우 : 가츠우라에는 일본인이란 다른 지역에 살면서 물질하러 오더라도 입어를 인정했으나, 한국인에게는 입어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해녀들 입어 승인에 있어서 준조합원 대우를 해주었다. "조합의 정관은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조선인은 대상 외"라고 하면 제주해녀들은 "그러면 일본인이 아니어서 일본의 법률도 조합규칙도 지킬 의무가 없음"이 라 저항하면서 서로 대치되었다.

일본인은 해산물 수입에 수수료 1할을 낸다. 제주해녀는 1할 5푼의 수 수료를 내어서 입어를 하고, 조합에 있어서 '준조합원 대우'를 했지만, 발 언권과 선거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조합원 형식도 본인 일대에 한한다는 것으로 일본인들과 동등하게 정식으로 조합원이 된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다.

158) 제남신문, 1970년 8월 27일자.-[제남신문]

159) 김영자·김은희·안미정·양영자·고수미, 위의 책, 170~171쪽.

본 출가물질을 갔다. 오사카 물질은 김녕에 사는 ‘동헌이 어른’이라 불리는 인솔자를 통해서 갔다. 미에현 출가는 46살 때 일어었는데 김녕·행원·월정에서 해녀 16명이 함께 갔다. 여행비자를 받아 일본에 들어가 일주일 물질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유치장에서 들어갔다. 이후 수용소로 보내진 뒤 한국으로 강제송환을 당했다.¹⁶⁰⁾ 신계봉 해녀(1933년생·구좌읍 동복리 출신)도 41살에 도쿄에 사는 친척이 초청하는 형식으로 일본으로 출가했었다. 일본 사람이 임대한 양식장을 전대한 한국 사람이 제주해녀를 조달해 작업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오사카까지 비행기를 타고 갔고, 공항에서 차를 타고 11시간 정도 이동한 곳이었다는 기억 밖에 정확히 어디서 물질을 했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열흘 정도 작업을 했지만 불법취로로 붙잡혀 강제송환됐다. ¹⁶¹⁾

2. 출가해녀의 정착 과정

제주해녀의 출가는 근·현대사를 읽는 유의미한 장치다. 많은 수의 해녀가 제주에서 육지로 건너가게 된 이유와 사회 환경변화는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해녀 연구자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해녀들의 타 지역 이동은 ‘15세기 후반 무렵 흉년과 재해, 부역과 공물의 가중, 왜구의 출몰 등을 피해 출륙했다’는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경제 논리를 반영한 ‘출가물질’이란 이름의 패턴은 식민지 시대로부터 시작해 1970년대 말까지 이어졌다.

일제강점기인 19세기말 제주해녀는 일본인 ‘잠수기 어업자’의 제주도 진출에 따른 연안 바다의 황폐화로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출가를 선택했다. 1876년 ‘한일 수호조약(강화도조약)’ 이후 한반도 부근 연안에서의 일본 수산업자의 어업 활동이 허용됐고, 1883년 조일통상조약 이후에는 거제도과 통영, 여수, 경주 감포, 포항 구룡포에 ‘이주어촌’을 형성해 우리나라 수산업 시장이 일본인들에게 넘어갔다. 일본 자본가들이 1889년 설립한 부산수산회사는 우리나라의 수산물을 매집하

160) 고영자·김은희·안미정·양영자·고수미, 위의 책, 182쪽

161) 고영자·김은희·안미정·양영자·고수미, 위의 책, 156쪽.

여 일본에 수출한다는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며 1903년에는 부산 어시장을 개장하는 등 영업 범위를 확대했다. 부산수산회사를 중심으로 부산 일대에 해조상이 늘어나면서 양질의 해조류를 확보하기 위해 생산력이 높은 제주해녀의 역할이 중요해졌고 제주에서 해녀를 모집해 보내는 객주들도 늘어났다. 이 시기 제주해녀의 출가가 활발하게 이뤄진다.

수요가 늘어난 해조류의 가치 상승도 출가의 중요한 이유가 됐다. 일제 강점기 고급 비단 제작에 우리나라 천초가 쓰이는 등 효용 가치가 높아지면서 부산 일대를 거점으로 해조상(海蕩商)들이 모이기 시작했다.¹⁶²⁾ 천초의 가격은 다른 해초들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월등히 높았다. 1916년 천초는 미역과 가격 비교할 때 66배가 높은 시장가격을 형성하고 있었고, 1930년에는 1066배나 가격 차이가 벌어졌다.¹⁶³⁾ 태평양전쟁 발발 후, 일본 정부는 천초 판매를 금지시키고 전량 납입하도록 함으로써 전시체제 하에서 군수용으로 이용하였다. 이러한 일본이 조선에서의 천초 채취는 제국 일본의 세력 확대를 위한 자금을 축적하는 중요한 토대였다는 주장도 있었다.¹⁶⁴⁾

해방 이후에도 제주해녀들의 출가가 이어졌던 배경에도 해조류 가치가 있다. 육지 각 연안에는 제주도 연안에 비해 값진 천초나 패류가 솟하게 자라나는데도 정작 이를 켈 만한 해녀가 별로 없었으며, 있다고 해도 그 기량이 부족했다.¹⁶⁵⁾ 이로 인해 늦겨울에 제주로 건너가 출가를 희망하는 해녀들과 직접 접촉해 적절한 조건을 내걸고 희망자를 모집해 데려오는 객주가 늘어났고, 점차 제주 출신 객주도 생겨났다. 이렇게 하여 출가물질에 나선 해녀 중에는 결혼이나 금전적 이유로 제주로 돌아가지 않고 육지에 정착하게 된 사람도 있다.

해방 이후 혼란 상황과 제주 4·3사건, 한국전쟁으로 극심한 가난을 경험한 제주해녀들은 모집을 통한 출가에 적극적인 수밖에 없었다.¹⁶⁶⁾ 이는 지역해녀들과

162) 김영돈 외, 『제주의 해녀』, 제주도, 1996, 386쪽.

163) 안미정, 「식민지시대 한·일 해역의 자원과 해녀의 이동」, 『한국민족문화』 58, 2016, 495쪽.

164) 이지치 노리코, 「제국 일본과 제주도 출가 잠수」, 『글로벌시대의 여성과 생활실천』, 동국대 일문학연구소 국제학술심포지엄 발표자료집, 2011, 81쪽.

165) 김영돈, 「해녀 출가와 그 민요」, 『현곡양중해박사화갑기념논총』, 동간행위원회, 1987.

166) 오선화, 「竹邊地域 移住潛女の 適應過程 研究」, 안동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8, 20쪽.

김이나·황현일, 『나는 해녀다-기장군 1세대 해녀 자서전』, 도서출판 참눌, 2022.

고 한철녀 해녀 “신암마을 출신 남자를 만나 결혼 약속을 하고 임신까지 했지만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한 상태였다”, 김복례 해녀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이 재혼을 한 거였어요. 아픈 아들을 위해 병원비를 차곡차곡 모았지요. 하지만 제주도에서 병을 고칠 수 없었어요. 아들을 살리기 위

의 갈등으로 이어졌는데 지방어업조합의 입어로 인상, 현지에서의 불법적인 어장 매매, 무능한 어업조합 운영, 악질전주의 수탈이 끊임없이 발생¹⁶⁷⁾하면서 출가해녀 수가 줄어들고 출가지가 강원·전남·경남으로 변화하게 된다.

네 번째 1962년에 개정된 ‘수산업협동조합법’은 기존 형태의 출가를 제약하면서, 다시 새로운 출가 이유를 만들게 되었다. 개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으로 어촌계가 설립되고, 이전 제주해녀들이 물질을 하던 어장(漁場)이 어촌계 소유가 됐다. 또 해산물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게 되자 각 어촌계에서는 제주해녀의 출가를 통제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제주해녀들은 귀향해 해녀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출가지(出稼地) 중 적당한 어촌에 정착해야 했다.¹⁶⁸⁾ 이 같은 사례는 아래 인용한 부산 영도 정착 해녀 현황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표 7].

해 육지를 선택했어요”, 오정자 해녀 “우리집은 고구마 조 메밀 농사를 지었어요. 억척스럽던 새 어머니는 나만 보다면 일을 시키려고 욱박을 질렀어요. 나만 없으면 우리 집이 조용할 것 같았어요. 열 여덟살 때 육지에서 해녀를 모집한다는 말에 하루빨리 제주도를 떠나기로 작정했어요” 정리.

167) ‘잠수들의 현주소’ 1~4, 濟州新聞, 1975.6.11·12·13·14일자 정리.-[濟州新聞]

168) 오선화, 「竹邊地域 移住潛女の 適應過程 研究」, 안동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8, 21쪽.

[표 7. 부산광역시 해녀 현황[†]]¹⁶⁹⁾

(2019년 기준)(단위: 명, 개)

구분	해녀 수	제주 출신 (2·3세포함)	어촌계 수	어촌계 소속 제주해녀 현황
기장군	627	47	18	-동백어촌계 56명 중 34명 -신암어촌계 37명 중 6명 -기타 어촌계 7명
영도구	151	119	2	-동삼어촌계 93명 중 61명 -남향어촌계 58명 전원
해운대구	84	15	4	-우동어촌계 13명 2중 12명 -미포어촌계 5명 중 3명
사하구	34	34	1	-다대포어촌계 전원
서구	23	23	1	-송도어촌계 전원
남구	19	19	1	-용호어촌계 전원
수영구	2	14	2	-남천어촌계·민락어촌계 전원
강서구	1	-	1	
합계	953	274	30	

[†] 2019년 11월 부산영도해녀문화전시관 개관 후 영도구 남향어촌계 해녀들이 동삼 어촌계로 옮기면서 일부 이탈이 있었지만 이 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출처: 부산제주도민회 자료】

다섯 번째는 한국전쟁 이후 긴급구조와 경제재건, 복구가 이뤄지며 1960년대 이후 도시를 중심으로 한 산업화를 들 수 있다. 1960년대 말 정부가 주도한 양식장 건설 사업과 1971년 미역·다시마 양식단지 신설 등이 제주해녀의 출가에 영향을 미쳤다. 노동력이 부족해진 지역에서 채취기간에 맞춰 제주해녀를 모집하는 일이 나타났고, 제주해녀들 입장에서 타지에서 몇 개월 지내면서 해산물을 채취해 수익을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전도금(前渡金)’이라 불리는 목돈을 미리 받아 가게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출가를 선택했다. 1945년 해방 이후 일본으로 가는 길이 막히면서 국내 출가물질 지역이 확장되기도 했다.¹⁷⁰⁾

1970년대 들어 수출 증가와 산업단지 건설, 중화학 공업화 등 노동과 기술집약적 산업 발달과 급격한 도시화로 도시 생활에 대한 희망과 고임금 일자리를

169) 김창일, 「제주 출향해녀의 물 정착과 물질방식」, 『근현대 동아시아-어민문화와 그 전개』, 국립민속박물관 국제 학술대회 자료집, 2019에 실린 내용을 재인용.

170) 김영돈, 『한국의 해녀』, 민속원, 1999, 404쪽.

찾기 위한 이동이 늘어나고 가장을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제주 여성들이 가게 보탬을 위해 물질을 하거나 이동지에서 물질을 배우는 형태가 나타난다.

출가 이유와 사회 환경변화는 제주해녀들의 거점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제강점기 뚝배와 발동선, 기선을 이용한 이동이 가능했던 광복 이전에는 부산 영도와 울진 죽변, 전북 목포·군산 등이 항구가 거점 역할을 했다. 당시 주요 상거래가 항구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들 거점을 중심으로 이주어촌이 형성돼 시장이 조성됐던 포항 영일만, 구룡포, 감포 등지로 이동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광복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생계유지가 절박했던 제주해녀들은 돈을 벌 수 있거나 물질을 할 수 있는 곳을 가리지 않고 출가했다. 주로 해조류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으로 출가하면서 동해안을 따라 해녀들이 모여 사는 ‘해녀촌’이 만들어지는 사례가 확인되기도 한다.

1962년에 개정된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작업 기회를 잃은 해녀 중에는 귀향하는 대신 현지에 정착하는 것을 선택하기도 했다. 계약금을 받지 못해 귀향하지 못한 해녀도 현지에 남았다.¹⁷¹⁾ 출가지에서 다시 이동하는 사례 중에는 먼저 출가가 제주해녀나 지역해녀들의 텃세에 밀린 경우도 일부 있었는데 1970년대 이후에는 그런 경향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다.¹⁷²⁾

이런 시대적 변화를 겪으며 제주해녀들의 출가 거점지역에도 변화가 생긴다.

나잠어업인 기준 통계자료이기는 하지만 현재 제주와 부산 다음으로 울산보다 포항 지역 해녀 수가 많다. 제주해녀들의 첫 출가지였던 부산 영도와 비교해 기장군 소속 해녀 수가 더 많아 거점 지역이 이동됐음을 살필 수 있다. 울릉도와 가까운 지정학적 위치와 1930년대 명대·대구어업, 1940년대 정어리어업, 1960년대 쾡치·오징어어업 성업으로 193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까지 제주해녀 출가가 두드러졌던 경북 울진군의 등록 나잠어업인은 75명(2020년 국가통계)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전쟁 과정에서 함경도에서 이주 정착한 함경도 출신 어업인과 제주에서 이주한 해녀들이 죽변3리(봉수동·봉곶)와 죽변4리(후리곶·아바이촌) 등 집단

171) ‘동해안의 제주해녀촌’, 경향신문, 1987년 10월 5일자-[경향신문]

172) 부산 영도 동삼 어촌계 소속 제주 출신 해녀 조사. 2022년 11월 17~18일. 구좌읍 종달리 출신 고금순 해녀(69)와 하도리 출신 김정생 해녀(75), 평대리 출신 부축생 해녀(73), 우도 출신 윤연옥 해녀(74).

송기태, 「청산도 마을어장의 확장과 어업공동체의 적응」, 『남도민속연구』 36, 2018, 225~254쪽.

마을을 형성했었지만 현재는 제주 출가 해녀 1세대는 찾아보기 어렵고, 2세대와 지역 해녀 수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¹⁷³⁾

제주해녀가 출가지와 거점이동지에서 자신들의 조직을 만들거나 공동체를 만들어 정착했다. 이런 사례는 블라디보스토크 물질을 나섰던 고 강예길 할머니의 채록 자료에서부터 1997년 통영나잠제주부녀회 결성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출가지역을 이동하여 다른 지역에서 물질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형성되었다고 하였다. 출가 과정에 있어 제주해녀들은 15~20명의 동아리¹⁷⁴⁾를 꾸리고, 반장을 둔다. 반장은 인솔자와의 사이에서 동아리의 권익을 돌보고 날마다 물질을 언제 어디에서 치를 것인가. 바닷물 사정이 시원치 않을 때 물질을 할 것인지 여부를 인솔자와 협의하고 반원들에게 알리는 일을 맡았다. 소득에 따른 정산이 제대로 되지 처리되지 않거나 해녀들이 혹사당하는 경우 등에 있어 대표로 목소리를 냈다. 출가물질을 위해 최소 6개월 동안 더불어 살아야 하는 운명 공동체로 불의의 사고나 물질을 하지 않는 동안 부업이나 가사 등의 역할 분담을 통해 생활을 유지했다.

통영나잠제주부녀회는 당시 제주에서 출가해 작업하던 해녀 한 명이 바다에서 작업 중 목숨을 잃는 사고를 계기로 구성됐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동료인 해녀도,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을 잃은 가족도 지키고 보호할 장치가 하나도 없었다. 어떻게든 힘을 모아 같이 버텨야겠다는 마음에서 모여 살기 시작해 행정구역상 미수동을 형성했고 이후 계속해 정주민이 늘어나면서 1·2동으로 확장됐다.

1999년 7월 미수·봉평·도남동 지역에 중심으로 205명의 출향해녀들이 모여 통영나잠제주부녀회를 설립했고 지난 2000년 5월엔 제주도와 통영시의 지원을 받아 통영제주나잠부녀회관도 건립했다.¹⁷⁵⁾ 제주의 해녀회와 해녀회관과 유사한 형태로 보이지만 지역 활동에는 차이가 있다. 통영나잠제주부녀회는 어촌계 내에서 해녀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기보다는 지역 단체로서 존재감을 이어가고 있다. 설립 이후 현재까지 회원간 경조사 등을 살피는 것은 물론 지역인재 육성기금 기탁, 바다 환경 정화 사업 등 지역과 연계한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173) 오선화, 「竹邊地域 移住潛女の 適應過程 研究」, 안동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8. 남효선, '동해연안의 세시풍속-죽변항을 살피운 해녀의 사회경제사', 경북북부권문화정보센터, 2017.

174) 제주도문화체육과, 위의 책, 230쪽.

175) 고미, 해녀기획 '한바당해녀 이어도사나' 10. 통영해녀, 제민일보, 2021.11.1.-[제민일보]

있다. 코로나19로 2020년과 2021년 중단한 것을 제외하고는 10년 넘게 지역 노인들을 위한 경로잔치도 여는 미담이 지역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¹⁷⁶⁾

제주해녀의 국외 출가도 물질 능력 인정과 출가지 확대에 더해 지역공동체에 미친 영향을 읽을 수 있는 지표가 된다.

강예길 할머니의 1920년대 블라디보스토크 물질과 1950년대를 전후한 일본 물질은 시대적 배경과 밀접하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제주에서 경제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여건을 출가를 통해 해결해야 했던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 강예길 할머니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어진 출가물질에서 10여명이 동아리를 구성해 함께 이동했으며 그 중 대표 역할을 맡았던 경험을 말했다. 일본 출가물질은 모집책을 따라 쓰시마와 오사카, 도쿄, 시코쿠 남부 코우치켄까지 가서 물질을 했고 현지에서 먼저 정착한 제주 출신 해녀의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같은 국외 출가물질이지만 1930~40년대 중국 칭타오와 다렌 물질은 모집책을 따라 일정 기간 작업을 하고 돌아오는 형태인데다 상군을 중심으로 한 구성으로 공동체 성격이나 현지 정착 등과 연관 짓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일제강점기부터 광복 등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된 일본 물질의 경우 출가했거나 출향 후 물질을 시작한 제주해녀들 중에 이미 현지에 제주 출신자들이 모여 있거나 현지 적응을 위해 공동체를 이루는 경우들이 많아 출향해녀로 일본에 남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¹⁷⁷⁾

176) 허동정, '통영나잠제주부녀회 인재육성기금 기탁', 경남도민일보, 2018.1.8.-[경남도민일보]
'통영나잠제주부녀회 창립 20주년 기념 및 경로잔치 행사 개최', 경남열린신문, 2019.5.9.-[경남열린신문].

김민진, '통영 해녀들 낚 쓰레기 없는 바다 만들기 동참', 부산일보, 2019.11.16. -[부산일보]
177) 오성찬, 「제주해녀들의 거친 삶」, 『새가정』 5월호 통권 369, 1987, 27~33쪽.
김영·양징자 저, 정광중·좌혜경 譯, 『바다를 건넌 조선의 해녀들』 각, 2004.
좌혜경, 「제주 출가 해녀의 현지실태와 대응」, 『영주어문』 10권, 2005, 51~88쪽.
유철인·제민일보 해녀기획팀, 『제주해녀 역사의 고리를 연결하다』, 제주도·(사)제주세계문화유산보존사업회, 2016.

V. 결론

이 논문에서는 제주해녀의 의의와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타 지역으로 출가한 배경과 상황 등을 파악하고, 국내는 물론 블라디보스토크과 일본 물질 경험이 있는 고 강예길 할머니의 육성 자료를 통해 출가지역에서 형성된 생활 공동체와 영향력을 살폈다. 출가 경로 외에도 생활 방식이나 풍습이 다른 출가지(出稼地)에서 제주해녀들은 어떻게 적응, 융화했는가와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피는 문제 설정에 있어 선행 연구자료를 보충하고, 반복적인 분석과 해석의 과정을 거쳐 제주 출가해녀의 이동 경로를 추가했다.

해녀 연구자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제주해녀들의 타 지역 이동은 '15세기 후반 무렵 흉년과 재해, 부역과 공물의 가중, 왜구의 출몰 등을 피해 출륙했다'는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경제 논리를 반영한 '출가물질'이란 이름의 패턴은 식민지 시대로부터 시작해 1970년대까지 이어졌다. 1970년대 이후는 경제발전과 도시화 등 사회 변화에 따른 이동으로 출가 성격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해녀의 출가는 1895년에 부산부(釜山府) 목도(牧島, 지금의 영도)로 간 것¹⁷⁸⁾이 처음이라고 보는 견해가 가장 많다. 부산 영도에 제주도인들이 처음 정착한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124년 전인 1885년¹⁷⁹⁾이었고 1900년 초부터는 부산 영도와 경상남도 일원에 제주 마을이 집단적으로 형성됐다는 기록 등을 반영하면 이런 결론이 나온다.

한일수호조약(강화도조약·1876년)과 조일통상조약(1883년), 갑오경장(1894년) 등은 연안어장 황폐화와 이주어촌 중심의 어시장 형성, 해산물 가치 상승 등의 변화를 야기했고 이로 인해 제주해녀의 출가지가 부산을 중심으로 동·서·남해안으로 확장되게 됐다. 일제강점기 제주 출가해녀들이 부산 영도에 모였다가 인근 기장군, 울산, 경주, 포항 등 인근의 어촌으로 퍼져나갔다.¹⁸⁰⁾ 해방 이후 많은 제

178) 김영돈·고광민이 공동집필한 『제주의 해녀』(1996)와 김영돈의 『한국의 해녀』(1999)는 제주도의 해녀들이 출가하여 나잡업을 한 사례를 조사하며 이를 '바깥물질'로 정리했다. 이 논문에서는 출가로 통일해 표기하고 있다.

179) 김정하·이종현, 위의 논문, 106~107쪽. 부산제주도민회 제12대 회장 김길두(93세)씨 인터뷰 인용.

180) 제주도문화체육과, 위의 책, 224쪽.

주도민이 영도로 대거 이주했고 1950~1970년대 중반까지 부산 영도를 거점으로 제주해녀의 출가가 이어졌다.¹⁸¹⁾

노동력 수요에 따른 이동이었지만 평균 10~15명 정도 규모의 조직을 만들어 물질작업이나 현지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나 갈등 상황 등에 공동으로 대응했다.¹⁸²⁾ 이는 물질작업의 협업뿐만 아니라 생활연대도 강한 해녀들은 지역마다 잠수회(해녀회), 영어조합 해녀회, 해녀협동조합, 나잠협회(나잠부녀회) 등 여러 형태의 생업공동체를 만들기도 한다.

해녀에 적용한 문화유산기준인 ‘생업에 기반한’을 전제로 봤을 때, 해녀는 생활권 안에 바다가 있었고, 자신이 노력한 만큼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공통의 규율에 따라 소속감을 유지했다는 점은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제주해녀들의 타 지역 출가는 기본적으로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지역경제를 유지하게 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또 한반도 연안은 물론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까지 경제활동 영역을 확장했다는 점 역시 유의미하다. 일부 사례에서는 제주해녀가 출가한 지역의 사회 구조적 발전을 견인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공동체를 중심으로 마을 형성에 영향력을 미치거나(부산 영도구 등), 출가지역에 여성 중심 조직(통영나잠제주부녀회 등)을 구성해 자체 활동 외에 지역사회 연계 사업을 진행하는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출가 해녀들의 이동경로와 출가 및 출향으로 지역에 미친 영향은 제주해녀문화의 유산적 가치를 재확인하는 작업이다.

제주해녀를 특정하지 않고 한반도 전역의 ‘해녀’를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로 등재한 것은 그들의 존재가 어느 한 문화의 독자적인 발명품이나 전유물이 아니라

제주해녀들은 주로 어디에들 나갔었을까? 국내의 경우는 光復될 때까지 慶尙南道로 물렸던 것으로 드러난다. 예를 들어 1987년에 펴낸 「濟州島勢4要覽」을 보건대 그해 3월말 현재 한국 각 연인에는 2천8백1명이 出稼한 것으로 돼 있는데 慶尙南道에만 1천6백5십명을 필두로 慶尙北道 473명, 全羅南道 408명, 忠淸南道 110명, 江原道 54명, 黃海道 50명, 咸鏡南道 32명, 天羅북도 19명, 咸鏡北道 5명으로 드러난다. 이통계를 보건데 제주해녀들은 慶尙南道 다음으로 咸鏡南道·咸鏡北道까지 北進했다. 그러니까 平安南道를 뺀 한반도 연안 곳곳에, 심지어는 黑山島·獨島에 이르기까지 제주해녀들은 한사코 진출했다는 말이 된다.

181) 부산박물관의 2021년 특별기획전 ‘부산, 관문 그리고 사람’. 1부 ‘질곡의 시간, 변방 항구에서 관문도시로’ 2부 ‘산업화의 중심, 확장된 삶의 무대로’ 구성했다. 한국전쟁 피란기부터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도 삶의 희망을 잃지 않고 부산에서 새 삶을 개척한 사례로 제주도에서 물오르고 정착한 부산해녀를 다뤘다.

182) 제주도문화체육과, 위의 책, 225쪽.

제주를 중심으로 바다를 타고 전파된 공생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강조¹⁸³⁾한 결과다. 문화재청은 ‘해녀’는 한국의 전통적 해양문화와 어로문화를 대표해 시대적 변천을 넘어 오늘까지 그 명맥을 이어온 산 증인으로, 단순히 ‘물질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해녀와 관련된 기술, 지식, 의례 등의 문화를 통합한 의미라고 밝혔다. 유네스코 역시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과정에서 ‘공동체, 특히 토착 공동체·집단과 때로는 개인이 무형문화유산의 창출·보호·유지 및 재창조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문화적 다양성 및 인류의 창조성 제고에 기여함을 인정’¹⁸⁴⁾했다.

이 논문은 제주해녀들이 출가의 사회적 배경과 이동경로를 확인함으로써 결합된 공동 제작의 산물로 제주해녀문화를 확장하였다. 해녀문화를 제주를 중심으로 바다를 타고 전파된 공생의 결과물¹⁸⁵⁾임을 본 연구결과에서 재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주 출가해녀가 경제적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사실 외에도 조직을 구성해 구성원을 보호하고 물질기술과 생활양식을 공유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이 같은 출가해녀들의 방식이 출가지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제주해녀문화로 연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제주도를 벗어나 한반도, 그리고 한반도 연안의 출가지역을 아우르는 제주해녀문화를 확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주뿐만 아니라 제주해녀 출가지역을 포함한 해녀문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제주해녀문화를 공유하고 보존하고 전승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해녀가 출가 후 정착한 경상남도 통영 미수동, 경상북도 포항 구룡포 등 집성촌과 비슷한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지역에서 제주 출신 해녀를 찾기가 어려워져 구체적 기록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사회 변화에 따라 출향(出郷) 이유가 달라지면서 제주해녀들의 출가 주요 거점이 부산 영도구에서 가장 근운으로 옮겨가는 등의 흐름을 연결해 낼 수 있었지만,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어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해 이론화하는 작업을 추가할 필요

183) 유철인·이성훈 외, 『해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보고서』, 문화재청, 2016.

18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약정보-제1775호<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http://www.law.go.kr/trtyl>) nfoP.do?mode=4&trtySeq=2133&chrClsCd=010202)

185) 유철인·이성훈 외, 『해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보고서』, 문화재청, 2016.

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제한점이 있다. 출가물질과 관련해 학문적으로 폭넓은 접근이 이뤄지고 있음과 블라디보스토크 물질을 한 장본인을 육성으로 확인하기는 했지만 사실 확인이 어렵고 문헌상 사료적 근거가 불충분해 이를 이론화 하는데 한계가 많았다. 한반도를 기준으로 한 해녀 문화 전파를 전제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마을 형성과 출가상황에서 다시 경제적 이득을 위해 이동하는 ‘유목적 주체(Nomadic Subjects)’이론¹⁸⁶⁾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효해 보이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반영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해녀의 이동을 출가와 출향 기준으로 살폈지만, 이동했던 시기와 과정, 경제성장 등의 배경적 요인만으로는 문화 전파를 확인하고 지역간 연대를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출가해녀들의 근현대생활사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한 현지 조사와 이들이 지역에 미친 영향에 대한 생애사적 관점의 분석은 추후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186) 장혜련, 「다문화사회와 이주민의 정체성 : 제주해녀-바다를 횡단하는 트랜스내셔널 유목주체 Special Theme: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Identity of Migrants: Jeju Haenyeos-Transnational Nomadic Subject Crossing the Seas」, 『비교한국학』 제19권 제1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1.

參考文獻

- 『고려대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 (2009)
- 『무형문화재 기록화의 성과와 활용방안』,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술대회 자료집, 2010.
- 『영덕 해녀 구슬생애사 :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나는 해녀 할 거다』, 영덕군·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20.
-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와 해녀의 지속가능성』, 제5회 한·일 해녀 국제학술심포지엄 자료집, (사)제주학회·제주해녀박물관, 2010.
- 『제주농촌진흥 60년사』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2016.
- 『제주해녀와 일본 아마의 무형유산』, 제3회 한·일 해녀 국제학술심포지엄 자료집, (사)제주학회·제주해녀박물관, 2008.
- 『제주해녀의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 등재와 해녀가치의 보존 전승』, 제주해녀 세미나 자료집, 제민일보, 2007.
- 『濟州島海女入漁問題經過』, 경상남도, 1920~1935.
- 『해녀문화 전국 네트워크를 위한 각계 역할과 협력 방안』, 제주해녀학술대회 자료집,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2022.
- 『해녀의 무형문화유산:유네스코 대표목록 등재와 보존대책』, 제4회 한·일 해녀 국제학술심포지엄 자료집, (사)제주학회·제주해녀박물관, 2009.
- 『해양문명사에서의 해녀의 가치와 문화적 계승』, 제1회 세계해녀학술회의 자료집, 세계심학회·제주대평화연구소, 2002.
- 강대원, 『改訂版 海女研究』, 한진문화사, 1973.
- _____, 『濟州 潛嫂 權益鬭爭史』, 도서출판 제주문화, 2001.
- _____, 『해녀연구』, 한진문화사, 1973.
- 고승한, '제주해녀의 사회문화적 의미와 가치변화', 제주발전연구 통권 제8권, 제주발전연구원, 2004.
- 고영자·김은희·안미정·양영자·고수미, 『숨비질 배왕 늬주지 아녀-제주해녀 생애사 조사 보고서』, 제주도, 2014.
- 국립무형유산원,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국립무형유산원, 2016.
- 김봉옥, 『제주통사』,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0.
- 김순자, 『난 육십육년 물질허멍 살았주』, 제주대국어문화원, 2008.
- 김여나·황현일, 『나는 해녀다-기장군 1세대 해녀 자서전』, 도서출판 참놀, 2022.
- 김영·양징자 저, 정광중·좌혜경 譯, 『바다를 건넌 조선의 해녀들』, 도서출판 각, 2004.
-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 -여성노동요를 중심으로-』, 조약돌, 1983.
- _____, 『제주도민요연구상』, 일조각, 1965.
- _____, 『한국의 해녀』, 민속원, 1999.

- 김영돈·고광민·이창기·현용준·홍양자·유철인·고부자·김정숙·오성찬·김석윤·김순이·강창언·문무병, 『제주민속론』,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5.
- 김영돈·고광민·한림화·강만보, 『제주의 해녀』, 제주도, 1996.
- 문순덕·이성훈 외, 『일제강점기 제주여성사Ⅱ』, 제주연구원, 2011.
- 문옥희·이아승·서은정, 『전남지역 해녀실태조사』, 재단법인 전남여성플라자, 2013.
-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중요무형문화재해설』, 1985.
- 변성구, 『제주민요의 현장론적 연구』,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민속원, 2007.
- 신형석·안미정·좌혜경 외, 『울산 역사 속의 제주민 -두모악·해녀 울산에 오다-』, 울산 대곡박물관 특별전 도록, 2016.
- 안미정, 『제주 잠수의 바다: 사회관계와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문화적 실천』, 제주대학교출판부, 2010.
- 양홍식·오태홍, 『제주향토기』 프린트본, 1958.
- 유철인·이성훈 외, 『해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보고서』, 문화재청, 2016.
- 유철인·제민일보 해녀기획팀, 『제주해녀 역사의 고리를 연결하다』, 제주도·(사)제주세계문화유산보존사업회, 2016.
- 이능화, 『朝鮮女俗考』, 翰南書林, 1927.
- 이봉언, 『재일동포 1세, 기억의 저편』, 동아아시아, 2009.
- 이선애, 『海を 越える 濟州島の 海女- 海の 資源を めぐる 女の たたかい-』, 明石書店, 2001.
- 이성훈, 『해녀노젓는소리 연구』 학고방, 2010.
- _____, 『해녀연구총서』, 송실대학교 한국문예연구소, 2014.
- _____, 『해녀의 삶과 그 노래』 민속원, 2005.
- 제주도문화체육과, 『제주의 민속2 : 생업기술·공예기술』, 제주도, 1994
- 제주도청편·홍성목역, 『濟州島勢要覽』 濟州島の經濟 제주시우당도서관, 1999.
- 제주어사전 조사·집필위원회, 『개정 제주어사전』 제주특별자치도, 2009.
- 제주특별자치도 제4차 여성정책정책중기계획, 제주특별자치도, 2011.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구술로 만나는 제주여성의 삶 그리고 역사』, 2004.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과, 『국가어업유산 제주해녀어업 설명서』, 제주특별자치도, 2015.
- 좌혜경·고창훈·권상철·김동윤 외 6인,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 민속원, 2006.
- 진관훈, 『근대 제주의 경제 변동』, 도서출판 각, 2006.
- 江口保孝, 『濟州島出稼海女』, 『朝鮮量報』, 1915.
- 泉靖一·홍성목역, 『濟州島』 제주시우당도서관, 1999.
- 榊田一二, 『濟州島 海女の地誌學的 研究』, 『大塚地理學會論文集』 第2輯, 1934, 홍성목역, 『改訂版 濟州島の 地理學的 研究』, 제주시 우당도서관, 2005.

田口祺意, 「濟州島 海女」, 『朝鮮』 218號, 1933(昭和 8年), 홍성목 역, 『「濟州島」의 옛 기록』, 제주시우당도서관, 1997.

朝鮮總督府, 『漁業曆』, 1916.

朝鮮總督府農商工部編, 『韓國水產誌』, 제3집, 朝鮮總督府農商工部, 1910.

朝鮮海水產組合, 『朝鮮海水產組合月報』 20호, 1910.

朝鮮海通漁組合聯合會, 『朝鮮海通漁組合聯合會報』 4호, 1903.

吉田敬市, 『朝鮮水產開發史』, 朝水會, 1954.

藤永 壯, 「1932年 濟州島 海女の 鬪爭」, 홍성목 역, 『「제주도」의 옛기록』, 제주시우당도서관, 1997.

學術論文

고창훈, 「제주해녀의 문명사적 가치와 해녀문화의 계승」, 대한토목학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2005.

권귀숙, 「제주해녀의 신화와 실제- 혜정 교수의 해녀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30집, 한국사회학회, 1996.

권미선, 「근현대 제주도 출가(出稼)해녀와 입어관행 분쟁」,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2008.

김수희, 「일제시대 남해안어장에서 제주해녀의 어장이용과 그 갈등 양상」, 『지역과 역사』 제21호, 부경역사연구소, 2007.

_____, 「日帝時代 濟州 海女の 海藻類 採取와 入漁」, 『濟州海女: 抗日運動, 文化遺產, 海洋文明』, 제주해녀박물관개관기념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위원회, 2006.

김영돈 외 3인, 「南濟州郡 中文面 中文里 海女」, 『恥羅文化』 第5号,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91.

김영돈, 「제주도해녀의 출가」, 『석주선교수회갑기념민속학논총』 1971.

_____, 「해녀 출가와 그 민요」, 『현곡양중해박사화갑기념논총』, 동간행위원회, 1987.

김영돈·김병국·서경림, 「해녀 조사 연구」, 『탐라문화』 제5집, 제주탐라문화연구소, 1986.

김영천·한광웅, 「질적 연구방법으로 생애사 연구의 성격과 의의」, 『교육문화연구』 18권, 2012.

김윤지,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국가무형문화재 가치의 재인식과 쟁점 모색」, 『문화와융합』 38권 3호, 2016.

김정하·이종현, 「영도 해녀'에 대한 현장론적 연구」, 『人文社會科學論業』 16호, 2008.

김주백, 「女人國巡禮, 濟州道海女」, 『삼천리』 제1호, 1939.

김준, 「마을 어장의 위기와 가치의 재인식」, 『도서문화』 38집,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

원, 2011.

김창일, 「제주 출향해녀의 물 정착과 물질방식」, 『근현대 동아시아-어민문화와 그 전개』, 국립민속박물관 국제 학술대회 자료집, 2019.

문화예술과, 『朝鮮總督府官報 中 濟州錄』, 濟州道, 1995.

민경임, 「한국 해녀의 역사 및 생활상태」, 이화여대 이대사원, 1964.

민성은·최성호·김영천, 「생애사 연구의 개념적 모형에 대한 이론적 탐색」, 『교육문화연구』 23권, 2017.

박병춘,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모형 및 기본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제20권 2호, 2012.

박병춘·김석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DB 정보 플랫폼 개발」, 『지역사회연구』 제20권 1호, 2012.

박찬식, 「제주해녀의 역사적 고찰」, 『역사민속학』 제19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4.

_____, 「海女鬪爭의 歷史的 記憶」, 『濟州海女 : 항일운동, 문화유산, 해양 문명』, 제주해녀박물관 개관기념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사업위원회, 2006.

_____, 「제주해녀의 역사적 고찰」,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 민속원, 2006.

박혜영, 「기술변동에 따른 미역 인공양식의 확산과 어민들의 생업전락-부산 '기장미역'을 중심으로」, 『실천민속학 연구』 제28호, 2016.

백광세·김진경·한대석·강복순·홍석기, 「한냉자극(寒冷刺戟)에 대한 한국해녀의 혈관계 반응(血管系反應)에 관한 연구(Studies on Vascular Responses to Cold Stimuli in the Korean Diving Women)」, 대한생리학회 대한생리학회지 제3권 제1호, 1969.

변진희, 「제주해녀 보존·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실증적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2008.

송기태, 「청산도 마을어장의 확장과 어업공동체의 적응」, 『남도민속연구』 36호, 2018.

송정현, 「일본의 양식어장 이용제도에 관한 연구」, 『수산경영론집』 제41권 제1호, 2010.

안미정, 「식민지시대 한·일 해역의 자원과 해녀의 이동」, 『한국민족문화』 58호, 2016.

_____, 「오사카 재일(在日) 제주인 여성의 이주와 귀향」, 『耽羅文化』 第32號,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_____, 「제주해녀의 이미지와 사회적 정체성」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_____, 「해안마을 여성의 공동어로와 자원에 대한 권리 : 제주도 잠수(潛嫂)의 사례에서」,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10권 2호, 역사문화학회, 2007.

_____, 「해방 전후 제주 잠수(해녀)들의 부산 정착의 사회사적 고찰 : 지역 간 경계를 넘은 이동과 갈등을 중심으로」, 『耽羅文化』 제37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안병태, 「李朝時代의 海運業-그 實體와 日本海運業의 侵入-」, 『朝鮮社會의 構造七 日本帝國主義』, 龍溪書舍, 1977.

양숙연, 「제주해녀의 삶에 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1994.

양영자, 「해녀노래 사설에 드러난 해녀의 경제활동과 해녀노래 전승방안」, 제주대 교육대

- 학원 석사논문, 1997.
- _____, 「해녀노래의 표현과 주제」, 『영주어문』제6집, 영주어문학회 2003.
- _____, 「해녀노래의 표현형식과 고찰」, 『민요논집』제8집, 민요학회, 2004.
- 오선화, 「죽변지역 이주잠녀의 사회·경제적 연망과 연대 양상」, 『한국민속학보』 제9호, 한국민속학회, 1998.
- _____, 「죽변지역 이주잠녀의 적응과정 연구」, 안동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8.
- 오성찬, 「제주해녀들의 거친 삶」, 『새가정』 5월호 통권 369, 1987.
- 오홍석, 「帆船 航海時代의 濟·京海路」, 『제주도연구』 제1집, 제주학회, 1984.
- 유철인, 「제주해녀의 몸과 기술에 대한 문화적 접근」, 제3회 민속학 국제학술회의, 한국민속학회, 1999.
- _____, 「제주해녀의 삶 : 역사인류학적 과제」, 『깨어나는 제주여성의 역사』,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2001.
- 유형숙, 「울산 여성 어업인(해녀)들의 변천사」, 『울산학연구총론』, 울산발전연구원 부설 울산학연구센터, 2014.
- 윤유녕, 「Toward reviving the myth of woman's land」, 제1회 섬학술회의 발표논문, 7. 1997.
- 이성훈, 「해녀노젓는소리 사설의 현장론적 분류와 유형」. 『고전과 해석』 6권, 2006
- 이성훈, 「해녀노젓는소리 연구」, 송실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2007.
- 이성훈, 「해녀노젓는소리의 형성과 본토 전파」, 『우리문학연구』 제24집, 2008.
- 이주영·김시연·장영준·이효현 「Diving bradycardia of elderly Korean women divers in cold seawater: a field report」, 『Extreme Physiology & Medicine』 4(Suppl 1), 2015.
- 이주영·이효현, 「제주해녀, 그 삶의 환경생리학적 보고(Korean Women Divers 'Haenyeo': Bathing Suits and Acclimatization to Cold)」, 『한국생활환경학회지』17권 1호, 2014.
- 이지치 노리코, 「제국 일본과 제주도 출가 잠수」, 『글로벌시대의 여성과 생활실천』, 동국대 문화학술원 일본학연구소 국제학술심포지엄 발표자료집, 2011.
- 임돈희·로저L.자넬리, 「무형문화재의 전승 실태와 개선 방안」, 『비교민속학』 28집, 2005.
- 임돈희·로저L.자넬리·박환영,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제도와 그 의미」, 『비교민속학』 26집, 비교민속학회, 2004.
- 장혜련, 「다문화사회와 이주민의 정체성 ; 제주해녀-바다를 횡단하는 트랜스내셔널 유목주체 Special Theme :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Identity of Migrants ; Jeju Haenyeos-Transnational Nomadic Subject Crossing the Seas」, 『비교한국학』 제 19권 제1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1.
- 조경희, 「불안정한 영토, '밀항'하는 일상-해방 이후 70년대까지 제주인들의 일본 밀항」, 『사회와 역사』 106호, 한국사회사학회, 2015.

조혜정, 「제주도 해녀 사회 연구」, 『한국인과 한국문화』, 심설당, 1982.
좌혜경, 「제주 출가(出稼)해녀의 현지 적응」, 『영주어문』 10권, 영주어문학회, 2005.
좌혜경·권미선, 「제주해녀의 생업과 문화」, 『제주도연구』 32권, 제주학회, 2009.

口述資料

김영호, 1939년생, 부산 영도구 동삼어촌계, 구좌읍 출신, 2021.9.29.~30.
고승여, 1949년생, 부산 영도구 동삼어촌계, 구좌읍 평대리 출신, 2021.10.13.
고금순, 1953년생, 부산 영도구 동삼어촌계, 구좌읍 종달리 출신, 2022.11.17~18.
김정생, 1947년생, 부산 영도구 동삼어촌계, 구좌읍 하도리 출신, 2022.11.17~18.
부축생, 1949년생, 부산 영도구 동삼어촌계, 구좌읍 평대리 출신, 2022.11.17~18.
윤연옥, 1948년생, 부산 영도구 동삼어촌계, 우도면 출신, 2022.11.17~18.
최동식, 1956년생, 부산 영도구 동삼어촌계, 제주 이주 3세대, 2022.11.17~18.
공태도, 1928년생, 기장군 향토사학자, 전 기장군지 편찬위원장, 2022.11.18. 인터뷰.
황현일, 다큐멘터리 사진가·기장군보 편집장, 2022.11.18~19. 인터뷰.
오성찬 기증 자료, ‘해녀(海女) 강예길(姜禮吉)의 일생(一生)(88세) 행원리 막내딸 박정자의 집. 1985.2.8. 오전’ 녹취록

其他 資料

경향신문·동아일보·중앙일보·제민일보·제주일보·제주의소리·한라일보 뉴스 아카이브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국립국어원 www.korean.go.kr
국립무형유산원 www.nihc.go.kr
국립민속박물관 www.nfm.go.kr 한국민속대백과사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조선총독부관보
문화재청 www.cha.go.kr
부산박물관 <https://museum.busan.go.kr/busan/index>
부산향토문화대전 <http://busan.grandculture.net/?local=busan>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형 문화유산 국제연구센터 <http://www.irci.jp>
어촌어항사업관리시스템 http://naraport.mof.go.kr/newdeal300/sub01_01.do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www.ichcap.org
유네스코한국위원회 www.unesco.or.kr
제주해녀박물관 www.haenyeo.go.kr